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9-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김태완·김문길·최준영·강예은

【책임연구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포용성장 비전과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공저)

【공동연구진】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한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5
제2장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및 유사정책 사례	9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9
제2절 대학 주요 지원사업 평가사례	1· 2
제3장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지원사업 성과분석	9· 2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정책효과 성과분석틀	9· 2
제2절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	1· 3
제3절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	2· 4
제4절 청년고용, 경력개발서비스 및 지역거버넌스 효과	3· 5
제5절 성과 : 취업률, 고용유지율	0 8
제6절 소결	5
제4장 대학일자리센터 질적평가	1· 9
제1절 질적 평가 방법	19
제2절 질적 평가 내용	49

제5장 대학진로취업 인프라 정책효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9·0·1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정책효과 분석 결과	901
제2절 대학일자리센터 개선방안	21
제3절 대학일자리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711
참고문헌	125
부록	127

표 목차

〈표 1-1〉 대학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결과	4
〈표 2-1-1〉 전국대학일자리센터 현황	9..... 1
〈표 2-1-2〉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현황	0..... 2
〈표 2-1-3〉 지역 청년 대상 서비스 참여 현황	0..... 2
〈표 3-1-1〉 전국대학 진로, 취업 지원 실태조사 결과	0..... 3
〈표 3-2-1〉 컨소시엄 여부	2..... 3
〈표 3-2-2〉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3..... 3
〈표 3-2-3〉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총괄담당자	4..... 3
〈표 3-2-4〉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사항이 있는 비율	5..... 3
〈표 3-2-5〉 진로취업지원 관련 전담직원 유무 및 인원	6..... 3
〈표 3-2-6〉 진로취업지원 관련 자체 인재상 및 진로취업지원 체계도(로드맵 등) 유무	7..... 3
〈표 3-2-7〉 진로취업지원 체계도의 형식(복수응답 가능)	7..... 3
〈표 3-2-8〉 진로취업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진로취업 관련 교수제 유무	8..... 3
〈표 3-2-9〉 종합경력개발시스템의 주요 기능 여부	9..... 3
〈표 3-2-10〉 교내 인트라넷과 교내 경력개발시스템(학생이력관리시스템 등)의 연계 상황	0..... 4
〈표 3-2-11〉 대학 자체 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 등의 연계 상황	1..... 4
〈표 3-2-12〉 진로취업지도교수제가 있는 경우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1..... 4
〈표 3-3-1〉 진로지도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	2..... 4
〈표 3-3-2〉 진로지도 서비스 연간 평균 참여 인원	3..... 4
〈표 3-3-3〉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1	4..... 4
〈표 3-3-4〉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2	5..... 4
〈표 3-3-5〉 취업지원 서비스 연간 평균참여 인원-1	6..... 4
〈표 3-3-6〉 취업지원 서비스 연간 평균참여 인원-2	7..... 4
〈표 3-3-7〉 진로취업 독려를 위한 방법	8..... 4
〈표 3-3-8〉 재학생 전체 인지도	9..... 4
〈표 3-3-9〉 재학생 교내 서비스 인지도	0..... 5
〈표 3-3-10〉 GOMS: 대학일자리센터 인지 및 관심정도	0..... 5
〈표 3-3-11〉 GOMS: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및 횟수	1..... 5
〈표 3-3-12〉 재학생 전체 만족도	2..... 5
〈표 3-4-1〉 상담건수	3..... 5

〈표 3-4-2〉	상담건수(1~3차년도 참여대학)	4	5
〈표 3-4-3〉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	5	5
〈표 3-4-4〉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1~3차년도 참여대학)	5	5
〈표 3-4-5〉	진로취업 교과목 제공현황(있음 비율)	6	5
〈표 3-4-6〉	진로취업 교과목 연간 수강인원(평균)	7	5
〈표 3-4-7〉	진로교과목 이수자수	8	5
〈표 3-4-8〉	진로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8	5
〈표 3-4-9〉	취업교과목 이수자수	9	5
〈표 3-4-10〉	취업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9	5
〈표 3-4-11〉	창업교과목 이수자수	0	6
〈표 3-4-12〉	창업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0	6
〈표 3-4-13〉	전체교과목 이수자수	1	6
〈표 3-4-14〉	전체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1	6
〈표 3-4-15〉	재학생 대비 교과목 이수비율	2	6
〈표 3-4-16〉	재학생 대비 교과목 이수비율(1~3차년도 참여대학)	2	6
〈표 3-4-17〉	진로 비교과 참여자수	3	6
〈표 3-4-18〉	진로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4	6
〈표 3-4-19〉	취업 비교과 참여자수	4	6
〈표 3-4-20〉	취업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5	6
〈표 3-4-21〉	창업 비교과 참여자수	6	6
〈표 3-4-22〉	창업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6	6
〈표 3-4-23〉	전체 비교과 참여자수	7	6
〈표 3-4-24〉	전체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7	6
〈표 3-4-25〉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	8	6
〈표 3-4-26〉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1~3차년도 참여대학)	9	6
〈표 3-4-27〉	서비스 지역청년 참여자 수	0	7
〈표 3-4-28〉	서비스 지역청년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0	7
〈표 3-4-29〉	서비스 타대학 참여자 수	1	7
〈표 3-4-30〉	서비스 타대학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1	7
〈표 3-4-31〉	서비스 특성화고 참여자 수	2	7
〈표 3-4-32〉	서비스 특성화고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2	7
〈표 3-4-33〉	서비스 기타 참여자 수	3	7
〈표 3-4-34〉	서비스 기타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3	7
〈표 3-4-35〉	서비스 총 참여자 수	4	7

〈표 3-4-36〉 서비스 총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4..... 7
〈표 3-4-37〉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5..... 7
〈표 3-4-38〉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5..... 7
〈표 3-4-39〉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1	6..... 7
〈표 3-4-40〉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2	7..... 7
〈표 3-4-41〉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3	8..... 7
〈표 3-4-42〉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4	9..... 7
〈표 3-5-1〉 평가자료를 활용한 취업률	0..... 8
〈표 3-5-2〉 평가자료를 활용한 취업률(1~3년차)	1..... 8
〈표 3-5-3〉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평균 취업률	2..... 8
〈표 3-5-4〉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취업률(대학특성별 세분화, 2018년 기준)	2..... 8
〈표 3-5-5〉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고용유지율	3..... 8
〈표 3-5-6〉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유지율(대학특성별 세분화, 2018년 기준)	8
〈표 3-5-7〉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유지율(대학특성별 세분화, 2018년, 3년참여) ·	8
〈표 4-1-1〉 질적 평가를 위한 FGI 개요	1..... 9
〈표 5-2-1〉 전국 대학교 개소	9·11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실업률 변화	1
[그림 2-1-1] LINC사업과 LINC+사업 유형간 비교	2..... 2
[그림 2-1-2] 진로교육 성과평가 모형(안)	5.....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연구는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 및 취·창업 기능의 일원화, 청년에 대한 역량강화,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센터 도입이전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지만, 분절적 운영, 대학조직내 미융합 등의 한계점이 발견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거버넌스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학일자리센터로 일원화(2018년) 되었다.

우리 연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성과분석을 위해 정량(한국고용정보원 자료, 대학 대상 실태조사) 및 정성평가(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성과 분석은 네가지틀에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양적 분석에서는 첫째,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 셋째, 청년고용 및 경력개발서비스 효과, 넷째, 지역청년 거버넌스 및 서비스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간 진로 및 취·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 재학생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다양한 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과 제공을 통해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반면에 대학일자리센터 도입 주 목적중 하나

있던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제공 부문은 이전보다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량분석에 대한 성과물은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률은 대학일자리센터 3년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2016년 평균 51.85%에서 2018년에는 63.48%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과 비교시 소폭이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고용유지율의 경우에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2017년과 2018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평가 결과에서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특징은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구로서의 위상강화와 체계적 조직 구축이었다. 무엇보다 상담인력이 보강되고, 인력운영의 안정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되었다.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에 고학년 중심으로 설계된 진로, 취·창업 서비스가 대상범위를 저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졸업생의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해지고,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진로취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상담기능이 강화된 또한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대학일자리센터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단대, 학과 진로상담 교육에 센터 직원의 참여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상담서비스 내실화 및 심층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센터 직원 및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화, 체계화 된 심층상담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시 대학내 혹은 다른 기관과(보건소, 정신보건, 청소년 및 청년보호 기관 등)의 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진로, 취·창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생규모, 대학 특성에 따른 진로, 취·창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화, 집중화, 소그룹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학생참여 증대를 위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협의회

를 운영하거나, 옴부즈만 혹은 도우미 제도 등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학생 모니터링과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도입 이후 대학 자체의 변화를 유도한 것은 물론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위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학일자리센터는 기능개편을 통한 후속사업을 도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일자리센터 후속 사업에서는 대학들이 중점·거점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며, 역할은 지역거버넌스 기능 확대, 학생 자율적 참여 및 (자체)평가기능의 확대,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소외 청년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비 거점 대학에 대한 지원 등에 있다.

향후 미래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첫째는 진로·취업·창업 중장기 운영 방향설정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발전방안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학일자리센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취·창업지원이 진로교육에 포함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셋째는 평생교육, 평생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용어: 대학일자리센터, 성과분석, 진로교육, 취업 및 창업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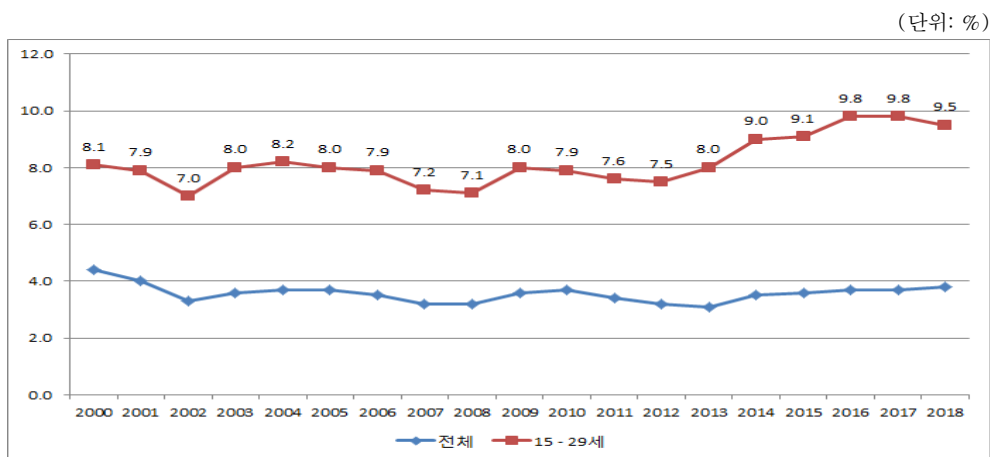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낮아지기 보다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7.0%까지 줄어들었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를 넘어선 이후 최대 9.8%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의 두배 이상으로 청년층의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청년실업률 변화



자료: 통계청, KOSIS, 원자료

정부는 여러 경로와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지원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수행하여 왔지만, 청년들은 실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주로 지인, 친구, 선배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의 경우 일자리 정보는 주로 학교선생님(43.6%), 인터넷 구직사이트(33.1%), 부모 등 지인(13.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이승렬 외, 2015). 대졸자의 경우 채용시험 합격(34.8%), 인터넷 구직사이트(21.9%), 인맥(가족 및 지인, 선생님)을 통한 취업이 24.2% 등으로 조사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6). 대졸자 구직기간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었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2018)에 의하면,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4년 2.7개월로 전년 동월 조사에 비해 0.4개월이 증가하였으며, 첫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7개월로 0.1개월이 증가하였으며, 학력별로 보면 고졸자는 1년 4개월로 0.5개월이 증가하였지만, 대졸자는 7.7개월로 0.3개월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지니고 있는 청년층과의 미스매칭, 공급자 중심의 취업정보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원하는 진로, 직업체험 및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동 사업은 2016년 초기 41개 대학에서 2019년에는 105개 대학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 사업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한국고용정보원, 2019).

대학 입학초기부터 전공별, 학력별로 진로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업 이후 평균구직기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4년차로 들어서는 현재 상황에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 중장기 운영방안,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등으로 공간 및 업무 집중이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와 이로 인한 긍정 부정적 효과, 조기진로 교육이 가져온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의 행태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우리 연구의 목적은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지난 4년간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사전적으로 성과평가를 구성하여, 평가들에 의한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목적인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시스템, 센터의 인력·예산·인프라·컨텐츠 등에 대한 성과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성과분석을 위한 구성과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추가적으로 지원 중

료 이후 관련 대학의 진로·취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우리 연구는 현재 운영중인 대학일자리센터의 성과평가와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진로 및 취업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국내외 유사 연구를 통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매년 진행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지표와 일자리 사업, 정부 주요 정책 평가 사업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구축된 성과평가틀을 기초로 지난 3년간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주요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성과분석의 주요 내용은 지난 3년간 인력·예산·인프라·컨텐츠 구축 등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과분석 방법은 먼저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그 성과를 보기 위해 일자리센터 관계자, 컨설턴트, 교수 및 학생, 이외에 직접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적분석(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으로는 결정된 성과분석틀에 근거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및 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진로,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인프라, 인식 등에 대한 대학별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성과분석을 토대로 현재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 지원종료 대학에 대한 진로 및 취업 지속 가능성 제공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2. 연구 방법

대학일자리센터 성과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위해 우선 문헌 고찰을 통해 청년 구직경로 및 구직활동 등과 대학 진로 및 취업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성과분석틀 구축

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위해서 먼저 양적 분석방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평가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1차 양적 평가와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아래 표는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대학공시자료에 포함된 389개 대학 중 220개 대학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83개소(2018년 기준 101개 중 82.2%),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 137개소를 조사하였다. 대학 유형별로는 5천명 미만 대학이 120개소, 5천명~만명 미만이 67개소, 만명 이상 대학이 33개소가 조사되었다. 4년제 대학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많이 조사되었다. 대학공시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대학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대학공시자료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빈도	%	전체(2018)	빈도	%
전체		220	389	83	37.7	101	137	62.3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20	242	24	20.0 (28.9)	27	96	80.0 (70.1)
	5천~만명	67	96	38	56.7 (45.8)	45	29	43.3 (21.2)
	만명 이상	33	51	21	63.6 (25.3)	29	12	36.4 (8.8)
대학종류	4년제	142	221	64	45.1 (77.1)	78	78	54.9 (56.9)
	2~3년제	78	168	19	24.4 (22.9)	23	59	75.6 (43.1)
대학유형	국공립	32	56	15	46.9 (18.1)	17	17	53.1 (12.4)
	사립	188	333	68	36.2 (81.9)	84	120	63.8 (8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주: ()는 각 세부 변수별 비율임

대학일자리센터 공급자 및 수요자 대상 질적 분석(FGI)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및 컨설턴트, 교수 및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분석과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외에 대학진로, 취·창업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학일자리 센터 발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 기대효과

우리 연구는 청년층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의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통한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성과평가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었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는 법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정부의 청년 정책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연구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가 일정부문 확인됨으로써 대학일자리센터의 한계인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둘째,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처음 성과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센터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평가모형 구축 및 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 청년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선제적인 성과평가는 향후 청년 진로 및 취·창업 사업에 대한 평가들과 분석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 취업 제고 및 청년 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면, 많은 청년들은 진로 및 취·창업 등에 대한 정보 획득, 실천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위한 진로 및 취·창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정보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2. 연구한계

우리 연구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단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중장기적 계획 혹은 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대학일자리센터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대학일자리 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추가조사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대학일자리센터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자료에 축적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보고서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유무를 기준으로만 분석이 수행되었다.

향후 신규로 진입하는 대학일자리센터들의 경우 사전 자료 축적을 의무화하거나, 신청시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동 자료를 통해 센터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성과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제 2 장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및 유사 정책사례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제2절 대학 주요 지원사업 평가사례

2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및 유사정책 사례 <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현황

1.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전 주요 사업

대학일자리센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학생들의 진로, 취업 및 창업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1단계로 볼 수 있는 초창기의 모습은 주로 대학내에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전담부서’ 등을 만들거나 도입하는 것이 주요한 형태였다(변정현 외, 2017). 초기 취업전담부서의 모습은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전문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기 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학생서비스 차원의 일차원적인 지원형태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대학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및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단계로서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취업지원관 사업은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학내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려 하였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당시 대학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완하고 학생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 전문업체 혹은 컨설팅 업체 등을 섭외하고 이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는 그동안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한 진로 및 취·창업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취업지원관제도는 대학내 인건비 지원형태로 대학청년고용센터 역시 관련 예산 지원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교 조직내에 충분히 안착

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양적으로는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가 대학내에 갖추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영은 분절적으로 형식적이고 불안정하게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잘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변정현 외, 2017).

정부는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가 가진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대학내 재학생은 물론 지역청년 등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2015년)을 통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동 제도들은 2018년에 폐지되었다.

2018년 이후 대학에서의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가 대학일자리센터로 통합되었지만, 나름대로 청년에게 있어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개요¹⁾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일원화 및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심사 등을 통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용센터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지원대학은 학내에 ‘대학일자리센터’(대·소형 포함)를 운영하며,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취업알선, 청년고용정책 홍보,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대상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대학 내에 설치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유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나뉘는데, 대형의 경우 6억의 사업비와 자대생 대상 서비스 및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능을 포함하며, 소형의 경우 2억의 사업비와 지역거버넌스 기능을 제외한 자대생 중심 서비스를 포함한다. 대학일자리본부 등 대학별 상황에 따라 명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2018).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을 재인용한 것이다.

가. 사업방향 및 주요기능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기본방향은 대학 내 분절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거점별 대학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단위 청년고용 촉진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은 첫째,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 통합 및 연계와 둘째, 대학 밖의 지역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 구축이다. 첫째로 대학 내에서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진로교육, 상담기능 등의 공간적 통합 또는 기능적 연계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 기능이다. 이 기능은 대학 저학년부터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취성패, 직업훈련, 청년·기업 지원제도 등 정부의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조직의 인적·물적 규모 확대를 통해 자대생·졸업생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게까지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로 대학 밖에서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계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단위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인근지역 청년(타대생, 특성화고 등 고졸(예정)청년 등) 대학 진로·취업 상담·특강, 경력개발컨설팅 정책 안내 등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1) 사업기간 및 주요 지원내용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기간은 대학당 최대 5년간(시범사업 기간 제외) 지원이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유형 변경(대형↔소형)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회계연도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대학 회계연도를 적용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사업규모는 2019년 105개교를 지원하고, 대학당 평균 사업비는 연간 6억원, 소형사업의 경우 2억원으로 한다. 대형사업 기준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5억원

이었으나 2017년 사업비는 6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다.

사업비 매칭방식은 대형의 경우 6억원, 소형의 경우 2억원의 사업비를 정부(50%), 대학·지자체(50%) 매칭으로 하며, 대학과 지자체 간 비율은 자율조정이 가능하나, 지자체 매칭은 필수요건으로 한다. 다만 대형의 경우 재학생수 5,000명 미만 대학은 사업비를 감액지원하여 연간 사업비 5억원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경비이며 대형의 경우 2018년 1억원 이상의 사업비 일부를 공모, 제안, 아이디어 접수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파악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하도록 했다. 2017년 이후 선정된 대·소형대학은 4년차부터 정부지원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연차별 정부지원비율은 전체 사업비 대비 1~3년차에는 50%, 4년차 45%, 5년차 40%이다. 3~4년 연속 평가 우수대학은 감액비율 대비 50%만 감액한다.

2) 대학일자리센터 세부 운영방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와 지방청, 본부를 거친 심사위원회의 사업심사, 고용센터-대학-지자체의 협약체결, 대학의 사업개시, 관할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의 사업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을 지원요건으로 하며,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소형사업 지원요건은 첫째, 전문대학. 둘째, 재학생수 5,000명 미만(대학알리미 등재 기준, 정원 내, 휴학생 제외) 일반대학. 셋째, 대학·청년층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지역·대학 특성 상 일자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대학이다.

나. 지원대학 선정 및 약정체결

1) 사업 추진절차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 지방청에서 본부를 거친 심사위원회의 사업심사, 고용센터-대학-지자체의 협약체결, 대학의 사업개시, 관할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행상황 점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고용노동부 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등의 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연도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규대학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선정심사 등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신청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을 지원요건으로 하며,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연도 중 대학(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된 경우, 통·폐합 후 대학으로 신청한다. 소형사업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둘째, 재학생수 5,000명 미만(대학알리미 등재 기준, 정원 내, 휴학생 제외) 일반대학. 셋째, 대학·청년층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지역·대학 특성 상 일자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대학(향후 대형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2호에 따른 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3) 신청방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자체적인 운영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심사시 우대된다. 소형을 제외한 대학 간 컨소시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주관대학을 정해서 신청해야 하며, 주관대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사업자 및 동 지침 상 「지원대학」 으로서 지원금 집행·관리 등을 총괄한다.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시, 사업비 매칭비율 등은 대학이 부담할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하며, 상기 민간기관 상호 간에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민간전문기관의 대표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첫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둘째,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해당사업의 지원·수탁을 희망하는 대학(컨소시엄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및 관련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대학 설립 인가증 사본,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 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이 필요하다.

다만, 명백히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대학 또는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1개 이상 누락된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관리

1) 사업추진 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대학일자리센터의 사업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본부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총괄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거쳐 관할고용센터, 지역청년고용협의회에 속하게 된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저학년부터 진로탐색 및 조기 진로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학년별 맞춤형 진로지도, 종합경력관리 지원, 현장과 연계한 집중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를 한다.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처장급 교수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교무위원급 이상으로 선임 해야한다. 대학청년고용협의회는 대학일자리센터장(위원장) 및 취·창업 관련 부서장, 단과대학장 등으로 구성하는 대학 내 자율 협의체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의사결정, 사업조정, 제도개편 등을 논의한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학 내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둘째, 진로지도 강화. 셋째,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 넷째,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소형 사업은 대학 자율) 이다.

대학 내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의 경우 대학 내 각종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해 대학일자리센터로의 일원화와 취·창업 지원 관련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이 있다. 일원화의 경우 가급적 관련 부서의 공간적 통합을 추진하되, 대학 내 장소적인 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설치하게 된다. 대상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자체 경력개발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이다.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의 경우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입학·재학·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및 융합교육 확대,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있다.

진로지도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 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수·학과 차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저학년부터 직업심리검사·진단, 상담, 교과·비교과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

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적성과 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 설정 지원 등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저학년을 포함한 재학생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고, 계열별 분야별 프로그램인 「진로상담가이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취업지원가이드(전문대/일반대)」를 보완하며 진로지도 관련 교양·전공 교과목 운영(교양과목 지정은 필수), 교수·교직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 워크숍, 정보제공 등).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 등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청년지원사업, 훈련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활성화 한다. 이는 네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직무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단계에서는 인문계열 이공계 복수전공 및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젠더의식의 강화와 개인별 커리어개발을 위한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및 각종 체험형·채용연계형 인턴십 등 재학 중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청년고용정책 홍보의 단계에서는 학생, 교수, 인근 청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설명회를 실시하며 청년고용정책, 학교 내 취·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제고를 노력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연계한 적극적 취업지원·알선 단계에서는 워크넷을 활용하여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특성화고 등 지역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만남의 날’(기업설명회·채용박람회 등) 등의 취·창업 지원과 상담·훈련 등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의 연계, 취업캠프, 취업동아리 지원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산업계·지역기업네트워크 등과 연계한 창업교육 활성화, 채용연계형 인턴십 등을 활용한 취업지원도 하고 있으며 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과·전공, 업종·직무별 졸업생 취업현황 D/B 구축 및 분석 활용 등이 이뤄진다.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소형사업은 대학 자율)의 측면에서는 지역 내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 인자위, 지역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층 특화 고용서비스의 핵심적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센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체 운영 및 공동·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요·공급 관련 협업·정보교류 등과 인근 특성화고, 타대생 등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및 청년고용 정책 홍보, 인근 대학 취·창업지원 담당자들과의 정보교류 등을 한다. 기타 대학에서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율로 추진한다.

2)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운영관리

대학은 자체채용 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 센터 내에 진로·취업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며, 컨설턴트 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학상황에 맞게 자율로 결정한다. 해외취업 관련 상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데, 센터 소속 교직원, 컨설턴트 중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1명 이상을 지정한다. 대학은 센터 내에 학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형태의 상담실을 마련하고, 컨설턴트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을 운영해야 한다(성과평가 반영). 다만,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주관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공동 프로그램 등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

컨설턴트는 학생 개인별 상담내용을 대학별 자체 경력개발시스템, 워크넷 등으로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한다. 대학이 컨설턴트 등 취업지원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할 계획을 제시하고 충실히 이행한 경우 선정심사·성과평가 시 우대한다. 이때 정규직화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정규교원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등 방식을 말한다.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대학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선정·정기 점검·성과평가 또한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간 사업비 분담이 가능하며, 분담비율 등은 대학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비를 통해 배치된 컨설턴트는 주관대학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요일을 정해 참여대학에 출장 등 방식으로 상담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단, 대학간 거리와 특성을 고려해 2명 이내 범위에서 참여대학에 상시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진로, 취·창업의 전문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대학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운영이 가능하나, 사업 운영주체는 반드시 대학이어야 하므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체를 민간기관에 일괄 재위탁하는 방식은 불가하다.

컨소시엄 기관을 통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자체운영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인 대학의 운영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성과평가 시 우대한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 대학 자체운영이 어려운 특정 프로그램을 기간(단기간) 또는 운영횟수를 정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업무단위 및 기간을 한정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턴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컨소시엄 기관에 지급될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대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기관 관 협의를 통해 지급시기 등을 결정한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컨소시엄 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컨소시엄 기관이 주관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은 불가하다. 대학은 민간기관과의 계약·약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 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업체변경 또는 자체운영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업체 변경 시 기존에 배치된 컨설턴트에 대한 고용승계 노력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학은 컨소시엄 민간기관의 자격요건 상 하자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지도점검 시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3) 사업비 세부내역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비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 내에서 운영비는 40~55%, 프로그램비는 45~60%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하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포함하며 프로그램비 중 1억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등 수요파악을 통해 선정된 취·창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해야 한다. 이때, 소형대학의 경우는 자율이다.

공모방식은 설문 등 수요조사, 프로그램 공모, 아이디어 제안 등 매년 학생 등 수요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공모사업비의 경우 감액대학의 예산은 83,300천원이다. 프로그램비의 경우 대형은 총 사업비 6억 중 45~60%인 270~360백만원, 감액대학의 경우 225~300백만원이다. 소형은 총 사업비 2억 중 45~60%인

90~120백만원이다.

운영비 중 인건비의 경우 대형은 총 사업비 6억 중 35~50%인 210~300백만원, 감액대학의 경우 175~250백만원임. 소형은 총 사업비 2억 중 35~50%인 70~100백만원이다. 운영비 중 운영경비의 경우 대형은 총 사업비 6억 중 5% 이내인 30백만원, 감액대학의 경우 25백만원이다. 소형은 총 사업비 2억 중 5% 이내인 10백만원 이다. 사업비는 가급적 항목별 비율에 맞게 사업계획에 반영·활용하되, 불용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하다. 단, 인건비-프로그램비 간 전용만 가능하며, 운영경비는 제외된다.

3.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현황

2019년 기준 대학일자리센터는 105개 대학에서 운영중에 있다. 2015년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2015년 시범사업(21개 대학)이 있었으며, 이후 2016년부터 41개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8년 101개 대학, 2019년 기준 105개 대학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운영중에 있다²⁾.

2018년말 기준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101대학 중 사립대가 84.2%, 국·공립대가 15.8%로 사립대의 비중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대학종류별로는 4년제 대학이 77.2%, 2·3년제 대학은 22.8%이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언제 개소되었는지를 보면 2018년 40개(39.6%), 2017년 20개(19.8%)로 60% 정도가 최근에 개소되었으며, 2016년 이후 3년간 계속해서 운영중인 대학은 41개 대학 40.6%이었다. 이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년 추경으로 전문대학, 지방대학 등 소규모 대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형사업이 도입되어 ‘18년부터 소형대학을 본격적으로 신규 선정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2)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시작.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대학일자리센터를 경북형으로 명명하고 2019년 경북대(상주캠퍼스), 금오공대, 대구한의대, 경북도립대, 포항대, 호산대 등 6곳에 추가 설치(학교당 1억~1억5천만원(도 40%, 시군 40%, 대학 20%)를 지원)(한국일보, 경북도내 대학 절반 이상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2019.10.02.)

〈표 2-1-1〉 전국대학일자리센터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학설립 유형		대학종류		센터개소 연도			
	사립대	국·공립대	4년제	2·3년제	2015	2016	2017	2018
101개교	85 (84.2%)	16 (15.8%)	78 (77.2%)	23 (22.8%)	21 (20.8%)	20 (19.8%)	20 (19.8%)	40 (39.6%)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18년 기준)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현황을 보면, 교수가 7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컨설턴트(17.2%)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은 교수의 비중이 고학년은 컨설턴트에 의한 상담 비중이 많았다. 반면에 지역청년을 위한 상담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2〉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현황

(단위: 명, %)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생	지역청년	기타 (학년구분X)	계
컨설턴트	인원	23,848	43,397	41,411	112,826	37,929	6,877	3,052	269,340
	비율	(8.9)	(16.1)	(15.4)	(41.9)	(14.1)	(2.6)	(1.1)	(17.2)
교직원	인원	20,724	14,090	15,405	15,898	2,662	632	11,498	80,909
	비율	(25.6)	(17.4)	(19.0)	(19.6)	(3.3)	(0.8)	(14.2)	(5.2)
교수	인원	317,489	297,644	239,767	253,302	16,354	2,227	56,841	1,183,624
	비율	(26.8)	(25.1)	(20.3)	(21.4)	(1.4)	(0.2)	(4.8)	(75.7)
기타 ¹	인원	5,242	3,686	3,170	6,849	1,384	86	10,037	30,454
	비율	(17.2)	(12.1)	(10.4)	(22.5)	(4.5)	(0.3)	(33.0)	(1.9)
계	인원	367,303	358,817	299,753	388,875	58,329	9,822	81,428	1,564,327
	비율	(23.5)	(22.9)	(19.2)	(24.9)	(3.7)	(0.6)	(5.2)	(100.0)

주: 1) 기타: 학사지도사(CA), 재직자멘토링, 여대생 맞춤형 상담, 외부 컨설턴트 등을 통한 상담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표 2-1-3〉 지역 청년 대상 서비스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취업상담	청년고용정책 서비스 연계	취·창업 특강	청년고용정책 홍보	기타 제공내용 ¹	계
지역청년	빈도	27,314	3,960	16,213	29,218	26,625	103,330
	비율	(78.6)	(60.3)	(28.1)	(69.8)	(60.2)	(55.9)
타대생	빈도	3,197	1,836	10,433	5,341	6,881	27,688
	비율	(9.2)	(27.9)	(18.1)	(12.8)	(15.6)	(15.0)
특성화고	빈도	1,558	520	26,091	6,487	5,431	40,087
	비율	(4.5)	(7.9)	(45.3)	(15.5)	(12.3)	(21.7)
기 타 ²	빈도	2667	255	4,893	785	5,287	13,887
	비율	(7.7)	(3.9)	(8.5)	(1.9)	(12.0)	(7.5)
계	빈도	34,736	6,571	57,630	41,831	44,224	184,99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기타 제공내용: 진로취업캠프, 지역기업 취업박람회 및 견학, 지역군인 대상 취업설명회 등

2) 기타 참여자: 지역 고교생, 군인 등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역청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2018년 약 18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중 지역청년이 55.9%, 특성화고 학생이 21.7%, 타대생이 15.0%의 순이었다.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자대생은 물론 지역내 청년과 타대생을 대상으로도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있다. 아직은 규모는 적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대학 주요 지원사업 평가 사례

1. 유사정책 사례: 교육부 LINC & LINC+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교육으로 창의성과 도전정신 있는 인재양성과 혁신적 기술 개발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대학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4). LINC사업의 비전은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

하여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지역대학의 인재유출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LINC 사업은 2012~2016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대학의 산학협력을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용옥, 2017; 백원영, 2019). 이와 같은 성과속에서 정부는 대학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업-공학계열의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LINC 사업을 새롭게 LINC+로 개편하여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개편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그림 2-1-1] LINC사업과 LINC+ 사업 유형간 비교

LINC 사업(12~16년)		LINC+ 사업(17년~)	
일반대	전문대	일반대	전문대
기술혁신형	산학협력선도형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교	10교	55교 내외	15교 내외
현장맞춤형	현장실습집중형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2교	20교	20교 내외	44개교 내외

자료: 이용옥,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The HRD review 2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86, 재인용)

LINC+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는 연차 평가, 단계 평가, 종합평가로 진행되어, 연차 평가는 1·3·4차년도 사업 종료시, 단계평가는 2차년도 사업종료 후, 종합평가는 5차년도 사업종료 직전에 실시하고 있다(이용옥, 2017, 재인용). 평가결과에 대한 패널티로서 연차 평가후 성과미달 대학은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하며, 2회 연속 미달시에는 사업에서 탈락시키게 된다. 단계평가에서도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사업단 계약이 해지되며, 3차년도 신규진입 대학과의 공개경쟁을 통해 재진입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이용옥, 2017, 재인용). 성과미달 대학은 처음

부터 재진입 경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LINC+ 사업에서는 ‘사회적 기여 (Social Impact)’ 개념을 추가하여 대학의 성과가 지역 및 국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지수화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용욱, 2017, 재인용).

2. 선행연구: 사업 평가틀

여기서 논의 된 LINC사업의 성과평가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LINC+ 사업이전의 LINC사업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LINC사업의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선행연구 (김대중, 2018연구)에 따르면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되며,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성과측정 패러다임이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운·김태영, 2016:107).

LINC사업 2단계는 성과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의 가득성과 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발표된 자료중 LINC사업 핵심 성과지표(13개)와 부합되는 10개 세부항목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산학협력활동의 지속성을 전제로 산학협력활동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성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산학협력지수(ICI :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dex)를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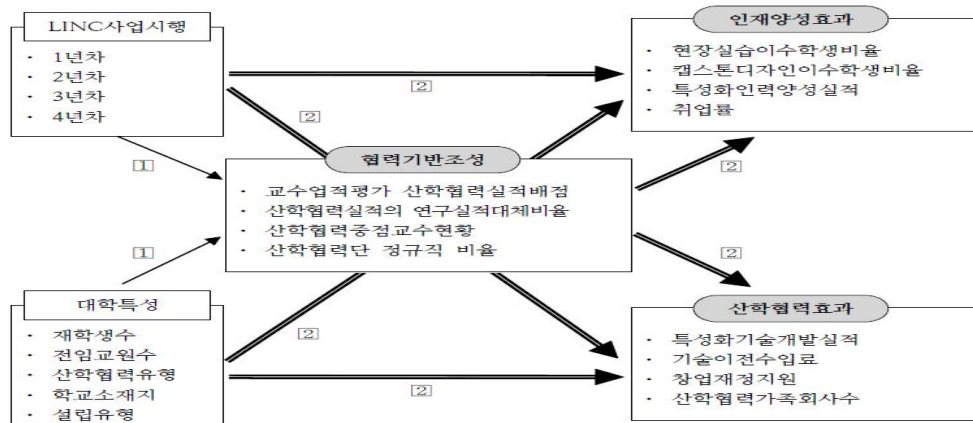
지역간, 대학간 산학협력 성과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는지 또는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변이계수(CRV : Coefficient of Relative Variation)를 활용하여 평균이 다른 집단간 분산(편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핵심 지표는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지표별 우열을 비교하여 어느 지표가 열악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계수(Z score)를 활용한 T점수 (T score)를 사용한다.



자료: 김대중(201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

두 번째 선행연구(이상미 외, 2016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LINC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산학협력활동을 추진한 초66개 대학을 분석단위로 하여 LINC사업의 지원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LINC사업 지원이 개시되기 이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분석모형은 LINC사업의 논리모델을 고려하여 2단계로 설정했다.

제1단계는 앞서 투입자원의 ‘전환’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조성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제2단계는 LINC사업의 최종성과는 제1단계에서 종속변수로 검토하였던 대학별 산학협력 기반조성 효과를 다시 설명변수로 채용하여 분석했다.



주: ①은 1단계 분석모형(식1, LINC사업의 산학협력 기반조성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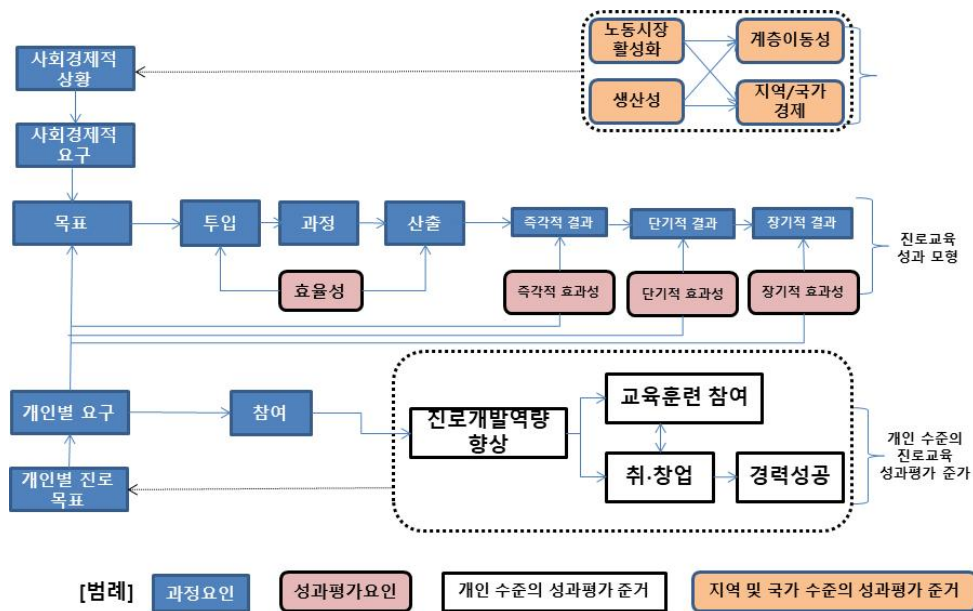
②는 2단계 분석모형(식2, LINC사업 추진성과 분석)을 표시함.

자료: 이상미, 임은혁 외(201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4)

3. 진로교육 평가 관련 선행연구

정철영 외(2019)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별도의 성과평가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의견적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진로교육이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진로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의 어려움, 종합적 성과평가 모형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진로교육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준거틀로서 개인수준의 성과, 지역 및 국가수준의 성과로 구분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관련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모형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림 2-1-2] 진로교육 성과평가 모형(안)



자료: 정철영 외(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 개발. 진로교육연구 32(3). 285-307(p299 재인용)

제 3 장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지원사업 성과분석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정책효과 성과분석틀

제2절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

제3절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

제4절 청년고용, 경력개발서비스 및 지역거버넌스 효과

제5절 성과 : 취업률, 고용유지율

제6절 소결

3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 지원사업 성과분석 <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정책효과 성과분석틀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 및 취·창업 기능의 일원화, 청년에 대한 역량강화,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학 일자리센터가 생긴 이후 처음 진행하는 성과분석이라는 점에서 위의 세 가지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고 담보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 일자리센터 설립의 세 가지 목적을 기초로 하여 성과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급자(센터 직원, 컨설턴트 및 연구원) 및 수요자(학생 및 교수)의 의견을 받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양적 분석에서는 두 가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는 고용정보원의 대학일자리 센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세 가지 분석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는 전국 220개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동일한 세 가지 분석틀에 기초하여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부록: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표 참조). 또한 양적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운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가 생각하는 센터의 문제점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FGI 등을 이용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련의 평가과정을 통해 정량분석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점과 욕구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1. 정량적 성과분석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분석틀은 대학일자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기위해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정책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위상 강화, 대학일자리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살펴보았다.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에서는 재학생 정책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인지도), 재학생 정책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만족도)를 살펴보고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GOMS 데이터 에서는 대학청년 고용센터에서의 청년고용정책의 인지여부, 관심정도, 참여여부, 참여횟수, 그리고 졸업 이전 취업목표 설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셋째, 청년고용 및 경력개발서비스 효과에서는 진로 및 취·창업관련 관련상담 서비스 참여현황 및 참여자비율, 진로 및 취·창업관련 정규교과 이수현황 및 이수자 비율, 진로 및 취·창업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참여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넷째, 지역청년 거버넌스 및 서비스 효과에서는 타대생 등 지역청년층 대상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타대생 등 지역청년 서비스 수혜자수)에 대해 살펴보았고, 대학일자리센터 성과분석 방안 중 하나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간 비교를 위해 추가적으로 양적 조사를 2019년 8월부터 9월초까지 전국 대학 진로 및 취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 3-1-1〉 전국대학 진로, 취업 지원 실태조사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사례수	대일센터 있음		대일센터 없음	
			빈도	%	빈도	%
전체		220	83	37.7	137	62.3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20	24	20.0 (28.9)	96	80.0 (70.1)
	5천~만명	67	38	56.7 (45.8)	29	43.3 (21.2)
	만명 이상	33	21	63.6 (25.3)	12	36.4 (8.8)
대학종류	4년제	142	64	45.1 (77.1)	78	54.9 (56.9)
	2~3년제	78	19	24.4 (22.9)	59	75.6 (43.1)
대학유형	국공립	32	15	46.9 (18.1)	17	53.1 (12.4)
	사립	188	68	36.2 (81.9)	120	63.8 (87.6)

주: ()는 각 세부 변수별 비율임

조사의 목적은 대학일자리센터 도입 대학과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 간 진로,

취업 및 창업에 있어 성과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성과차이가 있다면 어디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진로·취업지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결과는 220개 대학이며, 이중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경우는 37.7%,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비율은 62.3%이었다.

2. 정성적 성과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접근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정성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정성적 성과분석 방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하였고, 연구 목적과 연구일정을 고려해 개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 진로, 취·창업 인프라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자(프로그램 참여자) 및 공급자(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 컨설턴트)의 인식 조사를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방문 경험이 있는 재학생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의 팀장급 직원 및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추가로 고용정보원 연구자를 인터뷰 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수요자의 경우 참여 프로그램 종류, 이용시 불편·불만 사항, 진로모색·취업준비 도움 정도, 개선사항, 기타 일반사항(소속대학, 전공, 학년, 성별 등) 등을 물었고 공급자의 경우 인프라, 업무분장,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개선사항, 기관간 연계, 대학일자리센터 대표 성과, 진로취업 효과성 전망, 기타 일반사항(연령, 근무연수, 고용형태 등) 등을 물었다.

제2절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

2016년 이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는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효과로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보면, 2016~2017년에는 컨소시엄 형태가 많았지만, 2018년에는 자체 운영 학교가 41.6%(13개소→42개소)로 증가하였다. 참여대학들이 자체적인 인력을 통해 진로 및 취·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컨소시엄 여부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자체
전체		32	9	48	13	59	42
사업규모	대형	32	9	48	13	44	17
	소형	—	—	—	—	18	2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6	1	8	3	13	14
	5천~만명	11	6	20	7	27	18
	만명 이상	15	2	20	3	19	10
대학종류	4년제	28	7	42	9	48	30
	2~3년제	4	2	6	4	11	12
대학유형	국공립	4	2	8	3	10	7
	사립	28	7	40	10	49	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본 연구에서 진행한 대학 진로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기타가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대일센터 있는 경우 56.6%, 대일센터 없는 경우 43.8%), 기타에는 학생취업처, 진로취업지원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대일센터가 있는 경우 학생처가 25.3%로 가장 많았고, 대일센터가 없는 경우는 21.9%로 나타났다.

〈표 3-2-2〉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단위: 개소,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산학처(단)		부속기관		기타	
		%	N	%	N	%	N	%	N	%	N	%	N
전체		1.2	1	25.3	21	—	—	8.4	7	8.4	7	56.6	47
대학규모	5천명 미만	4.2	1	25.0	6	—	—	4.2	1	4.2	1	62.5	15
	5천~만명	0.0	0	23.7	9	—	—	13.2	5	7.9	3	55.3	21
	만명 이상	0.0	0	28.6	6	—	—	4.8	1	14.3	3	52.4	11
대학종류	4년제	0.0	0	29.7	19	—	—	3.1	2	10.9	7	56.3	36
	2~3년제	5.3	1	10.5	2	—	—	26.3	5	0.0	0	57.9	11
대학유형	국공립	0.0	0	40.0	6	—	—	6.7	1	26.7	4	26.7	4
	사립	1.5	1	22.1	15	—	—	8.8	6	4.4	3	63.2	43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산학처(단)		부속기관		기타	
		%	N	%	N	%	N	%	N	%	N	%	N
전체		2.9	4	21.9	30	1.5	2	16.1	22	13.9	19	43.8	6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3.1	3	16.7	16	2.1	2	20.8	20	13.5	13	43.8	42
	5천~만명	3.4	1	31.0	9	0.0	0	6.9	2	17.2	5	41.4	12
	만명 이상	0.0	0	41.7	5	0.0	0	0.0	0	8.3	1	50.0	6
대학종류	4년제	3.8	3	26.9	21	2.6	2	6.4	5	16.7	13	43.6	34
	2~3년제	1.7	1	15.3	9	0.0	0	28.8	17	10.2	6	44.1	26
대학유형	국공립	11.8	2	23.5	4	0.0	0	5.9	1	17.6	3	41.2	7
	사립	1.7	2	21.7	26	1.7	2	17.5	21	13.3	16	44.2	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총괄담당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일센터가 있는 경우는 처장급 및 교무위원이 8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처장급 및 교무위원이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일센터가 없는 경우는 처장급 및 교무위원이 62.0%, 보직 교수 및 비교무위원 16.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규모로 살펴봐도 처장급 및 교무위원이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총괄담당자인 경우가 5천~1만 명 대학의 대일센터는 94.7%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의 대일센터는 89.1%로 대일센터가 없는 4년제에 비해 31.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대학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대일센터가 있는 사립대학 경우는 92.6%, 대일센터가 없는 사립대학은 64.2%로 나타났다. 이는 대일센터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총괄담당자가 학교 내 상위부서 주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총괄담당자

(단위: 개소,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처장급, 교무위원		부처장급, 교무위원		보직교수, 비교무위원		팀장급 교직원, 비교무위원		기타	
		%	N	%	N	%	N	%	N	%	N
전체		89.2	74	4.8	4	2.4	2	1.2	1	2.4	2
대학규모	5천명 미만	79.2	19	8.3	2	0.0	0	4.2	1	8.3	2
	5천~만명	94.7	36	2.6	1	2.6	1	0.0	0	0.0	0
	만명 이상	90.5	19	4.8	1	4.8	1	0.0	0	0.0	0
대학종류	4년제	89.1	57	4.7	3	3.1	2	1.6	1	1.6	1
	2~3년제	89.5	17	5.3	1	0.0	0	0.0	0	5.3	1
대학유형	국공립	73.3	11	13.3	2	6.7	1	0.0	0	6.7	1
	사립	92.6	63	2.9	2	1.5	1	1.5	1	1.5	1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처장급, 교무위원		부처장급, 교무위원		보직교수, 비교무위원		팀장급 교직원, 비교무위원		기타	
		%	N	%	N	%	N	%	N	%	N
전체		62.0	85	4.4	6	16.1	22	10.9	15	6.6	9
대학규모	5천명 미만	60.4	58	5.2	5	16.7	16	10.4	10	7.3	7
	5천~만명	62.1	18	3.4	1	13.8	4	17.2	5	3.4	1
	만명 이상	75.0	9	0.0	0	16.7	2	0.0	0	8.3	1
대학종류	4년제	57.7	45	1.3	1	19.2	15	12.8	10	9.0	7
	2~3년제	67.8	40	8.5	5	11.9	7	8.5	5	3.4	2
대학유형	국공립	47.1	8	5.9	1	35.3	6	5.9	1	5.9	1
	사립	64.2	77	4.2	5	13.3	16	11.7	14	6.7	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총괄부서는 대일센터 유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일센터가 있는 경우 공식협의체 88.0%, 부서간 협의체 85.5%, 별도 전담공간은 98.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협의체의 경우 대일센터가 있는 5천~1만명 대학에서 97.4%, 대일센터가 없는 5천~1만명 대학에서 65.5%로 나타났다.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이 진로취업지원 관련해서 공식적인 협의체나 부서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4〉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사항이 있는 비율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총괄부서 (기관)	공식 협의체	부서간 협의체	학내조직 및 활동항목	별도 전담공간	진로취업 발전계획	연간 계획
전체		95.2	88.0	85.5	97.6	98.8	95.2	96.4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7.5	87.5	75.0	100.0	95.8	91.7	100.0
	5천~만명	100.0	97.4	94.7	97.4	100.0	94.7	94.7
	만명 이상	95.2	71.4	81.0	95.2	100.0	100.0	95.2
대학종류	4년제	98.4	85.9	89.1	96.9	100.0	95.3	95.3
	2~3년제	84.2	94.7	73.7	100.0	94.7	94.7	100.0
대학유형	국공립	100.0	60.0	73.3	93.3	100.0	86.7	86.7
	사립	94.1	94.1	88.2	98.5	98.5	97.1	98.5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총괄부서 (기관)	공식 협의체	부서간 협의체	학내조직 및 활동항목	별도 전담공간	진로취업 발전계획	연간 계획
전체		92.7	73.7	64.2	92.7	90.5	92.7	94.9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3.8	75.0	60.4	93.8	87.5	93.8	94.8
	5천~만명	86.2	65.5	69.0	89.7	96.6	86.2	93.1
	만명 이상	100.0	83.3	83.3	91.7	100.0	100.0	100.0
대학종류	4년제	91.0	69.2	67.9	88.5	92.3	91.0	92.3
	2~3년제	94.9	79.7	59.3	98.3	88.1	94.9	98.3
대학유형	국공립	88.2	64.7	58.8	100.0	100.0	100.0	94.1
	사립	93.3	75.0	65.0	91.7	89.2	91.7	9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취업지원 관련 전담직원은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들 대부분에(94%)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은 85.4%로 나타났다.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에서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는 소속직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담교원, 협력업체로 나타났다. 대일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전담 직원이 배치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5〉 진로취업지원 관련 전담직원 유무 및 인원

(단위: %, 명)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있음 (%)	소속 직원	협력 업체	보직 교원	전담 교원	조교	기타	총인원
전체		94.0	8.1	5.2	1.8	7.7	2.4	3.9	29.1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1.7	5.0	4.2	1.5	4.6	3.2	2.0	20.5
	5천~만명	97.4	8.1	4.8	2.1	9.2	1.6	3.5	29.3
	만명 이상	90.5	11.5	7.1	1.7	3.5	3.4	5.0	32.2
대학종류	4년제	95.3	8.9	5.5	1.8	6.8	2.3	3.9	29.2
	2~3년제	89.5	5.1	3.6	1.8	13.2	2.9	—	26.6
대학유형	국공립	93.3	8.0	4.9	1.6	14.5	2.0	1.0	32.0
	사립	94.1	8.1	5.2	1.8	6.8	2.5	4.3	28.7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있음 (%)	소속 직원	협력 업체	보직 교원	전담 교원	조교	기타	총인원
전체		85.4	3.9	3.4	1.4	3.4	2.1	2.2	16.4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2.7	2.9	1.8	1.3	4.3	2.3	1.4	14.0
	5천~만명	89.7	4.7	5.7	1.5	2.8	1.4	3.0	19.1
	만명 이상	100.0	8.8	3.5	1.3	2.3	3.1	7.0	26.0
대학종류	4년제	87.2	4.6	4.1	1.4	2.3	1.9	2.6	16.9
	2~3년제	83.1	2.9	2.3	1.3	5.8	3.0	1.0	16.3
대학유형	국공립	94.1	4.8	1.5	1.3	5.3	5.0	1.0	18.9
	사립	84.2	3.8	3.6	1.4	3.2	1.8	2.4	1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취업지원 관련 자체 인재상 및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자체 인재상은 대일센터 유무에 큰 차이가 없으나 진로취업지원 로드맵은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이 92.8%로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83.9%)보다 8.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만 명 미만의 중소규모의 대학에서 대일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6〉 진로취업지원 관련 자체 인재상 및 진로취업지원 체계도(로드맵 등) 유무
(단위: 개소, %)

구분		자체 인재상				진로취업지원 체계도(로드맵 등)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	N	%	N	%	N	%	N
전체		91.6	76	90.5	124	92.8	77	83.9	11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00.0	24	90.6	87	91.7	22	82.3	79
	5천~만명	84.2	32	86.2	25	92.1	35	82.8	24
	만명 이상	95.2	20	100.0	12	95.2	20	100.0	12
대학종류	4년제	89.1	57	89.7	70	92.2	59	82.1	64
	2~3년제	100.0	19	91.5	54	94.7	18	86.4	51
대학유형	국공립	80.0	12	88.2	15	93.3	14	70.6	12
	사립	94.1	64	90.8	109	92.6	63	85.8	1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표 3-2-7〉 진로취업지원 체계도의 형식(복수응답 가능)

(단위: %)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도	계열·전공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도	기타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도	계열·전공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도	기타
전체		79.2	50.6	6.5	80.0	33.0	11.3
대학규모	5천명 미만	68.2	50.0	13.6	75.9	38.0	12.7
	5천~만명	85.7	51.4	2.9	91.7	20.8	4.2
	만명 이상	80.0	50.0	50.0	83.3	25.0	16.7
대학종류	4년제	83.1	45.8	5.1	78.1	28.1	17.2
	2~3년제	66.7	66.7	11.1	82.4	39.2	3.9
대학유형	국공립	78.6	42.9	14.3	83.3	33.3	8.3
	사립	79.4	52.4	4.8	79.6	33.0	1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취업지원 관련 전산시스템은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이 98.8%로 대부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는 소형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취업 관련 교수제도 88.0%로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보다 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3-2-8〉 진로취업지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진로취업 관련 교수제 유무

(단위: 개소, %)

구분		전산시스템 (종합경력개발, 학생이력 등)				진로취업 관련 교수제 (진로지도교수제 등)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	N	%	N	%	N	%	N
전체		98.8	82	85.4	117	88.0	73	81.0	111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5.8	23	81.3	78	87.5	21	81.3	78
	5천~만명	100.0	38	93.1	27	84.2	32	79.3	23
	만명 이상	100.0	21	100.0	12	95.2	20	83.3	10
대학종류	4년제	100.0	64	84.6	66	87.5	56	74.4	58
	2~3년제	94.7	18	86.4	51	89.5	17	89.8	53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5	88.2	15	86.7	13	70.6	12
	사립	98.5	67	85.0	102	88.2	60	82.5	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종합경력개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학생이 경력개발 사항 등 필요 정보 입력 및 활용(대일센터 유 89.0%, 대일센터 무 76.9%),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제반 교내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청(대일센터 유 78.0%, 대일센터 무 57.3%),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제반 교외 통합정보 제공 및 신청(대일센터 유 54.9%, 대일센터 무 39.3%), 교내 상담제 공자 간 상담연계기능(대일센터 유 72.0%, 대일센터 무 58.1%), 대학 내 재학생 진로 취업 관련 중요 정보 축적 및 분석하는 DB로의 활용(대일센터 유 74.4%, 대일센터 무 59.0%)이었다.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에서 다양한 기능을 종합경력개발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2-9〉 종합경력개발시스템의 주요 기능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학생이 경력개발 사항 등 필요 정보 입력·활 용	진로취업 담당부서 직원 등이 업무용 입력·활 용	지도교수 등이 학생경력 개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및 지도내역 입력·활 용	교내의 진로취업 담당부서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 제공·신 청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제한 교내 통합정보(비교과 통합 등)를 제공·신 청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제한 교외 통합정보(정책, 서비스 등)를 제공·신 청	학생에게 맞춤형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적 연계제공	지도교수 등에게 학생·학 과의 정보를 선별·분 석하여 맞춤형으 로 제공	교내 상담제공 자 간 상담 연계 기능	대학 내 재학생 진로취업 관련 중요 정보를 추적·분 석하는 DB로써 활용
전체		89.0	89.0	90.2	82.9	78.0	54.9	46.3	45.1	72.0	74.4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78.3	87.0	95.7	87.0	73.9	60.9	43.5	43.5	73.9	73.9
	5천~만명	97.4	92.1	94.7	86.8	84.2	55.3	55.3	52.6	71.1	73.7
	만명 이상	85.7	85.7	76.2	71.4	71.4	47.6	33.3	33.3	71.4	76.2
대학 종류	4년제	93.8	89.1	87.5	84.4	81.3	54.7	46.9	42.2	71.9	73.4
	2~3년제	72.2	88.9	100.0	77.8	66.7	55.6	44.4	55.6	72.2	77.8
대학 유형	국공립	80.0	80.0	86.7	66.7	66.7	20.0	20.0	20.0	80.0	53.3
	사립	91.0	91.0	91.0	86.6	80.6	62.7	52.2	50.7	70.1	79.1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학생이 경력개발 사항 등 필요 정보 입력·활 용	진로취업 담당부서 직원 등이 업무용 입력·활 용	지도교수 등이 학생경력 개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및 지도내역 입력·활 용	교내의 진로취업 담당부서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 제공·신 청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제한 교내 통합정보(비교과 통합 등)를 제공·신 청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제한 교외 통합정보(정책, 서비스 등)를 제공·신 청	학생에게 맞춤형 경력개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적 연계제공	지도교수 등에게 학생·학 과의 정보를 선별·분 석하여 맞춤형으 로 제공	교내 상담제공 자 간 상담 연계 기능	대학 내 재학생 진로취업 관련 중요 정보를 추적·분 석하는 DB로써 활용
전체		76.9	82.1	80.3	80.3	57.3	39.3	38.5	31.6	58.1	59.0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75.6	78.2	83.3	74.4	48.7	32.1	37.2	34.6	55.1	53.8
	5천~만명	88.9	88.9	81.5	96.3	77.8	55.6	44.4	25.9	66.7	74.1
	만명 이상	58.3	91.7	58.3	83.3	66.7	50.0	33.3	25.0	58.3	58.3
대학 종류	4년제	72.7	78.8	71.2	86.4	72.7	50.0	42.4	33.3	60.6	56.1
	2~3년제	82.4	86.3	92.2	72.5	37.3	25.5	33.3	29.4	54.9	62.7
대학 유형	국공립	86.7	86.7	80.0	80.0	53.3	46.7	53.3	26.7	53.3	60.0
	사립	75.5	81.4	80.4	80.4	57.8	38.2	36.3	32.4	58.8	5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교내 인트라넷과 교내 경력개발시스템의 연계에서 완전히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은 9.8%,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은 18.8%로 나타나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은 대부분 교내 인트라넷과 통합아이디로 연동하거나 완전 통합된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2-10〉 교내 인트라넷과 교내 경력개발시스템(학생이력관리시스템 등)의 연계 상황
(단위: %)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별도 분리 사이트로 운영하며 별도 로그인 체계	별도 분리 사이트로 운영하나 통합아이디(one-id)로 로그인 및 활용	교내 인트라넷· 포털 등에 통합 연계된 사이트로 운영	기타	별도 분리 사이트로 운영하며 별도 로그인 체계	별도 분리 사이트로 운영하나 통합아이디(one-id)로 로그인 및 활용	교내 인트라넷· 포털 등에 통합 연계된 사이트로 운영	기타
전체		9.8	50.0	37.8	2.4	18.8	48.7	29.9	2.6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8.7	56.5	34.8	0.0	20.5	41.0	35.9	2.6
	5천~만명	10.5	47.4	39.5	2.6	18.5	59.3	18.5	3.7
	만명 이상	9.5	47.6	38.1	4.8	8.3	75.0	16.7	0.0
대학 종류	4년제	9.4	53.1	34.4	3.1	15.2	51.5	28.8	4.5
	2~3년제	11.1	38.9	50.0	0.0	23.5	45.1	31.4	0.0
대학 유형	국공립	20.0	40.0	40.0	0.0	13.3	53.3	33.3	0.0
	사립	7.5	52.2	37.3	30.0	19.6	48.0	29.4	2.9

자료: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대학 자체 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의 연계에서도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은 별도 연계가 없는 경우는 22.0%로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보다 19.0%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대일센터는 워크넷으로 연동된 배너 설치와 같은 소극적인 연계 방법과 워크넷 오픈 API서비스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연계방법까지 유사한 비율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중, 5천~1만명 규모의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에서 적극적인 연계방법(워크넷 오픈 API 서비스 연계)의 활용이 50.0%로 대일센터가 없는 5천~1만명 대학(14.8%)보다 35.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진로취업지도교수제는 대일센터가 있는 대학은 대부분 학과별 교수 1~2인이 일종의 보직형태로 진로수업 지도교수로서 활동(54.8%)하거나 별도의 전임교수가 진로취업 지도 역할 전담교수로서 활동(17.8%)하는 경우가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11〉 대학 자체 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 등의 연계 상황

(단위: %)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별도 연계사항 없음	워크넷 배너 등 바로가기 형태로 연계되어 있음	워크넷 오픈API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학전산에서 워크넷 공개 정보 직접 활용	별도 연계사항 없음	워크넷 배너 등 바로가기 형태로 연계되어 있음	워크넷 오픈API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학전산에서 워크넷 공개 정보 직접 활용
전체	22.0	39.0	39.0	41.0	44.4	14.5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8.7	52.2	39.1	46.2	12.8
	5천~만명	26.3	23.7	50.0	29.6	14.8
	만명 이상	28.6	52.4	19.0	33.3	25.0
대학 종류	4년제	25.0	37.5	37.5	40.9	13.6
	2~3년제	11.1	44.4	44.4	41.2	15.7
대학 유형	국공립	20.0	53.3	26.7	40.0	13.3
	사립	22.4	35.8	41.8	41.2	14.7

자료: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표 3-2-12〉 진로취업지도교수제가 있는 경우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단위: %, 명)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학과 소속 전임교수 대부분이 해당 학과 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도교수 로서 활동	학과별 교수 1~2인이 일종의 보직형태 로 진로취업 지도교수 로서 활동	별도 전임교수 가 진로취업 지도 역할 전담교수 로서 활동	기타	별도 전담 교수 인원	학과 소속 전임교수 대부분이 해당 학과 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도교수 로서 활동	학과별 교수 1~2인이 일종의 보직형태 로 진로취업 지도교수 로서 활동	별도 전임교수 가 진로취업 지도 역할 전담교수 로서 활동	기타	별도 전담 교수 인원
전체	50.7	54.8	17.8	2.7	16.8	68.5	27.0	8.1	1.8	11.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57.1	47.6	23.8	0.0	15.0	78.2	23.1	6.4	0.0
	5천~만명	50.0	56.3	18.8	6.3	16.8	43.5	39.1	8.7	7.5
	만명 이상	45.0	60.0	10.0	0.0	21.0	50.0	30.0	20.0	0.0
대학 종류	4년제	44.6	55.4	16.1	3.6	18.4	55.2	34.5	10.3	3.4
	2~3년제	70.6	52.9	23.5	0.0	13.0	83.0	18.9	5.7	0.0
대학 유형	국공립	53.8	38.5	15.4	0.0	26.0	66.7	8.3	25.0	8.3
	사립	50.0	58.3	18.3	3.3	15.1	68.7	29.3	6.1	10.0

자료: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

220여개 대학들의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진로지도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진로지도 서비스 시행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에 의한 진로취업 상담비율의 경우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대학의 시행비율(98.8%)을 볼 때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인해 진로지도 서비스 시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 진로지도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진로취업 상담 (교수)	진로취업 상담 (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	진로취업 상담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및 다회기 상담 제공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	직업심리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 진단	전공별 진로/진 출분야 안내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개발 계획 수립 지원	진로취업 포인트 제도 시행
전체		86.7	98.8	83.1	81.9	92.8	85.5	96.4	71.1	78.3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91.7	95.8	79.2	79.2	91.7	83.3	100.0	66.7	79.2
	5천~만명	89.5	100.0	86.8	92.1	94.7	84.2	94.7	76.3	78.9
	만명 이상	76.2	100.0	81.0	66.7	90.5	90.5	95.2	66.7	76.2
대학 종류	4년제	87.5	100.0	85.9	82.8	93.8	87.5	95.3	75.0	81.3
	2~3년제	84.2	94.7	73.7	78.9	89.5	78.9	100.0	57.9	68.4
대학 유형	국공립	80.0	93.3	73.3	86.7	93.3	73.3	93.3	53.3	66.7
	사립	88.2	100.0	85.3	80.9	92.6	88.2	97.1	75.0	80.9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진로취업 상담 (교수)	진로취업 상담 (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	진로취업 상담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및 다회기 상담 제공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	직업심리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 진단	전공별 진로/진 출분야 안내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개발 계획 수립 지원	진로취업 포인트 제도 시행
전체		69.3	82.5	62.0	56.9	85.4	62.0	83.9	45.3	51.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74.0	78.1	55.2	52.1	84.4	55.2	79.2	36.5	49.0
	5천~만명	58.6	89.7	79.3	65.5	89.7	69.0	93.1	55.2	69.0
	만명 이상	58.3	100.0	75.0	75.0	83.3	100.0	100.0	91.7	33.3
대학 종류	4년제	59.0	87.2	61.5	57.7	84.6	65.4	89.7	46.2	52.6
	2~3년제	83.1	76.3	62.7	55.9	86.4	57.6	76.3	44.1	50.8
대학 유형	국공립	64.7	88.2	64.7	70.6	100.0	76.5	94.1	58.8	52.9
	사립	70.0	81.7	61.7	55.0	83.3	60.0	82.5	43.3	5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지도 서비스 연간 평균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시행비율과 마찬가지로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대학의 진로지도 서비스 참여인원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수에 의한 진로취업 상담 및 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에 의한 상담의 경우 3.6배,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제공의 경우 3.9배, 직업심리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 진단의 경우 약 3배, 진로취업 상담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및 다회기 상담제공의 경우 6배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2〉 진로지도 서비스 연간 평균 참여 인원

(단위: 명)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진로취업 상담 (교수)	진로취업 상담 (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	진로취업 상담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및 다회기 상담 제공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	직업심리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 진단	전공별 진로/진 출분야 안내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개발 계획 수립 지원	진로취업 포인트 제도 시행
전체		5713.1	2274.7	4719.7	2016.4	2004.9	2693.8	2188.5	1672.7	4025.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4732.2	1412.4	2623.6	820.1	1139.1	2273.6	2562.4	877.1	1496.1
	5천~만명	7025.8	2092.9	5164.7	2252.4	2169.2	3213.7	1844.1	1378.4	4558.5
	만명 이상	3887.9	3529.8	5585.1	3012.5	2614.1	2254.1	2361.8	3381.0	6614.2
대학 종류	4년제	5021.9	2620.5	5327.3	2516.1	2322.8	2798.6	2140.5	1958.9	4727.6
	2~3년제	7602.6	1257.4	2213.1	653.7	1124.4	2358.4	2316.5	568.9	1608.2
대학 유형	국공립	3995.4	2014.2	1693.7	935.3	617.8	3025.6	852.2	224.5	3352.0
	사립	6042.0	2331.5	5342.6	2239.0	2317.0	2627.4	2449.9	1865.8	4122.0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진로취업 상담 (교수)	진로취업 상담 (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	진로취업 상담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및 다회기 상담 제공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	직업심리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 진단	전공별 진로/진 출분야 안내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개발 계획 수립 지원	진로취업 포인트 제도 시행
전체		1568.0	646.3	744.0	506.0	641.5	1686.7	1145.6	1047.9	1767.1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631.6	246.0	570.2	216.5	390.9	991.2	1081.4	867.0	1526.5
	5천~만명	3923.9	1224.3	954.3	939.8	737.8	1177.9	1145.8	1310.6	2429.9
	만명 이상	4921.3	1739.0	1148.4	724.2	1933.0	5195.9	1498.3	1163.9	120.0
대학 종류	4년제	1298.9	720.9	793.9	622.9	622.8	2173.4	1088.3	1197.6	1578.1
	2~3년제	1888.8	499.9	657.2	287.9	671.7	804.7	1268.1	812.8	2087.1
대학 유형	국공립	754.5	342.5	240.6	215.0	127.9	295.0	451.5	142.4	6.5
	사립	1629.4	694.8	822.3	562.6	740.6	1454.0	1263.2	1266.5	187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여부(시행중인 비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비율이 대일센터가 없는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 취업동아리 지원, 취업정보 자료집 제공 서비스의 경우 큰 폭으로 시행비율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규모별로 살펴볼 때, 특히 5천명 미만 대학의 시행여부 및 비율이 다른 규모의 대학보다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3-3〉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1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직무능력강 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 화 프로그램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	취업동아리 지원	자격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활동 지원	기업정보 탐색·활용 강화 지원	예비직업인 소양 강화 지원	취업정보자 료집 제공
전체		87.7	98.8	92.8	85.5	74.4	68.8	72.8	90.4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87.0	100.0	91.7	83.3	75.0	56.5	69.6	91.7
	5천~만명	89.2	100.0	94.7	86.8	73.0	78.4	75.7	92.1
	만명 이상	85.7	95.2	90.5	85.7	76.2	65.0	71.4	85.7
대학 종류	4년제	87.3	98.4	92.2	84.4	73.0	69.4	72.6	90.6
	2~3년제	88.9	100.0	94.7	89.5	78.9	66.7	73.7	89.5
대학 유형	국공립	78.6	100.0	93.3	93.3	80.0	57.1	60.0	80.0
	사립	89.6	98.5	92.6	83.8	73.1	71.2	75.8	92.6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직무능력강 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 화 프로그램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	취업동아리 지원	자격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활동 지원	기업정보 탐색·활용 강화 지원	예비직업인 소양 강화 지원	취업정보자 료집 제공
전체		74.6	97.1	67.9	65.7	64.9	56.3	61.0	73.3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71.3	96.8	64.5	57.0	66.0	46.8	60.0	73.4
	5천~만명	82.1	100.0	69.0	86.2	75.9	75.9	69.0	69.0
	만명 이상	83.3	91.7	91.7	83.3	27.3	83.3	50.0	83.3
대학 종류	4년제	77.3	98.7	69.7	72.4	60.0	64.5	59.7	68.4
	2~3년제	71.2	94.9	65.5	56.9	71.2	45.8	62.7	79.7
대학 유형	국공립	88.2	100.0	87.5	68.8	76.5	82.4	64.7	88.2
	사립	72.6	96.6	65.3	65.3	63.2	52.5	60.5	7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인해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 서비스와 ICT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교외 청년고용서비스의 대학생 연계 등 직접적인 취업관련 서비스의 시행비율이 적게는 13%, 많게는 4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취지에 맞게 일자리와의 연계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3-4〉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 여부(시행중인 비율)-2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구직기술 강화 지원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ICT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교외 청년고용서 비스의 대학생 연계
전체		93.9	98.8	94.0	82.7	82.9	91.6	89.0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95.8	100.0	87.5	73.9	83.3	87.5	83.3
	5천~만명	94.6	97.4	97.4	86.5	83.8	94.7	94.6
	만명 이상	90.5	100.0	95.2	85.7	81.0	90.5	85.7
대학 종류	4년제	93.7	98.4	93.8	82.5	84.1	93.8	88.9
	2~3년제	94.7	100.0	94.7	83.3	78.9	84.2	89.5
대학 유형	국공립	93.3	93.3	93.3	86.7	73.3	86.7	93.3
	사립	94.0	100.0	94.1	81.8	85.1	92.6	88.1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구직기술 강화 지원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ICT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교외 청년고용서 비스의 대학생 연계
전체		88.9	85.2	88.9	50.0	53.4	50.8	58.6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88.3	81.9	87.2	44.1	44.7	41.9	53.3
	5천~만명	93.1	96.6	93.1	69.0	69.0	75.9	69.0
	만명 이상	83.3	83.3	91.7	50.0	90.0	60.0	75.0
대학 종류	4년제	88.2	86.8	86.8	54.1	56.8	55.4	61.8
	2~3년제	89.8	83.1	91.5	44.8	49.2	44.8	54.4
대학 유형	국공립	88.2	94.1	94.1	56.3	76.5	68.8	81.3
	사립	89.0	83.9	88.1	49.1	50.0	48.3	5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지원 서비스 시행여부(시행중인 비율)에 이어 연간 평균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시행비율과 동일하게 연간 평균 참여인원이 많음이 보여진다. 특히 취업동아리 지원서비스의 참여인원의 단위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적지만 참여인원수는 2.3배 가량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약 1.5배 이상 참여인원이 많은 것이 보여진다.

〈표 3-3-5〉 취업지원 서비스 연간 평균참여 인원-1

(단위: 명)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직무능력강 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 화 프로그램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	취업동아리 지원	자격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활동 지원	기업정보 탐색·활용 강화 지원	예비직업인 소양 강화 지원	취업정보자 료집 제공
전체		1055.3	2436.8	1421.8	287.5	407.8	2034.6	532.6	3660.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939.8	960.5	1447.3	187.9	331.2	1480.3	526.3	1371.8
	5천~만명	1272.4	2690.8	1423.9	187.9	322.5	2925.8	678.6	3799.8
	만명 이상	816.8	3881.5	1390.4	593.7	618.1	727.3	272.2	6372.1
대학 종류	4년제	995.9	2927.5	1382.7	288.4	370.7	2218.3	456.5	4096.2
	2~3년제	1208.8	1179.6	1535.9	284.8	504.1	1391.7	794.6	2267.4
대학 유형	국공립	1420.2	2772.4	908.7	132.8	367.2	427.8	1039.0	4789.5
	사립	1007.3	2373.9	1496.9	319.1	415.9	2314.0	460.2	3541.9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직무능력강 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 화 프로그램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	취업동아리 지원	자격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활동 지원	기업정보 탐색·활용 강화 지원	예비직업인 소양 강화 지원	취업정보자 료집 제공
전체		817.5	1567.3	831.8	125.8	255.3	1016.6	294.4	2217.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634.8	1176.3	571.1	114.8	215.7	659.9	258.0	1491.5
	5천~만명	1032.3	1493.1	948.1	143.3	373.8	1095.8	396.6	4552.9
	만명 이상	1349.0	4480.5	1605.0	140.5	100.0	1928.5	125.0	2052.2
대학 종류	4년제	446.9	1828.1	790.7	110.2	102.8	961.2	213.3	2055.5
	2~3년제	1558.8	1081.7	914.1	157.7	476.4	1160.9	409.8	2491.1
대학 유형	국공립	326.2	1193.7	1316.5	140.4	231.3	1699.4	41.8	2061.3
	사립	904.2	1624.3	704.3	123.5	259.3	851.8	318.5	225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취업지원 서비스 연간 평균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특히 교외 청년고용서비스의 대학생 연계 참여인원의 경우 약 8배 이상 참여인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글로벌역량 강화지원의 경우 약 2배, 해외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약 6배가량 참여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시행비율 뿐 아니라 실제 참여로 인한 수혜 인원 또한 높음을 보여준다.

〈표 3-3-6〉 취업지원 서비스 연간 평균참여 인원-2

(단위: 명)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구직기술 강화 지원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ICT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교외 청년고용서비스의 대학생 연계
전체		1134.9	946.9	999.1	241.0	312.0	378.5	1232.3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1204.5	997.6	423.7	218.5	125.5	191.3	784.2
	5천~만명	994.6	1008.5	762.6	219.1	400.3	497.9	1259.4
	만명 이상	1308.4	772.5	2171.8	299.8	379.8	399.2	1765.8
대학 종류	4년제	1068.9	792.2	1245.9	218.7	356.8	433.0	1440.3
	2~3년제	1318.8	1343.4	296.9	307.8	164.0	219.0	784.2
대학 유형	국공립	657.9	739.1	1176.1	147.0	170.5	252.7	1363.8
	사립	1219.8	980.8	965.4	258.7	326.5	398.5	1209.7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구직기술 강화 지원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ICT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교외 청년고용서비스의 대학생 연계
전체		786.6	498.8	744.5	131.1	148.0	62.1	139.1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524.9	533.6	362.5	155.3	197.7	56.3	139.0
	5천~만명	1276.5	398.5	602.9	80.9	120.1	70.6	173.7
	만명 이상	1279.8	488.8	3843.8	10.0	47.2	60.8	53.3
대학 종류	4년제	957.0	343.3	863.0	55.1	70.1	68.5	100.0
	2~3년제	537.1	770.9	537.1	251.5	292.6	47.3	195.3
대학 유형	국공립	361.4	499.1	2447.7	48.3	72.9	46.2	100.0
	사립	842.4	498.7	440.4	143.4	166.7	64.9	14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취업 독려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대학의 경우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유도 방법,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탑 공간 조성, 종합자료집 제공의 비율이 크게 높으며, 전공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등 학과와 전담부서간의 협업강화, 학생의 인식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의 비율도 소폭이지만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인해 높아졌음이 보여진다.

〈표 3-3-7〉 진로·취업 독려를 위한 방법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의무화 참여 제도 시행 (졸업인증제 필수교과목 중 필수과제 등)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탑 공간 조성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 자료집 제공	전공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등 학과와 전담부서간의 협업강화	학생의 인식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전체		44.6	77.1	72.3	68.7	89.2	94.0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45.8	83.3	70.8	66.7	91.7	87.5
	5천~만명	55.3	73.7	65.8	65.8	89.5	100.0
	만명 이상	23.8	76.2	85.7	76.2	85.7	90.5
대학 종류	4년제	46.9	76.6	71.9	70.3	89.1	96.9
	2~3년제	36.8	78.9	73.7	63.2	89.5	84.2
대학 유형	국공립	26.7	73.3	60.0	46.7	86.7	93.3
	사립	48.5	77.9	75.0	73.5	89.7	94.1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의무화 참여 제도 시행 (졸업인증제 필수교과목 중 필수과제 등)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탑 공간 조성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 자료집 제공	전공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등 학과와 전담부서간의 협업강화	학생의 인식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전체		32.8	54.7	43.8	40.1	64.2	81.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35.4	55.2	42.7	34.4	65.6	77.1
	5천~만명	31.0	62.1	37.9	44.8	65.5	89.7
	만명 이상	16.7	33.3	66.7	75.0	50.0	100.0
대학 종류	4년제	35.9	57.7	38.5	43.6	61.5	83.3
	2~3년제	28.8	50.8	50.8	35.6	67.8	79.7
대학 유형	국공립	47.1	47.1	58.8	52.9	52.9	88.2
	사립	30.8	55.8	41.7	38.3	65.8	8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자료를 통해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청년고용진달체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진로 및 취·창업과 관련한 재학생들의 인지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위 기준 40.2점에서 2018년에는 43.9점과 47.0점으로 증가했다³⁾. 특징별로 살펴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중 소형보다는 대형사업 대학이, 대학규모로는 재학생수가 많은 곳보다는 5000명 이하의 작은 대학에서 전체적인 인지도가 높았다. 대학종류별로는 2~3년제에 비해 4년제에 재학중인 재학생이, 국립대 보다는 사립대에 재학중인 학생의 사업 인지도가 높았다.

재학생 교내 서비스 인지도는 전체 사업 인지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50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내 서비스 인지도에서는 대학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았으며, 2~3년제에 비해 4년제 대학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대의 인지도가 높았다.

〈표 3-3-8〉 재학생 전체 인지도

(단위 : 100점 만점)

구분		2016		2017		2018 ¹⁾		2018 ²⁾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40.2	40.2	41.7	40.4	45.1	43.9	48.1	47.0
사업규모	대형	40.2	40.2	41.7	40.4	48.1	470.0	48.1	47.0
	소형	—	—	—	—	40.5	39.5	—	—
대학규모	5천명 미만	38.8	36.7	38.6	35.8	44.6	43.9	53.9	45.8
	5천~만명	41.4	41.9	43.3	41.8	44.6	43.4	46.4	47.9
	만명 이상	39.6	40.6	41.3	42.2	46.2	44.3	47.4	46.2
대학종류	4년제	40.6	40.6	42.1	41.8	45.4	44.3	47.5	47.9
	2~3년제	38.3	36.3	39.5	37.2	43.9	39.8	51.5	45.0
대학유형	국공립	38.0	37.4	40.0	38.7	45.9	43.4	48.4	44.2
	사립	40.6	40.2	42.1	41.4	44.9	44.0	48.1	47.2

주: 1) 101개 대학 전체를 2017년과 동일 조사항목 기준으로 산출

2) 대형 61개 대학 대상으로 2017년과 동일 조사항목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3)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조사에서도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언론매체 34.4%, 고용센터 26.6%의 순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a).

〈표 3-3-9〉 재학생 교내 서비스 인지도

(단위 : 100점 만점)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7.2	56.8	49.7	49.4	52.1	49.9
사업규모	대형	57.2	56.8	49.7	49.4	55.8	54.8
	소형	—	—	—	—	46.6	47.4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7.2	54.9	46.1	45.3	52.0	48.8
	5천~만명	580.0	57.3	51.8	49.7	51.3	49.1
	만명 이상	56.4	57.7	48.8	49.6	53.5	52.1
대학종류	4년제	57.1	57.3	50.1	49.6	52.3	50.3
	2~3년제	57.8	55.7	47.5	46.8	51.6	48.7
대학유형	국공립	56.3	56.3	47.1	47.0	52.4	48.6
	사립	57.3	56.8	50.2	49.7	52.1	50.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시차가 존재하고 대학일자리센터 참여대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초기 학생 및 청년들의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대비 2016년에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2016년 23.6%로 2015년 22.9%에 비해 0.7%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관심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에서도 2015년 관심없다고 표시한 비율이 36.7%에서 2016년에는 28.3%로 10.4%포인트가 줄어들어 학생 및 청년층의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조사에서도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학생 및 청년들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3-3-10〉 GOMS: 대학일자리센터 인지 및 관심정도

(단위 : %)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인지여부		대학일자리센터 관심정도				
	있음	없음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음	보통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2015	22.9	77.1	10.3	26.4	41.7	18.7	2.9
2016	23.6	76.4	7.5	20.8	49.2	19.7	2.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원자료

그렇다면 초기이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일자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2015년에는 3.9%에서 2016년 8.2%로 역시 4.3%포인트인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실제 참여횟수도 단순 참여로 볼 수 있는 1회가 82.7%에서 74.9%로 줄어들었으며, 3회 참여자가 3.7%→7.1%, 4회 이상이 6.2%→8.0%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OMS를 활용한 자료가 비록 대학일자리센터가 활성화되기 이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사업 초기부터 학생들 속에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인지와 참여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얼마나 더 인지하고 참여도가 높았는지는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3-11〉 GOMS: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및 횟수

(단위 : %)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참여경험		대학일자리센터 참여횟수			
	있음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2015	3.9	96.1	82.7	7.4	3.7	6.2
2016	8.2	91.8	74.9	10.0	7.1	8.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원자료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는 인지도에 비해 높았으며 점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위 기준 79.8점에서 2018년에는 82.7점으로 증가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중 소형보다는 대형사업 대학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 규모로는 인지도와 유사하게 재학생수가 많은 곳보다는 5000명 이하의 작은 대학에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대학규모가 큰 경우에 비해 작은 대학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종류별로는 2~3년제에 비해 4년제가, 국립대 보다는 사립대에 재학중인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분석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재학생 교내 서비스 만족도는 큰 변화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80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교내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대학규모가 역시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4년제에 비해 2~3년제 대학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대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3-3-12〉 재학생 전체 만족도

(단위 : 100점 만점)

구분		2016		2017		2018 ¹⁾		2018 ²⁾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80.3	79.8	83.6	84.4	82.2	82.7	84.1	83.7
사업규모	대형	80.3	79.8	83.6	84.4	84.1	83.7	84.1	83.7
	소형	—	—	—	—	79.4	79.6	—	—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1.8	81.9	84.5	85.6	81.5	83.8	85.5	85.2
	5천~만명	80.3	79.2	84.1	84.4	82.7	82.7	83.9	82.7
	만명 이상	79.5	79.8	82.6	83.0	82.1	82.2	83.6	82.7
대학종류	4년제	79.7	79.2	83.6	84.3	82.2	82.7	84.1	83.7
	2~3년제	83.7	83.1	83.4	87.0	82.1	81.2	83.8	83.0
대학유형	국공립	80.4	80.6	83.9	85.5	81.1	82.3	82.3	81.4
	사립	80.2	79.8	83.5	84.2	82.4	82.7	84.5	84.5

주: 1) 101개 대학 전체를 2017년과 동일 조사항목 기준으로 산출

2) 대형 61개 대학 대상으로 2017년과 동일 조사항목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제4절 청년고용, 경력개발서비스 및 지역거버넌스 효과

1. 청년고용, 경력개발 서비스

가. 상담지원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체 상담건수를 보면 2016년 대비 2018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동 자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대학들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전체적인 결과표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3년 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대학들의 성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표 3-4-1〉 상담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8,885.2	17,416.0	19,705.8	17,934.0	15488.4	13295.0
사업규모	대형	18,885.2	17,416.0	19,705.8	17,934.0	18871.0	18085.0
	소형	-	-	-	-	10330.0	8128.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313.4	4,923.0	10,256.7	7,764.0	7383.0	4785.0
	5천~만명	16,958.5	15,637.0	20,184.9	20,606.0	15838.7	13924.0
	만명 이상	25,165.1	23,851.0	23,662.4	20,990.0	22491.2	19875.0
대학종류	4년제	20,534.9	19,606.0	20,824.8	20,441.0	16322.3	13560.5
	2~3년제	9,262.2	6,453.0	13,998.9	15,502.5	12660.4	10439.0
대학유형	국공립	19,329.5	17,566.5	20,147.9	16,302.0	17026.1	15566.0
	사립	18,809.1	17,416.0	19,608.5	18,115.0	15177.2	1306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1~3차년도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상담 건수가 중위기준으로 소폭이지만 2016년 17,416건에서 2018년에는 18,202건으로 증가했다. 대학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대

학규모가 큰 대학에서 상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학생규모로 인한 차이로 보인다. 대학종류별로는 2~3년제 대학에 비해 4년제 대학이, 국공립 대학보다는 사립대학에서의 상담건수가 많았다. 매년 평균적으로 만명 이상 이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상담 건수보다는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심층상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평가변수에서 2회 이상 상담 횟수를 평가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심층상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4-2〉 상담건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건수)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8,885.2	17,416.0	19,463.2	18,296.0	19,397.0	18,202.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313.4	4,923.0	9,721.6	7,030.0	10,648.9	6,079.0
	5천~만명	16,958.5	15,637.0	21,848.1	21,592.0	19,856.1	18,733.0
	만명 이상	25,165.1	23,851.0	21,089.5	17,893.0	22,540.5	20,463.0
대학종류	4년제	20,534.9	19,606.0	20,722.3	20,606.0	20,326.9	18,202.0
	2~3년제	9,262.2	6,453.0	12,118.5	12,261.0	13,973.7	13,785.5
대학유형	국공립	19,329.5	17,566.5	17,505.0	15,387.5	19,352.8	17,911.5
	사립	18,809.1	17,416.0	19,798.9	19,430.0	19,404.8	18,20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 전체적으로는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학일자리센터에 새롭게 들어온 학교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위기준으로 2016년 178.5%에서 2018년 177.8%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형에서 상담비율이 높았으며, 대학 규모별로는 5천~만명 사이의 대학이 4년제 보다는 2~3년제 대학이, 국립보다는 사립대학의 재학생 상담 비율이 높았다.

〈표 3-4-3〉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81.5	178.5	228.5	197.7	207.9	177.8
사업규모	대형	181.5	178.5	228.5	197.7	222.9	191.2
	소형	—	—	—	—	184.5	146.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85.3	152.0	272.6	182.2	218.6	163.6
	5천~만명	194.5	197.8	260.2	287.3	230.6	220.1
	만명 이상	167.0	178.5	170.3	159.7	163.2	154.9
대학종류	4년제	180.2	178.5	211.7	182.2	180.6	155.2
	2~3년제	188.8	145.2	314.3	278.2	305.0	253.8
대학유형	국공립	185.0	195.7	229.0	176.2	199.4	155.4
	사립	180.9	176.3	228.4	210.7	209.7	178.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1~3년차 참여대학을 기준으로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동 지표를 통해 보면 지속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한 대학을 기준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교육 등이 목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비율을 대학 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중간정도인 5천에서 만명 이하 대학의 재학생 상담비율이 높았으며, 4년제 대학보다는 2~3년제 대학이, 국공립에 비해 사립 대학의 상담비율이 높았다. 동 지표가 가지는 한계는 양적인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심층상담, 집중상담 등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4-4〉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81.5	178.5	221.3	191.8	230.1	194.1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85.3	152.0	270.8	181.2	296.0	206.9
	5천~만명	194.5	197.8	263.1	301.3	264.7	264.8
	만명 이상	167.0	178.5	159.0	148.1	168.3	171.2
대학종류	4년제	180.2	178.5	205.6	180.6	208.3	186.3
	2~3년제	188.8	145.2	312.6	272.7	357.2	285.1
대학유형	국공립	185.0	195.7	210.6	160.4	219.8	188.8
	사립	180.9	176.3	223.1	197.7	231.8	206.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나. 진로취업 교과목 지원

대학진로 및 취업실태조사를 통해 각 대학들의 진로 및 취업교과목 제공현황을 보면, 교양필수 선정에 있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53.6%, 없는 곳은 39.6%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양선택,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에서도 대학일자리 센터가 있는 대학이 좀 더 많이 심화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5천에서 만명인 대학이 교양필수 및 전공선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역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는 곳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종류별로는 4년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에서 2~3년제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진로 취업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5〉 진로취업 교과목 제공현황(있음 비율)

(단위: %)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체		58.8	85.2	32.0	40.8	40.9	68.1	19.1	28.2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54.5	87.0	42.9	50.0	43.0	64.2	19.6	32.6
	5천~만명	65.8	78.9	37.1	34.3	35.7	72.4	14.3	17.9
	만명 이상	50.0	95.0	10.5	42.1	36.4	90.9	27.3	18.2
대학 종류	4년제	59.7	87.3	29.3	35.6	38.7	72.4	14.9	21.6
	2~3년제	55.6	77.8	41.2	58.8	43.9	62.7	24.6	36.8
대학 유형	국공립	42.9	86.7	14.3	40.0	31.3	82.4	6.3	23.5
	사립	62.1	84.8	36.1	41.0	42.2	66.1	20.9	2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진로 취업 교과목에 대한 연간 수강인원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해보면, 센터가 있는 곳이 월등히 많은 수강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필수를 제외하고는 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곳에 비해 두배 이상 혹은 두 배 가까이 높은 수강인

원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규모별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5천~만명 사이의 대학이 전공에 집중을 만명 이상은 교양분야로 진로취업 교과목을 집중배치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종류별로는 4년제는 교양필수에 2~3년제는 교양선택과 전공 필수 및 선택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대학에 비해서는 사립대학이 좀 더 진로 취업 교과목의 참여 인원이 많았다.

〈표 3-4-6〉 진로취업 교과목 연간 수강인원(평균)

(단위: 명)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체		3062.8	1505.0	2978.0	1810.8	1361.9	859.4	1425.8	478.7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1290.1	892.5	2259.8	1542.1	1130.6	603.8	1221.1	393.0
	5천~만명	3425.8	1539.8	3606.9	1835.1	2230.4	1122.4	1915.8	1766.0
	만명 이상	4037.0	2062.3	2706.5	2121.6	1475.0	1510.3	1796.0	91.5
대학 종류	4년제	3380.4	1473.0	2548.0	1550.7	1314.7	771.2	1581.6	199.3
	2~3년제	1898.2	1635.8	3981.3	2396.1	1423.9	1015.5	1295.9	698.3
대학 유형	국공립	1643.4	1244.9	2038.5	1919.2	1895.3	1084.5	—	316.0
	사립	3254.6	1562.2	3082.4	1778.3	1322.9	823.1	1425.8	500.9

자료: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세부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자료를 토대로 진로 및 취업 교과목과 비교과목에 대한 이수여부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진로교과목 이수자 규모도 전체적으로는 시간에 따른 직접 비교가 쉽지가 않다. 전체적으로 중위값을 기준으로 이수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일자리센터 참여대학의 규모가 매년 변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1~3년차 사업 참여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중위기준으로 2016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017년에 비해 2018년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대학규모별로는 재학생수가 많은 만명 이상 대학의 이수자 수가 많았으며, 2~3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이, 국공립 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진로교과목 이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는 물론 취·창업에 대한 교과목 참여인원도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보면, 과거와 다르게 최근 대학들은 대강당에 학생들을 한 번에 모아서 교육하기 보다는 전공,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형태의 교과목이 만들어지고 단순히 참여인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표 3-4-7〉 진로교과목 이수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830.2	3,921.0	4,628.9	3,069.0	3,935.7	2,687.0
사업규모	대형	5,830.2	3,921.0	4,628.9	3,069.0	4,797.6	3,419.0
	소형	—	—	—	—	2,621.2	1,87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064.0	1,878.0	1,882.6	1,319.0	1,749.7	1,186.0
	5천~만명	6,013.8	4,269.0	4,400.2	2,576.0	4,029.5	2,947.0
	만명 이상	7,197.4	4,287.0	6,210.9	5,032.0	5,825.3	4,646.0
대학종류	4년제	6,513.9	4,269.0	5,154.4	3,308.0	4,461.3	3,400.0
	2~3년제	1,842.3	1,704.5	1,949.1	1,656.0	2,153.0	1,594.0
대학유형	국공립	4,808.0	1,709.5	3,215.8	2,547.0	3,170.4	2,573.0
	사립	6,005.5	4,047.0	4,939.8	3,148.0	4,090.6	2,720.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8〉 진로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830.2	3,921.0	4,949.0	3,227.0	4,929.8	3,528.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064.0	1,878.0	1,880.0	1,319.0	1,651.0	1,980.0
	5천~만명	6,013.8	4,269.0	5,077.3	2,502.0	5,120.9	3,419.0
	만명 이상	7,197.4	4,287.0	6,084.5	5,032.0	6,088.8	4,351.0
대학종류	4년제	6,513.9	4,269.0	5,495.4	3,569.0	5,493.5	4,243.0
	2~3년제	1,842.3	1,704.5	1,761.7	1,301.5	1,641.3	1,641.0
대학유형	국공립	4,808.0	1,709.5	3,998.7	2,865.5	3,683.2	2,360.5
	사립	6,005.5	4,047.0	5,111.9	3,227.0	5,143.5	3,74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1~3차년도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취업교과목 이수자 규모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다. 2016년대비 2017년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에는 감

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위 취업교과목 이수자 규모가 줄어든 원인을 보면, 주로 대학 규모(만명 이상)가 큰 경우 취업교과목 이수자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4년제 대학에 비해서는 2~3년제 대학의 취업 교과목 이수자 규모가 많았으며,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취업교과목 이수자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3-4-9〉 취업교과목 이수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610.2	1,103.5	2,530.9	1,706.0	1,987.3	1,215.0
사업규모	대형	1,610.2	1,103.5	2,530.9	1,706.0	2,185.7	1,333.0
	소형	-	-	-	-	1,684.8	1,034.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434.7	874.5	2,224.8	952.0	1,632.3	825.0
	5천~만명	1,541.3	993.5	2,555.6	2,091.0	2,184.6	1,499.0
	만명 이상	1,744.8	1,410.0	2,648.4	1,706.0	2,011.7	1,333.0
대학종류	4년제	1,565.6	1,054.0	2,478.1	1,706.0	1,824.7	1,180.0
	2~3년제	1,989.3	1,431.0	2,800.6	1,965.0	2,538.8	1,889.0
대학유형	국공립	900.8	727.5	3,088.3	1,726.0	2,384.5	834.0
	사립	1,743.2	1,189.0	2,408.3	1,703.0	1,906.9	1,32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10〉 취업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610.2	1,103.5	2,326.8	1,700.0	2,387.5	1,33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34.7	874.5	2,519.1	1,700.0	2,704.9	3,996.0
	5천~만명	1,541.3	993.5	2,320.7	1,135.0	2,869.6	1,145.0
	만명 이상	1,744.9	1,410.0	2,253.8	1,706.0	1,774.8	1,333.0
대학종류	4년제	1,565.6	1,054.0	2,183.3	1,402.0	2,085.1	1,201.0
	2~3년제	1,989.3	1,431.0	3,164.2	3,042.0	4,151.3	4,334.0
대학유형	국공립	900.8	727.5	3,632.0	1,994.0	3,079.2	1,004.0
	사립	1,743.2	1,189.5	2,103.1	1,700.0	2,268.9	1,563.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창업교과목 이수자 규모는 1~3차년도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위기준 992.5명에서 2018년에는 1,384.5명으로 크게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학 특성별로는 재학생수가 많을수록 창업교과목 이수자가 많았으며, 국립보다는 사립대학의 이수 규모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국공립이 많았지만 2017년 이후에서는 사립대학의 이수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4-11〉 창업교과목 이수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101.6	992.5	1,419.6	1,150.0	1,377.2	1,062.5
사업규모	대형	1,101.6	992.5	1,419.6	1,150.0	1,484.0	1,098.5
	소형	—	—	—	—	1,217.2	923.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479.4	229.0	661.5	444.0	846.2	654.0
	5천~만명	954.1	936.0	1,169.8	1,096.0	1,190.2	1,045.0
	만명 이상	1,530.6	1,466.0	2,075.5	1,690.0	2,143.7	1,877.0
대학종류	4년제	1,165.9	1,015.5	1,436.1	1,096.0	1,388.6	986.0
	2~3년제	737.7	809.0	1,335.6	1,210.0	1,339.4	1,474.0
대학유형	국공립	995.2	1,095.5	1,049.1	918.0	1,018.7	512.0
	사립	1,120.4	992.5	1,501.1	1,158.0	1,450.7	1,178.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12〉 창업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106.6	992.5	1,420.1	1,166.0	1,693.4	1,384.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479.4	229.0	781.6	492.0	887.8	652.5
	5천~만명	954.1	936.0	1,141.6	1,096.0	1,230.4	1,042.0
	만명 이상	1,530.6	1,466.0	1,961.5	1,493.0	2,440.7	2,122.0
대학종류	4년제	1,165.9	1,015.5	1,484.4	1,170.0	1,776.2	1,384.5
	2~3년제	737.7	809.0	1,044.7	940.5	1,224.3	1,077.0
대학유형	국공립	995.2	1,095.5	1,022.8	1,052.5	1,628.3	749.0
	사립	1,120.4	992.5	1,488.2	1,166.0	1,704.9	1,418.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전체 교과목 이수자 규모는 2018년에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추가된 소형사업에서의 규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 전체 교과목 이수자 규모는 2016년 6,054명에서 2018년에는 8,308명으로 2천명 이상이 증가했다. 전체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대학 특성상 학교가 크고, 재학생 규모가 많은 경우에 이수자수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과 사립대학교 기준에서는 국립보다는 사립대학이 전체교과목 이수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13〉 전체교과목 이수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8,397.3	6,054.0	8,579.5	7,168.0	7,286.6	6,751.0
사업규모	대형	8,397.3	6,054.0	8,579.5	7,168.0	8,442.9	7,530.0
	소형	—	—	—	—	5,523.2	4,646.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3,773.1	3,814.0	4,768.9	3,130.0	4,196.8	2,764.0
	5천~만명	8,418.5	6,383.0	8,125.5	5,833.0	7,404.3	5,920.0
	만명 이상	10,280.2	7,662.0	10,934.8	9,021.0	9,980.7	9,587.0
대학종류	4년제	9,167.2	7,453.0	9,068.5	7,496.0	7,656.8	6,969.5
	2~3년제	3,906.2	3,891.0	6,085.3	5,976.5	6,031.2	6,702.0
대학유형	국공립	6,704.0	4,559.5	7,353.2	6,555.0	6,573.6	4,723.0
	사립	8,687.6	7,453.0	8,849.2	7,722.0	7,430.9	6,953.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14〉 전체교과목 이수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8,397.3	6,054.0	8,695.9	7,168.0	8,969.4	8,308.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3,773.1	3,814.0	5,180.7	4,926.0	5,116.9	6,702.0
	5천~만명	8,418.5	6,383.0	8,539.6	5,243.0	9,220.9	5,920.0
	만명 이상	10,280.2	7,662.0	10,299.7	8,828.0	1,304.2	9,587.0
대학종류	4년제	9,167.2	7,453.0	9,163.1	7,496.0	9,304.1	8,308.0
	2~3년제	3,906.2	3,891.0	5,970.5	5,806.5	7,071.0	7,594.5
대학유형	국공립	6,704.0	4,559.5	8,653.5	6,861.5	8,390.7	6,809.5
	사립	8,687.6	7,453.0	8,703.2	7,496.0	9,068.6	8,59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재학생 대비 전체적인 진로교과목 이수비율을 보면, 지난 3년 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과 대비하여서는 소폭 감소했다. 시계열적인 성과 분석을 위해 3년 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재학생 대비 교과목 이수비율은 중위 기준으로 2016년 67.4%에서 2018년 77.7%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도입된 이후 진로취·창업 교과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규모별로 보면 재학생 비율이 낮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3년제 대학의 적극적 성과에 기인한다.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교과목 이수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15〉 재학생 대비 교과목 이수비율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85.8	67.4	103.8	78.8	103.3	75.9
사업규모	대형	85.8	67.4	103.8	78.8	104.6	77.7
	소형	—	—	—	—	101.4	71.4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4.8	70.7	128.5	106.5	127.1	103.5
	5천~만명	98.6	850.0	108.7	930.0	107.8	81.7
	만명 이상	69.3	52.6	86.3	71.3	74.2	71.8
대학종류	4년제	84.0	58.5	96.3	72.1	87.5	70.4
	2~3년제	96.0	69.0	142.0	117.9	156.9	157.9
대학유형	국공립	72.0	48.6	82.4	57.8	73.4	60.1
	사립	88.2	70.7	108.5	81.0	109.4	8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16〉 재학생 대비 교과목 이수비율(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85.8	67.4	102.6	76.8	110.7	77.7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4.8	70.7	146.5	129.4	150.7	181.1
	5천~만명	98.6	85.0	109.7	68.3	125.8	116.4
	만명 이상	69.3	52.6	77.5	72.7	79.1	74.5
대학종류	4년제	84.0	58.5	92.1	71.7	97.3	74.7
	2~3년제	96.0	69.0	164.1	161.2	189.1	187.3
대학유형	국공립	72.0	48.6	100.2	64.9	97.0	67.9
	사립	88.2	70.7	103.1	76.9	113.1	80.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지금까지 정규교과목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면 이하에서는 비교과 참여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 비교과 참여자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6년 대비 2018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롭게 센터를 시작한 대학들이 충분히 진로, 취창업을 위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원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3차년도 참여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대비 2018년 중위기준 3,384명에서 3,846명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연차가 증가할수록 관련 교과목 개설, 운영 등에 있어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참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적을수록, 4년제에 비해 2~3년제 대학이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진로비교과 참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 비교과목의 경우 정규 교과목이 아니며, 전문성, 특성화 된 과목 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취업 등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소규모 대학 재학생 등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4년제 대학보다 2~3년제 대학의 재학생 참여도가 높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4-17〉 진로 비교과 참여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4,279.8	3,384.0	3,917.4	3,308.0	3,437.1	2,721.0
사업규모	대형	4,279.8	3,384.0	3,917.4	3,308.0	4,422.4	3,846.0
	소형	—	—	—	—	1,934.5	1,054.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3,918.7	3,494.0	2,687.6	2,875.0	2,065.5	1,498.0
	5천~만명	4,050.6	2,805.0	3,864.5	2,920.0	3,220.1	2,941.0
	만명 이상	4,657.6	4,339.0	4,567.7	3,847.0	5,050.7	3,738.0
대학종류	4년제	4,432.1	3,384.0	4,127.5	3,623.0	3,703.9	3,048.0
	2~3년제	3,390.8	3,066.0	2,845.7	2,897.5	2,5320.0	1,534.0
대학유형	국공립	1,976.0	1,702.0	4,208.3	2,845.0	2,969.8	1,792.0
	사립	4,674.7	3,494.0	3,853.4	3,465.5	3,531.6	2,997.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18〉 진로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4,279.8	3,384.0	4,053.9	3,623.0	4,239.3	3,846.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3,918.7	3,494.0	2,648.6	2,875.0	4,257.2	4,250.0
	5천~만명	4,050.6	2,805.0	4,431.2	4,400.0	3,746.4	3,846.0
	만명 이상	4,657.6	4,339.0	4,255.4	3,623.0	4,724.9	3,738.0
대학종류	4년제	4,432.1	3,384.0	4,238.3	3,623.0	4,205.5	3,738.0
	2~3년제	3,390.8	3,066.0	2,978.3	3,333.5	4,436.8	4,806.0
대학유형	국공립	1,9760.0	1,702.0	3,713.3	2,447.5	1,670.3	1,696.5
	사립	4,674.7	3,494.0	4,112.3	3,792.0	4,679.7	4,25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취업비교과목 참여자 규모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진로비교과목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3차년도 참여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대학특성별로도 대학규모, 대학종류, 국공립 여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취업 비교과 참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취업 교과목 운영에 있어 대규모 보다는 집중화, 전문화, 소그룹화를 추구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3-4-19〉 취업 비교과 참여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9,304.5	7,980.0	8,464.9	8,069.0	6,386.3	5,551.0
사업규모	대형	9,304.5	7,980.0	8,464.9	8,069.0	7,689.8	6,821.0
	소형	-	-	-	-	4,398.5	2,900.3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262.4	4,769.0	5,778.2	3,985.0	3,433.7	2,667.0
	5천~만명	7,270.3	7,205.0	7,433.2	6,694.0	6,046.4	4,745.0
	만명 이상	13,003.1	11,520.0	10,960.8	10,691.0	9,662.6	8,863.0
대학종류	4년제	9,975.9	9,569.0	8,763.7	8,855.0	6,681.6	5,980.5
	2~3년제	5,388.2	5,385.0	6,940.7	6,175.5	5,384.8	3,538.0
대학유형	국공립	7,130.5	7,659.5	7,293.3	6,485.0	5,576.1	4,986.0
	사립	9,677.2	7,980.0	8,722.6	8,587.5	6,550.2	5,705.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20〉 취업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9,304.5	7,980.0	9,102.6	9,449.0	8,268.3	7,835.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262.4	4,769.0	6,211.1	6,369.0	6,565.4	5,559.5
	5천~만명	7,270.3	7,205.0	7,937.7	7,511.0	6,465.3	5,779.0
	만명 이상	13,003.1	11,520.0	11,458.1	11,405.0	10,772.5	10,560.5
대학종류	4년제	9,975.9	9,569.0	9,472.8	9,682.0	8,392.1	7,385.0
	2~3년제	5,388.2	5,385.0	6,943.0	6,751.0	7,545.8	6,631.3
대학유형	국공립	7,130.5	7,659.5	7,869.8	8,160.0	7,926.7	9,196.0
	사립	9,677.2	7,980.0	9,313.9	9,449.0	8,326.8	7,089.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창업 비교과목 참여자 규모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사업규모에서도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 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클수록 창업 비교과목의 참여자 규모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소규모 대학과는 중위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차년도 참여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창업비교과목 참여자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2016년에는 471.5명에서 2018년에는 523.5명으로 증가했으며, 평균적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2017년에서 2018년 기준)이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학생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는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재학생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창업교과목 참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창업 교과목 참여자가 2016년 503.5명에서 2017년 614명으로 증가했지만 2~3년제 대학에서는 동기간 361명에서 180.5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취업 비교과목 참여자가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 창업을 위한 준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관련 기반을 확립하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3년제 대학 학생들이 창업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교육기간이 짧다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 및 창업교육의 경우,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학생들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 및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욕구에 최대한 부합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3-4-21〉 창업 비교과 참여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119.5	471.5	681.2	448.0	732.2	545.5
사업규모	대형	1,119.5	471.5	681.2	448.0	684.8	604.0
	소형	—	—	—	—	803.8	488.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20.4	427.0	388.4	239.0	552.5	207.0
	5천~만명	473.1	474.0	741.7	408.0	695.6	494.0
	만명 이상	2,068.3	609.5	756.1	583.5	961.5	707.5
대학종류	4년제	1,224.8	503.5	630.8	448.0	739.5	554.0
	2~3년제	522.7	361.0	928.1	442.0	708.2	537.0
대학유형	국공립	3,744.7	304.5	624.5	489.0	755.6	603.0
	사립	656.2	474.5	692.8	448.0	727.9	494.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22〉 창업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119.5	471.5	634.5	495.0	692.2	523.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20.4	427.0	423.0	215.0	338.9	185.0
	5천~만명	473.1	474.0	629.6	513.5	615.6	402.5
	만명 이상	2,068.3	609.5	726.1	579.0	909.8	740.0
대학종류	4년제	1,224.8	503.5	675.0	572.0	752.3	614.0
	2~3년제	522.7	361.0	404.8	225.5	351.5	180.5
대학유형	국공립	3,744.7	304.5	586.8	428.5	589.8	308.0
	사립	656.2	474.5	642.9	495.0	706.8	56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전체 비교과 참여자 규모는 중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대 비는 중위 기준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특성별로 보면 2016년 대비 만명 이상 재학생을 둔 대형대학의 비교과참여자 규모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인다. 이외에 4년제 대학과 사립대학의 비교과 참여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초기와 다르게 최근 대학들이 비교과목의 경우 대형화 보다는 소규모, 특성화, 전문화 등을 추구하면서 비교과목 참여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23〉 전체 비교과 참여자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4,676.4	12,050.0	13,041.1	12,652.0	10,533.8	10,027.0
사업규모	대형	14,676.4	12,050.0	13,041.1	12,652.0	12,774.5	12,315.0
	소형	—	—	—	—	7,116.6	5,896.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701.6	9,453.0	8,854.1	8,230.0	6,051.7	5,671.0
	5천~만명	11,793.9	10,512.0	12,012.0	11,557.0	9,931.3	10,027.0
	만명 이상	19,607.4	19,491.0	16,251.7	14,776.0	15,641.6	14,173.0
대학종류	4년제	15,597.8	12,267.0	13,497.3	13,661.0	11,096.6	10,760.0
	2~3년제	9,301.7	9,225.5	10,714.5	11,302.0	8,625.0	7,283.5
대학유형	국공립	12,851.2	10,448.5	12,069.3	14,450.0	9,212.7	9,818.0
	사립	14,989.3	12,050.0	13,254.9	12,592.5	10,801.1	10,059.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24〉 전체 비교과 참여자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4,676.4	12,050.0	13,775.5	14,277.0	13,182.9	12,54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701.6	9,453.0	9,282.7	8,305.0	11,161.5	8,381.5
	5천~만명	11,793.9	10,512.0	12,961.4	12,362.0	10,791.0	10,692.0
	만명 이상	19,607.4	19,491.0	16,439.6	14,776.0	16,407.2	14,663.0
대학종류	4년제	15,597.8	12,267.0	14,366.8	14,331.0	13,328.5	12,543.0
	2~3년제	9,301.7	9,225.5	10,326.2	11,040.5	12,334.0	10,752.5
대학유형	국공립	12,851.2	10,448.5	12,170.0	14,484.5	10,088.5	11,409.0
	사립	14,989.3	12,050.0	14,050.7	13,920.0	13,713.4	12,59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을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1~3차까지 모두 참여한 대학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역시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6년 132.7%에서 2018년에는 126.6%로 다소 감소한다. 대학 특성별로는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대학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4년제 대학에 비해서는 2~3년제 대학이, 국공립 대학보다는 사립대학에서 비교과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평가와 연동해 보면, 교과목에 비해 비교과 목의 경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참여자보다는 소수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GI 분석결과).

따라서 비교과 참여비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속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지표의 경우에는 양적인 분석과 더불어 비정형적인 질적 분석의 결과에서 좀 더 많은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표 3-4-25〉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52.4	132.7	162.1	151.7	146.1	122.7
사업규모	대형	152.4	132.7	162.1	151.7	158.5	135.9
	소형	—	—	—	—	127.1	96.7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36.8	236.9	250.5	213.4	183.9	163.7
	5천~만명	141.8	117.7	160.3	175.5	143.5	135.9
	만명 이상	128.3	125.0	121.8	117.5	114.8	110.7
대학종류	4년제	143.1	125.0	142.5	133.3	125.0	116.0
	2~3년제	206.6	190.6	261.7	216.9	217.5	189.8
대학유형	국공립	130.0	116.9	148.7	116.7	116.2	106.0
	사립	156.3	133.0	165.0	157.3	152.1	134.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26〉 재학생 대비 비교과 참여비율(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52.4	132.7	169.2	151.7	165.5	126.6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36.8	236.9	288.8	290.1	335.5	320.1
	5천~만명	141.8	117.7	163.1	175.5	136.7	147.4
	만명 이상	128.3	125.0	126.1	117.5	124.3	114.8
대학종류	4년제	143.1	125.0	145.4	135.6	132.4	119.3
	2~3년제	206.6	190.6	307.9	319.5	358.3	331.2
대학유형	국공립	130.0	116.9	175.4	126.2	139.3	108.4
	사립	156.3	133.0	168.1	158.4	170.0	144.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2. 지역거버넌스 효과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대학일자리센터 대형 및 소형간에도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항목이다. 대형의 경우 지역거버넌스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형의 경우 자율로 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단순히 자기 학교의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청소년 및 청년, 구직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이다. 현재의 대학일자리 센터가 이러한 지역거버넌스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거버넌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 청년의 서비스 참여정도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위기준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들이 일정부분 지역내에서 진로 및 취·창업에 있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대형, 재학생수가 만명 이상, 4년제 대학, 사립대학 등이 서비스 지역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1~3년 지속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541명에서 2018년에는 1,292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만명 이상 재학생을 가진 대학과 2~3년제,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지역청년 참여 규모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동

지표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참여라는 점에서 규모면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성과로 연계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표 3-4-27〉 서비스 지역청년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910.5	541.0	694.2	398.5	1,099.3	613.5
사업규모	대형	910.5	541.0	694.2	398.5	1,574.5	1,162.0
	소형	—	—	—	—	260.7	110.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84.2	835.0	836.7	680.0	564.9	339.5
	5천~만명	1,386.8	772.0	559.0	270.0	930.0	594.5
	만명 이상	436.4	277.5	788.8	421.5	1,837.3	1,341.5
대학종류	4년제	882.3	534.5	648.3	327.5	1,236.0	729.0
	2~3년제	1,091.4	1,129.0	923.5	685.5	623.9	155.0
대학유형	국공립	742.6	453.0	487.1	421.0	1,070.7	418.0
	사립	936.8	614.0	735.6	360.0	1,105.6	67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28〉 서비스 지역청년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910.5	541.0	659.2	323.0	1,577.8	1,292.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984.2	835.0	573.3	322.0	1,127.1	1,111.0
	5천~만명	1,386.8	772.0	526.6	213.0	1,435.9	1,083.5
	만명 이상	436.4	277.5	827.2	406.0	1,896.9	1,591.0
대학종류	4년제	882.3	534.5	640.2	323.0	1,621.3	1,292.0
	2~3년제	1,091.4	1,129.0	770.5	501.0	1,331.7	1,382.5
대학유형	국공립	742.6	453.0	543.8	421.0	1,435.5	971.5
	사립	936.8	614.0	679.0	314.0	1,602.9	1,339.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대학일자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다른 대학 재학생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보면, 전체 규모에서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3년차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중위기준으로 2016년 220명에서 2018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중간그룹, 4년제, 국공립 대학에서 타대학 학생의 서비스 참여도가 높았다.

타대생이 편하게 서비스 참여를 위해서는 접근성, 호의성 등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점에서 대형사립대 보다는 중간 규모의 국공립 대학이 타대생의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29〉 서비스 타대학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687.7	220.0	632.1	312.0	426.0	245.0
사업규모	대형	687.7	220.0	632.1	312.0	489.1	324.0
	소형	-	-	-	-	173.6	310.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15.8	752.0	214.3	201.0	137.6	55.0
	5천~만명	849.6	541.0	902.4	391.0	474.9	383.0
	만명 이상	468.4	129.5	515.2	400.0	545.0	299.0
대학종류	4년제	665.6	216.0	709.6	326.0	483.3	312.5
	2~3년제	853.3	684.5	196.5	132.5	144.5	47.0
대학유형	국공립	256.2	161.0	321.6	267.0	428.7	280.0
	사립	780.1	226.0	695.7	323.0	425.4	23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30〉 서비스 타대학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687.7	220.0	548.6	326.0	510.0	38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15.8	752.0	253.7	236.5	117.0	55.0
	5천~만명	849.6	541.0	722.1	424.0	635.9	525.5
	만명 이상	468.4	129.5	496.7	402.0	480.4	295.0
대학종류	4년제	665.6	216.0	598.8	402.0	533.7	401.0
	2~3년제	853.3	684.5	227.8	171.0	326.0	55.0
대학유형	국공립	251.2	161.0	439.7	356.5	546.4	383.0
	사립	780.1	226.0	569.7	326.0	503.9	36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내 특성화고 참여자 규모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중위기준 462명에서 2018년에는 384명으로 줄어들었다. 연속성 차원에서 1~3차년도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462명에서 2018년 520.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내 특성화고 등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31〉 서비스 특성화고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703.4	462.0	751.1	498.0	513.9	384.5
사업규모	대형	703.4	462.0	751.1	498.0	629.0	519.5
	소형	-	-	-	-	221.0	154.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571.2	973.0	880.6	500.0	554.3	449.5
	5천~만명	466.0	255.0	597.1	305.0	416.4	370.0
	만명 이상	618.7	502.0	857.0	554.5	621.4	452.0
대학종류	4년제	706.3	462.0	695.1	446.0	481.9	370.0
	2~3년제	683.8	588.5	1,031.1	842.0	628.8	412.0
대학유형	국공립	693.3	504.5	889.8	528.0	449.9	183.5
	사립	704.9	416.0	723.4	455.0	527.9	394.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32〉 서비스 특성화고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703.4	462.0	794.9	498.0	617.2	520.5
대학규모	5천명 미만	1,571.2	973.0	950.9	500.0	889.4	1,168.5
	5천~만명	466.0	255.0	645.4	305.0	473.9	438.0
	만명 이상	618.7	502.0	866.8	532.0	643.0	479.0
대학종류	4년제	706.3	462.0	730.2	425.5	530.5	467.0
	2~3년제	683.8	588.5	1,139.7	722.5	1,079.4	1,200.8
대학유형	국공립	693.3	504.5	1,168.6	662.0	452.2	541.0
	사립	704.9	416.0	738.2	446.0	642.2	506.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기타 서비스 참여자 규모를 보면 전체 참여대학 기준으로 평균과 중위에서 모두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중위기준 2016년 267명에서 2018년 140명으로 줄 어들었다. 반면 1~3년차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일시 참여 규모가 하락했지만, 2016년 267명에서 2018년에는 39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대학 규모가 중간그룹이고, 2~3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에서의 기타 서비스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33〉 서비스 기타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294.4	267.0	682.8	140.5	375.3	140.0
사업규모	대형	1,294.4	267.0	682.8	140.5	457.5	166.0
	소형	-	-	-	-	153.4	54.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3.5	23.5	299.5	62.5	302.2	170.0
	5천~만명	1,905.8	234.0	874.7	167.0	368.0	101.5
	만명 이상	965.4	392.0	520.2	147.0	439.9	376.0
대학종류	4년제	1,362.2	300.0	752.9	167.0	386.0	140.0
	2~3년제	60.0	60.0	248.0	75.0	320.3	104.0
대학유형	국공립	363.0	363.0	236.4	85.0	454.9	137.0
	사립	1,397.9	267.0	810.4	175.0	356.8	14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34〉 서비스 기타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1,294.4	267.0	814.8	174.0	540.5	399.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3.5	23.5	541.0	541.0	592.3	331.0
	5천~만명	1,905.8	234.0	1,105.7	187.0	659.1	506.0
	만명 이상	965.4	392.0	474.6	147.0	417.8	140.0
대학종류	4년제	1,362.2	300.0	842.6	174.0	497.5	331.0
	2~3년제	60.0	60.0	523.0	523.0	1,357.0	1,357.0
대학유형	국공립	363.0	363.0	55.5	30.5	731.0	731.0
	사립	1,397.9	267.0	974.7	200.0	519.3	399.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지금까지 정리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전체 참여 규모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참여자 규모가 2018년에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8년에는 중위기준으로 39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1~3차년도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671명에서 2017년 1,709명, 2018년 2,693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크거나, 2~3년제 대학과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 대학에서 서비스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35〉 서비스 총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2,535.2	1,671.0	2,299.9	1,654.0	1,887.7	1,489.5
사업규모	대형	2,535.2	1,671.0	2,299.9	1,654.0	2,745.5	2,497.0
	소형	—	—	—	—	473.4	264.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438.0	1,671.0	2,001.6	1,625.0	1,085.6	546.0
	5천~만명	3,366.0	2,179.0	2,451.9	1,649.0	1,700.8	1,350.5
	만명 이상	1,744.4	1,272.0	2,264.2	1,709.0	2,905.0	2,783.0
대학종류	4년제	2,661.5	1,750.0	2,332.7	1,654.0	2,074.9	1,880.5
	2~3년제	1,798.3	1,567.0	2,132.7	1,793.0	1,241.0	544.0
대학유형	국공립	1,458.2	1,350.5	1,605.8	1,676.0	1,905.9	1,178.0
	사립	2,719.8	1,750.0	2,452.6	1,651.5	1,883.9	1,529.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36〉 서비스 총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2,535.2	1,671.0	2,348.2	1,709.0	2,810.4	2,69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438.0	1,671.0	1,896.1	1,625.0	2,337.2	2,152.0
	5천~만명	3,366.0	2,179.0	2,520.8	1,914.0	2,706.2	2,693.0
	만명 이상	1,744.4	1,272.0	2,361.7	1,709.0	3,109.4	3,121.0
대학종류	4년제	2,661.5	1,750.0	2,360.8	1,676.0	2,802.8	2,693.0
	2~3년제	1,798.3	1,567.0	2,274.3	2,287.0	2,854.6	3,432.8
대학유형	국공립	1,458.2	1,350.5	1,994.3	1,711.5	2,511.3	2,097.0
	사립	2,719.8	1,750.0	2,408.8	1,654.0	2,861.6	2,71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특성화된 프로그램중 하나인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를 보면, 전체적 규모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차년도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에서 재학생 규모가 중간그룹에서는 참여자가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하고 있지만, 만명 이상 대학에서의 참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타 4년제 대학과 사립대에서의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3-4-37〉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748.3	623.0	820.6	611.0	845.9	539.0
사업규모	대형	748.3	623.0	820.6	611.0	845.9	539.0
	소형	-	-	-	-	-	-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79.6	279.0	706.2	413.0	406.3	370.0
	5천~만명	959.0	1,045.0	773.7	623.0	944.3	585.0
	만명 이상	730.5	623.0	930.3	899.0	940.7	538.0
대학종류	4년제	809.5	637.0	896.7	768.0	855.9	542.0
	2~3년제	390.8	249.5	432.3	445.0	794.8	518.0
대학유형	국공립	596.0	604.0	591.7	555.0	590.4	526.0
	사립	774.4	623.0	871.0	678.0	902.1	579.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표 3-4-38〉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1~3차년도 참여대학)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748.3	623.0	834.3	768.0	882.9	542.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279.6	279.0	378.4	413.0	397.7	366.0
	5천~만명	959.0	1,045.0	910.2	778.0	1,208.3	824.0
	만명 이상	730.5	623.0	946.0	899.0	757.4	536.0
대학종류	4년제	809.5	637.0	904.5	878.0	858.8	636.0
	2~3년제	390.8	249.5	424.5	445.0	1,023.8	518.0
대학유형	국공립	596.0	604.0	667.8	555.0	694.3	456.0
	사립	774.4	623.0	862.8	768.0	915.3	636.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이하에서는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에 대해 분석해 봤다. 아래 표를 통해 보면 먼저 고용센터와의 협업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의 협업수준인 4.48점을 센터가 없는 곳은 3.29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 다른 협력기관과의 비교에서도 지역고용센터와의 협업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 대부분이 적극 협업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이었지만, 단 국공립대학만 다소 낮은 53.8%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표 3-4-39〉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1

(단위: %, 점수)

지역고용센터 (고용복지+)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2.4	—	8.4	24.1	65.1	4.49	7.3	16.1	31.4	31.4	13.9	3.2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4.2	—	12.5	20.8	62.5	4.38	8.3	12.5	35.4	31.3	12.5	3.27
	5천~만명	0.0	—	5.3	28.9	65.8	4.61	0.0	20.7	24.1	37.9	17.2	3.52
	만명 이상	4.8	—	9.5	19.0	66.7	4.43	16.7	33.3	16.7	16.7	16.7	2.83
대학 종류	4년제	1.6	—	7.8	26.6	64.1	4.52	7.7	19.2	29.5	30.8	12.8	3.22
	2~3년제	5.3	—	10.5	15.8	68.4	4.42	6.8	11.9	33.9	32.2	15.3	3.37
대학 유형	국공립	6.7	—	13.3	20.0	60.0	4.27	0.0	23.5	23.5	29.4	23.5	3.53
	사립	1.5	—	7.4	25.0	66.2	4.54	8.3	15.0	32.5	31.7	12.5	3.25
지방자치단체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2.4	1.2	16.9	25.3	54.2	4.28	6.6	19.7	29.9	30.7	13.1	3.24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4.2	0.0	16.7	29.2	50.0	4.21	5.2	19.8	30.2	31.3	13.5	3.28
	5천~만명	0.0	2.6	13.2	28.9	55.3	4.37	6.9	13.8	31.0	37.9	10.3	3.31
	만명 이상	4.8	0.0	23.8	14.3	57.1	4.19	16.7	33.3	25.0	8.3	16.7	2.75
대학 종류	4년제	1.6	1.6	18.8	21.9	56.3	4.30	7.7	23.1	28.2	29.5	11.5	3.14
	2~3년제	5.3	0.0	10.5	36.8	47.4	4.21	5.1	15.3	32.2	32.2	15.3	3.37
대학 유형	국공립	6.7	6.7	20.0	26.7	40.0	3.87	0.0	11.8	17.6	52.9	17.6	3.76
	사립	1.5	0.0	16.2	25.0	57.4	4.37	7.5	20.8	31.7	27.5	12.5	3.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수준도 지역고용센터와 함께 높은 협업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과 비교시 평균 점수가 1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

학특성별로 보면 국공립대학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에 부정적 비율(13.4%)이 높았으며, 2~3년제 대학 일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거의 없는 것(5.3%)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과업특성상 지역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은 서로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의 비교에서는 지역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협업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각각 3.11점, 3.05점,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은 각각 2.45점, 2.38점에 불과하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도 형태는 적극적 협력보다는 협업하는 형태정도 기준으로 보통 혹은 협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표 3-4-40〉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2

(단위: %, 점수)

지역창조 경제혁신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8.4	21.7	32.5	25.3	12.0	3.11	22.6	32.8	29.9	5.8	8.8	2.45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8.3	33.3	12.5	20.8	25.0	3.21	24.0	30.2	31.3	6.3	8.3	2.45
	5천~만명	2.6	23.7	36.8	28.9	7.9	3.16	13.8	41.4	31.0	3.4	10.3	2.55
	만명 이상	19.0	4.8	47.6	23.8	4.8	2.90	33.3	33.3	16.7	8.3	8.3	2.25
대학 종류	4년제	9.4	14.1	39.1	25.0	12.5	3.17	21.8	39.7	29.5	3.8	5.1	2.31
	2~3년제	5.3	47.4	10.5	26.3	10.5	2.89	23.7	23.7	30.5	8.5	13.6	2.64
대학 유형	국공립	13.3	13.3	26.7	46.7	0.0	3.07	11.8	41.2	35.3	11.8	0.0	2.47
	사립	7.4	23.5	33.8	20.6	14.7	3.12	24.2	31.7	29.2	5.0	10.0	2.45
지역인적 자원개발 위원회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12.0	19.3	34.9	19.3	14.5	3.05	20.4	35.8	30.7	11.7	1.5	2.38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12.5	33.3	20.8	12.5	20.8	2.96	20.8	36.5	30.2	12.5	0.0	2.34
	5천~만명	13.2	13.2	42.1	23.7	7.9	3.00	13.8	31.0	41.4	10.3	3.4	2.59
	만명 이상	9.5	14.3	38.1	19.0	19.0	3.24	33.3	41.7	8.3	8.3	8.3	2.17
대학 종류	4년제	12.5	14.1	37.5	18.8	17.2	3.14	20.5	38.5	28.2	10.3	2.6	2.36
	2~3년제	10.5	36.8	26.3	21.1	5.3	2.74	20.3	32.2	33.9	13.6	0.0	2.41
대학 유형	국공립	20.0	33.3	26.7	13.3	6.7	2.53	17.6	29.4	41.2	11.8	0.0	2.47
	사립	10.3	16.2	36.8	20.6	16.2	3.16	20.8	36.7	29.2	11.7	1.7	2.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지역내 기업과의 연계에서는 지역고용센터 보다는 낮지만,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3.90점, 없는 곳은 3.27점으로 협업관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협업을 하는 편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재학생 규모가 5천명 이상이고, 2~3년제 대학인 경우 지역산업체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에 비해 대학일자리 센터가 있는 곳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41〉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3

(단위: %, 점수)

지역산업체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4.8	1.2	21.7	43.4	28.9	3.90	8.0	13.1	37.2	27.0	14.6	3.27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8.3	0.0	12.5	45.8	33.3	3.96	6.3	15.6	36.5	29.2	12.5	3.26
	5천~만명	0.0	2.6	28.9	42.1	26.3	3.92	6.9	0.0	48.3	20.7	24.1	3.55
	만명 이상	9.5	0.0	19.0	42.9	28.6	3.81	25.0	25.0	16.7	25.0	8.3	2.67
대학 종류	4년제	4.7	1.6	28.1	42.2	23.4	3.78	12.8	19.2	35.9	20.5	11.5	2.99
	2~3년제	5.3	0.0	0.0	47.4	47.4	4.32	1.7	5.1	39.0	35.6	18.6	3.64
대학 유형	국공립	6.7	0.0	40.0	40.0	13.3	3.53	5.9	11.8	41.2	17.6	23.5	3.41
	사립	4.4	1.5	17.6	44.1	32.4	3.99	8.3	13.3	36.7	28.3	13.3	3.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지역내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협업을 보면, 지역내 다른 대학과의 협업은 높은 수준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와의 교류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은 각각 4.08점, 3.64점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에 비해 다른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협업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대학규모, 종류,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과 비교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간의 지역거버넌스 협력관계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사업 수행과정, 평가

등에서 지역거버넌스 형성이 주요한 의무이기에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에 비해 협업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협업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들이 자신만의 네트워크 만으로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중요하게 되는데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해 충실하게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4-42〉 진로취업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4

(단위: %, 점수)

지역대·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1.2	4.8	18.1	36.1	39.8	4.08	6.6	20.4	36.5	29.2	7.3	3.10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4.2	8.3	25.0	41.7	20.8	3.67	4.2	25.0	35.4	30.2	5.2	3.07
	5천~만명	0.0	2.6	13.2	31.6	52.6	4.34	6.9	10.3	41.4	27.6	13.8	3.31
	만명 이상	0.0	4.8	19.0	38.1	38.1	4.10	25.0	8.3	33.3	25.0	8.3	2.83
대학 종류	4년제	0.0	3.1	18.8	34.4	43.8	4.19	9.0	21.8	30.8	29.5	9.0	3.08
	2~3년제	5.3	10.5	15.8	42.1	26.3	3.74	3.4	18.6	44.1	28.8	5.1	3.14
대학 유형	국공립	0.0	6.7	20.0	33.3	40.0	4.07	5.9	11.8	29.4	35.3	17.6	3.47
	사립	1.5	4.4	17.6	36.8	39.7	4.09	6.7	21.7	37.5	28.3	5.8	3.05
지역고등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한다	5점 평균
전체		3.6	10.8	28.9	31.3	25.3	3.64	15.3	32.1	29.9	19.0	3.6	2.64
대학 규모	5천명 미만	4.2	16.7	20.8	37.5	20.8	3.54	11.5	33.3	30.2	19.8	5.2	2.74
	5천~만명	2.6	13.2	31.6	23.7	28.9	3.63	13.8	31.0	34.5	20.7	0.0	2.62
	만명 이상	4.8	0.0	33.3	38.1	23.8	3.76	50.0	25.0	16.7	8.3	0.0	1.83
대학 종류	4년제	3.1	9.4	34.4	28.1	25.0	3.63	17.9	37.2	24.4	20.5	0.0	2.47
	2~3년제	5.3	15.8	10.5	42.1	26.3	3.68	11.9	25.4	37.3	16.9	8.5	2.85
대학 유형	국공립	6.7	0.0	33.3	26.7	33.3	3.80	17.6	23.5	29.4	17.6	11.8	2.82
	사립	2.9	13.2	27.9	32.4	23.5	3.60	15.0	33.3	30.0	19.2	2.5	2.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원자료

제5절 성과 : 취업률, 고용유지율

우리 연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목적인 진로 및 취·창업 기능의 일원화, 청년에 대한 역량강화,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outcome) 대학 청년, 지역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선제적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지원을 토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시키고 장기간 취업을 유지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 사회 동량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인 분석 외에도 대학일자리센터 도입 이후 대학의 취업률, 고용유지율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평가자료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취업률을 보면, 중위 기준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취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⁴⁾. 사업 규모별로는 대형에 비해 소형사업 참여 대학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다.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 이하 대학이, 4년제에 비해 2~3년제 대학이,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1〉 평가자료를 활용한 취업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1.93	50.36	65.76	64.90	64.10	63.70
사업규모	대형	51.45	49.19	64.96	64.10	63.31	62.80
	소형	52.66	52.40	66.97	66.70	65.30	65.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4.26	53.88	68.94	67.90	67.35	66.40
	5천~만명	52.62	50.89	66.11	65.00	64.76	63.80
	만명 이상	48.69	48.09	62.25	62.00	60.05	58.70
대학종류	4년제	50.84	49.17	64.58	64.10	62.59	62.70
	2~3년제	55.62	53.88	69.74	68.00	69.21	68.00
대학유형	국공립	48.59	46.71	61.44	59.10	59.29	59.20
	사립	52.61	51.59	66.63	65.45	65.07	64.6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4) 2017년에서 2018년사이 취업률 감소는 동 기간 대학일자리센터로 소형대학들이 추가 모집되면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3년 지속해 참여한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1~3차년도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취업률 변화를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중위 기준으로 취업률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에 소폭이지만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여준다. 대학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대학의 취업률이 높았으며, 4년제에 비해 2~3년제가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2〉 평가자료를 활용한 취업률(1~3년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평균	중위	평균	중위	평균	중위
전체		51.85	49.19	64.81	63.20	63.48	62.6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6.64	57.32	68.67	67.30	68.00	66.40
	5천~만명	52.73	49.19	65.59	63.50	64.81	62.60
	만명 이상	48.99	48.16	62.45	62.20	60.28	60.10
대학종류	4년제	50.40	49.05	63.58	62.70	62.17	61.90
	2~3년제	60.31	61.16	72.02	70.10	71.10	69.70
대학유형	국공립	48.39	47.24	61.95	60.05	61.27	60.15
	사립	52.44	500.02	65.31	63.50	63.85	62.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내부자료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취업률 변화를 보면, 2016년에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이 없는 곳에 비해 취업률이 낮았지만, 2017년과 2018년을 지나면서는 취업률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에서는 5천명 미만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이 5천명 이상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의 취업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종류별로는 2~3년제 대학에선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이, 4년제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의 취업률이 높았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사립대학이,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은 국공립대학의 취업률이 높았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4년제 대학이 취업률이 높은 것은 당초 취업률이 높은 대학이 대학일자리센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이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취업률이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때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업률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3〉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평균 취업률

(단위: %)

평균 취업률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전체		51.9	65.8	64.1	63.6	64.0	63.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54.3	68.9	67.3	62.4	62.9	62.0
	5천~만명 미만	52.6	66.1	64.8	67.2	67.6	66.5
	만명 이상	48.7	62.3	60.0	64.7	64.7	63.3
대학종류	4년제	48.6	61.4	59.3	67.0	66.2	64.4
	2~3년제	52.6	66.6	65.1	63.2	63.8	62.9
대학유형	국공립	48.9	61.4	59.3	67.0	66.2	64.4
	사립	52.6	66.6	65.1	63.2	63.8	62.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공시자료, 원자료

2018년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해 대학특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전체 평균보다 취업률이 낮은 그룹은 5천~만명 미만으로, 이 중 4년제 국공립대학과, 만명 이상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공립 대학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명 이상 사립대학은 취업과 더불어 진학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5-4〉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취업률(대학특성별 세분화, 2018 기준)

(단위: %)

취업률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3년 참여대학		
전체			64.1	63.4	63.0
대학규모	대학종류	대학유형			
5천명 미만	4년제	국공립	66.4	—	69.1
		사립	65.6	64.2	53.1
	2~3년제	국공립	64.6	66.4	67.9
		사립	69.3	70.3	68.0
5천명~만명 미만	4년제	국공립	59.4	60.2	62.2
		사립	64.5	64.5	64.7
	2~3년제	국공립	—	—	—
		사립	70.2	79.0	70.0
만명 이상	4년제	국공립	56.6	60.3	58.2
		사립	61.1	60.3	65.2
	2~3년제	국공립	—	—	—
		사립	—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공시자료, 원자료

취업률과 더불어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율은 학생들이 취업이후 동일직장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래 표를 통해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2017년과 2018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고용유지율이 높다는 의미는 재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센터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 즉 초기 직장을 알아보기 이전 진로교육 단계부터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고, 실제 취·창업 직전에는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함께 고민하고 적성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소개 및 알선 해준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5-5〉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고용유지율

(단위: %)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2017				2018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전체		89.7	83.6	75.7	71.2	90.2	85.0	78.9	77.0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8.6	82.4	73.8	69.1	89.2	83.3	76.9	74.8
	5천~만명	89.8	83.4	75.3	70.6	90.1	84.7	78.4	76.5
	만명 이상	90.6	84.9	78.0	74.2	91.6	87.0	81.5	79.9
대학종류	4년제	90.5	84.6	77.0	72.8	90.9	86.0	80.1	78.4
	2~3년제	87.1	80.3	71.3	66.0	88.1	81.5	74.7	72.4
대학유형	국공립	90.7	84.6	77.9	74.0	91.4	86.7	80.9	79.3
	사립	89.5	83.4	75.2	70.7	90.0	84.7	78.5	76.6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2017				2018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전체		83.8	78.1	73.0	70.6	85.2	80.2	74.6	72.7
대학규모	5천명 미만	81.0	75.3	70.3	67.8	82.8	77.7	72.1	70.1
	5천~만명	89.0	82.9	77.1	74.5	90.0	84.8	78.4	76.4
	만명 이상	93.0	89.0	85.0	83.2	93.4	90.0	85.7	84.6
대학종류	4년제	81.0	76.5	72.4	70.4	82.5	78.4	73.9	72.3
	2~3년제	86.7	79.9	73.7	70.8	88.2	82.3	75.4	73.1
대학유형	국공립	89.3	84.4	79.3	77.3	89.6	84.9	79.2	77.6
	사립	83.1	77.4	72.3	69.8	84.7	79.7	740.0	72.1

주: 1) 고용유지율이란 취업자가 일정기간(3,6,9,11개월)이 지난 뒤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공시자료, 원자료

5)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 중에는 우리 사회에 좋은 학교로 알려진 대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학은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높은 대학들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들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곳의 고용유지율과 대비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곳의 고용유지율이 높다는 점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의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특성별로는 만명 이상, 4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의 고용유지율이 대학일자리센터 유무와 상관없이 고용유지율이 높았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경우 대학특성별로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고용유지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경우는 5천명 미만의 2~3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교, 5천명 이상의 재학생을 가진 사립대학교의 고용유지율이 낮았다.

〈표 3-5-6〉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유지율(대학특성별 세분화, 2018년 기준)
(단위: %)

고용유지율			1차	2차	3차	4차
전체			90.2	85.0	78.9	77.0
대학규모	대학종류	대학유형				
5천명 미만	4년제	국공립	—	—	—	—
		사립	90.4	85.2	79.2	77.2
	2~3년제	국공립	85.2	77.1	70.0	66.9
		사립	88.4	82.2	75.7	73.5
5천명~만명 미만	4년제	국공립	91.5	87.1	80.7	79.3
		사립	90.2	85.1	78.9	77.1
	2~3년제	국공립	—	—	—	—
		사립	88.2	81.4	74.3	71.9
만명 이상	4년제	국공립	92.6	88.8	84.1	82.6
		사립	75.2	71.2	67.4	65.8
	2~3년제	국공립	—	—	—	—
		사립	—	—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공시자료, 원자료

3차년까지 참여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5천명 미만의 2~3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과 5천~만명 이하의 사립대학의 고용유지율이 낮았다. 이들 대학의 경우 취업률에서는 평균 보다 높았지만, 고용유지율은 평균보다 낮게 분석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5천명 미만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취업률에 집중하고 있지만, 5천명 이상의 재학생을 가진 대학은 취업률은 낮지만 고용유지율이 높은 것은 이들 대학이 규모가 있고, 장기간 진로·취업 관련 적성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취업시 오랜 기간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일자리센터가 현재와 같이 대형 및 소형이 아닌 규모별로 재편을 한다면 재학생 수가 적은 대학은 현재

와 같은 취업률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적성에 부합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재학생 규모가 큰 대학은 일자리 정보를 다양화, 다변화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5-7〉 대학 공시자료를 활용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유지율(대학특성별 세분화, 2018년, 3년참여)
(단위: %)

고용유지율			1차	2차	3차	4차
전체			90.6	85.4	79.6	77.8
대학규모	대학종류	대학유형				
5천명 미만	4년제	국공립 사립	—	—	—	—
			90.6	85.3	81.7	79.8
	2~3년제	국공립 사립	87.9	83.5	74.5	71.9
			88.6	82.7	77.4	75.2
5천명~만명 미만	4년제	국공립 사립	92.9	88.0	81.4	80.1
			90.0	84.8	78.5	76.6
	2~3년제	국공립 사립	—	—	—	—
			88.9	83.3	78.0	76.2
만명 이상	4년제	국공립 사립	92.6	88.9	84.8	83.7
			90.9	86.0	80.2	78.4
	2~3년제	국공립 사립	—	—	—	—
			—	—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학 공시자료, 원자료

제6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량 평가를 위해 평가들은 네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 셋째, 청년 고용 및 경력개발서비스 효과, 넷째, 지역청년 거버넌스 및 서비스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객관적 성과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자료와 220개 대학을 기초로 한 대학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은 고용정보원의 자료와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해도 모두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에 비해 인프라(교수, 교직원, 전산망, 진로 및 취·창업 교과목 등)측면에서 구비가 잘 되어 있고, 학생을 위한 서비스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진로, 취·창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과 직원의 직무안정성이 강화되었다. 부서 담당자가 처장급, 교무위원인 경우가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에 비해 27.2%포인트(표3-2-3 참조)가 높았다. 이를 통해 대학내에서 진로, 취·창업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체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산인프라가 정비되면서 학교 전산망을 통해 외부와 연계된 진로, 취·창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하게 되었다(표3-2-11 참조).

두 번째 서비스 제공 효과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센터를 통해 센터가 없는 대학들에 비해 각종 진로지도 서비스등이 제공 됨으로써 학생들의 서비스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3-1~3-3-6). 인프라와 위상이 강화되면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학생 인지도는 2016년 중위 기준 40.2점에서 2018년에는 43.9점과 47.0점으로 증가했다. 특징별로 살펴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중 소형보다는 대형사업 대학이, 대학규모로는 재학생수가 많은 곳보다는 5000명 이하의 작은 대학에서 전체적인 인지도가 높았다.

셋째, 청년고용 및 경력개발서비스 효과를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상담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었다. 1~3차년도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재학생 대비 상담비율이 2016년 평균 181.5%(중위 178.5%)에서 2018년에는 평균 230.1%(중위 194.1%)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향후에는 단순 상담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정보제공, 심층상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타 정규 및 비교과목 등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청년 거버넌스 및 서비스 효과는 대학일자리센터 참여자들이 힘들어 하면서도 나름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지역네트워크와의 참여도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

는 대학에 비해 고용센터, 지자체 포함 지역협의 기구 등과 연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률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의 2016년 대비 2018년 취업률이 증가하였으며, 대형에 비해 소형사업 참여 대학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다. 3차년도 사업을 모두 참여한 대학에서도 사업초기 2016년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하였다.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간 비교를 해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2016년 51.9%에서 2018년 64.1%로 증가한 반면에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은 취업률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으며, 센터가 있는 대학에 비해 소폭이지만 낮은 취업률을 보여주었다. 2018년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해 대학특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만명 이상 재학생을 가진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규모가 작은 대학에 비해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고용유지율을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2017년과 2018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지율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에서 좀 더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로 및 취·창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성별로 보면 취업률과 다르게 고용유지율은 만명 이상, 4년제 대학, 국공립 대학의 고용유지율이 높았다. 반대로 5천명 미만의 2~3년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교, 5천명 이상의 재학생을 가진 사립대학교의 고용유지율이 낮았다. 취업률과는 다소 반대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량적 평가결과를 통해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인프라,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과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고 정비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인프라를 좀 더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

제 4 장

대학일자리센터 질적 평가

제1절 질적 평가 방법

제2절 질적 평가 내용

4

대학일자리센터 질적평가



제1절 질적 평가 방법

앞 장에서 양적 데이터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의 성과를 분석한 것에 더해서 이번 장에서는 질적인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양적인 데이터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체감하는 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인 성과분석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서면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진행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공급자인 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들에 대한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학생상담,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담당하면서 대학일자리센터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는 서면인터뷰와 FGI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표 4-1-1〉 질적 평가를 위한 FGI 개요

대상	구분	개요
수요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일시 및 장소: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12시. 서울역 인근 · 참가자: 재학생 4명(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충북대학교	· 일시 및 장소: 2019년 7월 9일 오후 2시~4시. 충북대학교 · 참가자: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공급자	컨설턴트, 팀장(수도권, 강원)	·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28일 오전 10시~12시. 서울역 인근 · 참가자: 한국외대, 강원대, 세종대(이상 팀장), 인천대(컨설턴트)
	컨설턴트(충청)	·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4일 오후 2시~4시. 한남대 · 참가자: 배재대, 백석대, 충남도립대, 충북대, 한남대
	팀장(충청)	·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4일 오후 2시~4시. 한남대 · 참가자: 배재대, 백석대, 충북대, 한남대
교수	충청권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28일 오전 10시~12시. 청주시 오송역 · 참가자: 충북대
	수도권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29일 오후 2시~4시. 서울역 인근 · 참가자: 가천대, 서울과학기술대
사업운영 담당자	한국고용정보원	·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30일 오전 10시~12시. 한국고용정보원 · 참가자: 사업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 담당 연구진 2명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 서비스 공급자인 대학일자리센터 팀장과 컨설턴트, 학생과의 중간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 관련 정책연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각의 인터뷰 개요는 표와 같다.

1.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및 컨설턴트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는 지역별로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제1차 FGI는 서울, 수도권, 강원도 소재 대학인 한국외대, 인천대, 강원대, 세종대의 대학일자리센터 팀장과 컨설턴트 4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8일(화)에 진행하였다. 충청권 소재 대학은 2019년 6월 4일(화)에 대학일자리센터 팀장급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에는 배재대, 백석대, 충북대, 한남대학의 담당자가 참여하였고, 컨설턴트 대상 FGI는 상기 4개 대학과 충남도립대가 참여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이전, 진로 및 취업 관련 업무를 어디서 담당했는지,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이후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측면의 성과와 변화로 살펴보았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이후, 재학생 진로지도 및 조기 고용지원 측면에서의 변화, 졸업생 및 지역청년 고용지원 측면에서의 변화나 성과를 위주로 논의했다. 대학 측면의 성과와 변화차원에서는 대학 조직이나 공간, 전산 등 대학 내 인프라 측면의 변화나 성과, 대학내 전문인력 구성이나 전문가 활용 등의 측면에서 변화나 성과, 교직원 및 교수 등 대학 내부 관계자들의 인식과 역할에서 벗어난 성과를 살펴보았다.

추가로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 기업 및 고교의 대학 인지도 변화 등 기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이후 변화나 성과를 살펴보았다. 향후 대학일자리센터의 바람직한 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대학 내부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중요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언과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변화 이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2. 학생(졸업생)

대학일자리센터 수요자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FGI는 지역별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는 2019년 7월 4일(목)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는 충북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대학일자리센터 이용 전 학교에서 진로관련 교육을 받았던 경험과 내용과 교육 받은 느낌은 어떠했는지, 대학일자리센터 방문이전에 진로, 취업 관련 정보 구득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학과 교수님 등을 통한 진로 및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대일센터와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였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를 이용하게 된 이유와 경험, 그 이후의 변화를 진로지원서비스, 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 측면과 상담지원서비스, 기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이용 시 불편한 점 혹은 개선점과 제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진로 혹은 취업 관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3. 교수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전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는 2019년 8월 28일(수)에 충북대학교 교수 2인을 대상으로, 2차는 2019년 8월 29일(목) 보사연 서울조사센터 회의실에서 가천대학교 교수 1인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인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논의내용은 대학 전체와 학과(혹은 학부)에서 교수-학생 멘토링과 같은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진로 및 취·창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의 여부, 학생들과의 진로, 취업 등과 관련된 일반 상담의 주기(예. 학기 당 1회 혹은 학기 당 2회 등)와 이에 대한 충분성에 대한 논의, 일반 상담 이외의 심층적인 상담도 진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애로점(혹은 부담)과 해결방안, 진로 및 취·창업 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진행하기 전 대학일자리센터 혹은 다른 학교 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 실시·참여 여부, 업적 평가에 반영여부 등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창업 상담 등의 심층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학생들을 위한 진로, 취·창업 등을 위한 책임

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 어느 부처가 적당하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4.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의 운영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2019년 8월 30일(금)에 한국고용정보원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의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진 2명이 참석하였다.

주로 고용정보원에서 담당하는 업무, 대학일자리센터 그동안의 운영성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족한 측면을 인프라, 진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대일센터 성과 향상 혹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재학생, 대일센터 관계자(팀장, 컨설턴트), 정부 및 공공(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정보원) 등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참여자 등에 대한 교육 혹은 세미나 등에 대한 운영 내용, 향후 대학일자리센터 유지의 필요성과 대학 내부적 노력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의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보다 적합한 부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절 질적 평가 내용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이 실시한 각 주체별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각 대상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대학일자리센터의 인프라, 진로 및 취·창업 지도(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등), 경력개발 시스템, 지역 고용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절에서는 이들 주제별로 각 주체들이 인식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간략한 제안사항을 정리한다.

1.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가. 위상과 체계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이후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구로서의 위상강화와 체계적 조직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대학내 위상강화를 위해 처장급의 교무위원이 센터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센터장이 참여하게 되고, 단과대학 및 학과, 기획 및 예산 담당 부서와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었다. 즉, 기존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유사 기능을 담당해왔던 기존의 대학기구가 취업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진로지도와 취업지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그리고 진로, 취업, 창업 등의 서비스를 개별 기구에서 제공하던 것이 대학일자리센터로 기능이 일원화되고, 공간 또한 집적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팀 단위의 조직이 센터급(일부 대학은 본부급) 단위로 확대되면서 대학 내 진로,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기존에 대학마다 상이하게 구성된 상담공간을 늘리고 상담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조를 표준화 한 것도 인프라 측면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위상강화에 따라 산학협력이나 LINC 사업 등 예산규모가 큰 사업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구조에서 관리, 운영되는 측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의 성과에 대한 관점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일자리센터가 진로 및 취·창업에 관한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에 기초하여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나 기관의 이해를 끌어내고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담인력이 보강되고, 인력운영의 안정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교수 상담으로 진로상담을 대부분 커버했지만 컨설턴트 등의 인력과 연계하는 진료교과목 개설,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졸업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해졌다는 점도 상담인력 증원의 성

파로 뽑을 수 있다. 또한 예산 지원을 통해 컨설턴트 및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인력 증원을 통해, 대학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해외취업 전담인력 등의 전문적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컨설턴트를 위탁으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과 컨설턴트 간의 애매한 입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대학에 고용된 컨설턴트와 위탁 컨설턴트가 공존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상이한 수준의 고용안정성, 상이한 책임의 범위 등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위탁기관의 컨설턴트의 이직이 잦으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위탁기관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직접고용이 될 경우 대학의 인사관리 체계에 적용되면서 보직 순환, 상담 이외의 행정 업무 부담, 경우에 따라서 급여 인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최선의 해법이 되지는 못한다. 특히, 대학소속 대일센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생과 형성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나 업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팀장급 인력이 부재한 경우도 발견된다.

위탁기관의 문제는 인력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직접고용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고, 직접고용의 경우 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취업진로 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안정적인 업무배치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위탁여부와 무관하게, 컨설턴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업무 이외의 업무는 별도로 분장하고, 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인력의 보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면접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의 의견대로 학생 수 대비 컨설턴트의 적정 인원 수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평가 등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한 진로 경로를 가지고 있는 학과, 예를 들어 사회복지, 유교, 간호, 물리치료 등의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전공의 경우 진로 및 취업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로 취업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수준도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학과의 교수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센터 담당자와 학과 교수와의 공동 워크숍과 같은 소통과 학습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 교수들에 대해

서는 업적평가시스템을 통한 제도적 유인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컨설턴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상담 업무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담 스킬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만, 면접에 참가한 한 컨설턴트는 상담 심화프로그램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컨설턴트의 교육훈련 욕구는 전문한 바와 같이 업무범위 확대, 상담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적절히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제안사항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진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 받았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컨설턴트 경력에 따른 분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1년 이하 ~ 1년 이상의 경력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경력자 중 더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더욱 고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 교육과 관련해서 상담기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최신 채용 트렌드, 이력서 작성 방법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다루어달라는 제안이다. 세 번째는 컨설턴트 간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과 교육생 간 의견의 편차는 있지만, 사업 우수 운영 대학의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의견이다. 네 번째는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컨설턴트의 사업 진입 시기, 학교 특성(4년제/전문대), 담당업무(상담/프로그램/행정 등) 등 수강생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운영해달라는 의견이다. 그 밖에 교육기간도 1박 2일 정도로 단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2019년 하계 교육에서는 기초/심화 단계별로 분반하여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였다. 학교특성별, 컨설턴트 담당 직무별 분반은 향후 교육 기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학과(교수)의 역할

위상 강화와도 관련이 되지만, 대학일자리센터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학과별 상담이나 지도에 있어서 연계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 기존에도 대학별로 교수 상담을 필수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도 했지만, 교수 업적평가와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교수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교수입장에서 상담기법이나 취업정보를 센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담이나 지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과 상담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적으로 교수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상담시간과 상담의 범위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다. 상담 및 지도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학일자리센터와 학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전공과 관련한 진로에 대해서는 교수가 전문성을 가지지만, 취업정보, 학생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과 학교생활 상담을 담당하는 교수와 진로취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대학일자리센터, 그리고 학교운영본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학일자리센터가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있어서는 센터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학과 관련 진로상담 및 교과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교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다만, 양자간 긴밀한 연계,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공동교육이나 워크숍 기회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적평가에 있어서 취업률보다 교수 개인별 취업지도, 상담, 관련 교육 이수 및 워크숍 참여와 같은 실적이 비중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업적평가 시스템 개편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학과와 센터간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학과 내 교수들간의 정보량의 격차도 학생 상담과 진로지도에 있어서 성과의 균질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한 교수의 기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제기한 소통과 학습의 기회로써 센터와 학과 간 공동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수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수-학생 상담 및 멘토’ 프로그램을 상담사와 교수에 적용하는 방안이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안되기도 했다.

“현재는 교수-학생간 일대일 상담 및 멘토 등 교수 주도의 진로 및 취업상담 등

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교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교수의 기본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이 요구됨. 예를 들어 ‘교수-학생 상담 및 멘토’ 프로그램과 유사한 ‘교수-취업기관 담당자 상담 및 멘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교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및 경력관리시스템

가.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 실무책임자와 컨설턴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진로와 취업 관련 서비스를 센터가 중심으로 제공하게 된 점이다. 특히 단과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가 대일센터를 중심으로 체계화, 전문화, 강화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들이다.

기존에 고학년 중심으로 설계된 진로, 취·창업 서비스는 실제 참여자 또한 고학년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서비스 대상범위를 저학년으로 확대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저학년부터 진로지도 서비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제공하는 양질의 커리큘럼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직무별 특강을 수강할 수 있었고,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에 받지 못했던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기업분석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저학년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진로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된다.

학생상담과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프로그램과 정보의 편중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공계열, 상경계열의 중심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가 중심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 유아교육 등과 같이 자격증 중심의 진로를 가지는 학과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

다. 이와 같은 계열의 학과에서는 특히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다양한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프로그램 기획과 커리큘럼 마련에 있어서 학과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그 밖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진로 전망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선택권 확장의 관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의 아쉬움도 있다. 교과 프로그램은 커리큘럼 변경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지만 대체로 교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담당자 입장에 있어서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취업에의 의지와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의지를 심어주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점에서 진로에 대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보다 필수 교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직업심리검사 의무 실시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후 필수 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의 연계도 필요하다. 진로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취업 역량은 취업 후 전개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로교과목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은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과 프로그램은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각각에 대한 주체별 역할을 규정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만, 교수방법과 커리큘럼 등에 있어서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과 운영상의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문대의 경우 짧은 재학기간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학과 외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취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 등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진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외에 ‘자존감 수업’과 같은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 및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술발전,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학, 기업,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 경력관리시스템과 진로취업 로드맵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와 동시에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여 또는 권고되고 있다. 각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관리 시스템들을 경력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거나 시스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로, 취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 졸업생의 노동시장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재학시절의 정보, 즉 전공, 대학 내 성과(학점 등),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각종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축적하고, 이를 실제 취업정보와 연계함으로써 인적 특성별 진로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재학기간 중의 진로 취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대학일자리센터 이전의 관련 대학 기구들이 고학년의 취업지원에 치중한 것과 달리 저학년부터 진로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졸업 시 또는 졸업 이후 일정기간 까지도 커버하는 진로 취업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로취업 로드맵 수립과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졸업생의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재학생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해지고, 취업관련 정보 공유와 유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대학별 상이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고,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진로취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중요한 기능으로 꼽힌다. 이는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맞

게 실무특강 및 취·창업 특강 같은 강좌 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부 전공 별 향후 취업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병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취업 로드맵에 입각하여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대학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 보다 엄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입각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어떻게 높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제시가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학과마다 학생들의 전공이 다르고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대학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타 서비스(상담)

상담기능이 강화된 것이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격증, 어학성적, 필기시험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상담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경험도 포착할 수 있었다. 심리상담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 객관화가 가능했다는 이용자의 만족감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용을 부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학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상담사의 역할이 직접적인 진로, 취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언제라도 찾아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도 얻기도 하고, 학교 안팎의 생활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제기되는 아쉬움도 있다. 한 대학 이용자의 경우 대학일자리센터 상담 횟수가 학생당 한 학기별로 제한이 있어서 상담의 욕구가 큰 이용자의 경우 제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본격적인 면접기간에는 상담 대기 기간이 길어서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사의 증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공이나 적성에 따라 민간기업 외에 복지관, 교육기관, 보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욕구도 표출된다. 따라서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인력 보강, 다양한 상담 욕구 충족을 위한 상담 범위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지역고용 거버넌스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역고용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대상별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직은 짧은 운영기간을 고려할 때, 센터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해당 대학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는 해당 대학 졸업생 정도로까지 확장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학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보다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터뷰를 통해서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 센터의 경우는 거버넌스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차원의 대학과 협업이 가능한 구조이고, 또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내 프로그램 운영에 몰두하면서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역할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타 대학 재학생, 졸업생, 기타 지역 청년의 이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다. 오프라인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용에 있어서도 비 재학생의 경우 접근에 제약을 받기 쉽다. 소속 대학생의 경우 홈페이지나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이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지만 외부인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워크넷을 통한 타 대학 상담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인데다 프로그램 신청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학생과 비재학생 간 정보 접근성의 격

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역할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아웃리치 활동을 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접근에의 문턱은 그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의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대학은 많지 않다. 지역 거버넌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기관 등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한데, 대학보다는 고용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차원에서 고용센터가 청년고용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어 지역내 대학일자리센터로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일자리센터와 고용센터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비 재학생 등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고용센터가 담당하되, 필요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거버넌스 역할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소형 센터의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여 일정부분 역할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한다.

고용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일자리센터와의 관계 문제이다. 두 기관간의 소통이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이지만, 고용센터가 대학일자리센터의 감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용센터가 대학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업 접촉은 고용센터가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두 기관 간 수평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4.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와 컨설턴트, 그리고 전체 사업을 총괄운영하고 있는 한국고

용정보원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시행 및 예산지원 주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논의 되었다. 먼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초기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업 지침을 부과하려고 한다거나, 주기적인 보고와 단기적 성과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이 취업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님에도 단기적인 취업 실적을 요구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내 취업을 성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취지와 이용자들의 욕구와 이해와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들로 부터 요구받는 실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지원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 요구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사업 초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고,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성과를 인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고용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나. 성과 평가

대학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맡은 담당자는 성과평가는 성과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규모별(대형, 소형) 대학일자리센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로 인해 대학별 여건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평가지표 상의 모범사례를 기준으로 운영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정량지표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 운영으로는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원치 않는 기업을 소개하는 취업박람회 개최, 보여주기식 행사 진행,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사동원 등은 진로 및 취업지원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가장 특징적이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그 조기화에 있는데, 진로지도의 경우 양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권고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그에 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담당 직원 및 컨설턴트 증원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 대학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진로 중심의 로드맵 구성과 이에 필요한 진로지도 인력 보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정 인력 수 확보를 위해 학생 대비 컨설턴트 적정 인원 수에 대한 기준이 제공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향후 대학일자리센터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의 후속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과 평가에서 이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지난 수 년 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대학 및 이용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 5 장

대학진로취업 인프라 정책효과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정책효과 분석 결과

제2절 대학일자리센터 개선방안

제3절 대학일자리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5

대학 진로취업 인프라 < 정책효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

제1절 대학일자리센터 정책효과 분석 결과

우리 연구는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운영중인 대학일자리센터 성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분석은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목적인 진로 및 취·창업 기능의 일원화, 청년에 대한 역량강화, 지역기반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과분석틀은 네가지로 첫째,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 효과, 둘째,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 셋째, 청년고용 및 경력개발서비스 효과, 넷째, 지역청년 거버넌스 및 서비스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정량적 분석의 최종 성과물 지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기초로 하였다.

첫째, 고용지원 인프라 조성효과를 보면, 컨소시엄 구성에서 2016~2017년에는 컨소시엄 형태가 많았지만, 2018년에는 자체 운영 학교가 41.6%로 증가하였다.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자체적 인력을 통해 진로 및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공식적인 조직과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진로 및 취·창업 업무를 학내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식협의체 혹은 부서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에 월등히 높았다. 이외에 전담 직원, 진로지도 교수제 및 관련 지도체계 운영을 위한 맵 등 진로, 취·창업 인프라를 위한 지원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종합경력개발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서비스(교내 통합정보 제공, 학생 맞춤형 선별적 정보체계 제공, 상담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등)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제공 효과를 보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

비스 시행에 있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 및 취업서비스에의 참여 인원에서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고,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 활성화 방안으로 의무화, 장학금 등 인센티브 지원, 원스톱 공간 제공 및 관련 자료 제공, 부서 간 협업 강화, 학생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는 재학생들의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의 학생 인지도는 고용정보원 자료를 기초로 2016년 중위 기준 40.2점에서 2018년에는 43.9점과 47.0점으로 증가했다, 향후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필요한 점은 적극적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지도 및 만족도 상승이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인지 제고와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들의 개발 및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청년고용, 경력개발서비스 및 지역거버넌스 효과를 보면, 먼저 청년고용, 경력개발서비스 측면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설립된 이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양적으로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나듯이 상담은 늘었지만, 학생들 특성을 고려한 심층상담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상담서비스 제공 시 연간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을 위한 심층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 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한 정규교과목 및 비교과목에 대한 학생 참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생기면서 학교내 임직원은 물론 학생들 역시 진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정규교과목 및 비교과목에 대한 개설이 늘어나고, 학생 참여를 대부분 의무화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비교과목에서는 참여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양적으로 학생 참여를 늘리기 보다는 비교과목에서 소규모 그룹을 만들고 학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비교과목 차원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의지 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일자리센터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 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인 평가항목도 중요하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거버넌스 관련 결과를 보면 1~3년 지속 참여 대학을 기준으로, 대학당 평균 2016년 910명에서 2018년에는 1,577명으로 두배 가까이 지역청년의 서비스 참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 재학생의 참여도에서는 다소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속에서도 대학특성별로 보면, 대학규모가 중간그룹, 4년제, 국공립 대학에서 타대학 학생의 서비스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기관과의 협업수준을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에 비해 지역거버넌스와의 협업 및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역네트워크와의 참여도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고용센터, 지자체 포함 지역협의 기구 등과 연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지표에도 지역거버넌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대학일자리센터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 간, 대학 및 행정 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화된 진로, 취업 및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GI 등을 통해 보면 일부는 형식적으로 지역거버넌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지역거버넌스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 주체가 누가되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의 2016년 대비 2018년 취업률이 증가하였으며, 대형에 비해 소형사업 참여 대학의 취업률이 다소 높았다. 대학공시자료를 활용해 비교를 해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2016년 51.9%에서 2018년 64.1%로 증가한 반면에 대학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은 취업률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았으며, 센터가 있는 대학에 비해 소폭이지만 낮은 취업률을 보여주었다. 고용유지율을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고용유지율이 2017년과 2018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지율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에서 좀 더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로 및 취·창업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상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요구 등을 보면, 먼저 애로사항 등에 있어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없

는 곳에 비해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표 참조). 예를 들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직무역량 강화 등 조사항목 대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높지 않았다. 다소 센터가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에 비해 애로사항이 높은 부문은 전공 관련 일자리 규모가 적다는 부문과 학생들의 취업 의지 및 눈높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이 부문에 다시 생각해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직원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분석하는데 있어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노력만큼 학생들이 취업의 지를 높이 가지기를 바라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인프라, 학생을 위한 서비스,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 여러 항목에서 우수했지만, 아직은 구축된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인프라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2절 대학일자리센터 개선방안

지금까지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지난 3년 간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과분석을 통해 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생긴 이후 참여 대학들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던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가 대학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관련 인프라가 점차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학생들의 관심 역시 증가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부족한 점은 외연상 그리고 양적으로는 대학내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아직 교수 혹은 재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거나 체화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보면, 2~3년제 대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대학은 취업률이 높았으며, 5천명 이상의 규모가 있는 대학은 고용유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소규모 대학은 양적인 확대에 관심을 중규모 이상의 대학은 취업률과 더불어 학생 적성에 부합되는 진로 및 취·창업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 청년들의 적성에 부합되는 진로교육, 체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취업률과 더불어 고용

유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대학의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업률과 더불어 내적인 진로교육 등에도 더 노력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일자리센터의 긍정적 측면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문은 개선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서는 대학과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 주체(학교당국 및 교수,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졸업생·타대생 및 지역청년, 평가 및 교육주체)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 및 청년들의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에 있어 대학과 교수들의 변화가 중요하다. 평가를 위한 일시적인 조직 개편이 되어서는 안되며, 교수들 역시 과거와 같이 학문중심의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조직 개편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5년 이내에 20대 이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하고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체계는 대학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대학 조직 내에서 대학일자리 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고용노동부 평가를 통해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학내 주요 회의체, 조직 등에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현재 평가에서는 협의체 운영정도 반영)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로 및 취·창업 교육에서 각 학과 교수들의 역할은 중요한 부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들의 경우 학문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학문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학생상담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과 진로교육이 되도록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교수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센터 직원 혹은 컨설턴트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화 교과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규교수가 임용되거나 단대별 혹은 학과별 교수 워크숍 등이 진행될 때, 센터 직원이 단시간이라도 참여하여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창업, 상담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진로전담 교수제가 아닌 학생 중심의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학과교수들과 센터 직원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교수 등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일자리센터와 관련 하여 보면 첫째, 매년 평균적으로 만명 이상 이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상담 건수보다는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심층상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평가변수에서 2회 이상 상담 횟수를 평가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심층상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거나 제안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는 성과분석 결과 단순히 취·창업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재학생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필요시 대학내(상담소 혹은 상담센터 등) 혹은 다른 기관과(보건소, 정신보건, 청소년 및 청년보호 기관 등)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학일자리센터 직원 및 컨설턴트의 역량은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기본부터 심층 단계까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심도 깊은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⁶⁾. 외부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연수원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관련 심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컨설턴트 지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컨설턴트 등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화 추진을 통해 직업안정성을 제공하고, 기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컨설턴트 자리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부가적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동일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안정적 지위 유지는 센터 상급자의 판단과 지원 역시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상급자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생 및 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편과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 취·창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참여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대규모 설명회 및 행사가 많이 있었다. 성과분석을 통해 보면, 학생들 특성에 따라 진로, 취업 및 창

6) 현장의 컨설턴트 등이 원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 방안은 우리 보고서 p97(인력)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제도 개선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업 등의 교과목에 참여하는 학생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3년제 대학은 창업보다는 취업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은 취업과 창업에 참여인원이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생규모, 대학 특성에 따른 진로, 취·창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화, 집중화, 소그룹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을 위한 지원이외에 학과, 교수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고용정보원, 진로교육 기관 등에서 학과별 진로 및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점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학과 등을 방문하여 사회 및 진로 변화 등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대학일자리센터 간 평가를 통해 좋은 (정규 및 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를 거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성과와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에 전파하고 알린다는 점에서 추가적 예산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창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단발성 대규모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취·창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창업 정보는 기업 중심 특히 대기업 등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공에 따른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취업이 아닌 진로(대학원 진학 등)를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무원, 공공기관은 물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의원, 복지관 등 다양한 사업체를 소개하는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과 협업(지역거버넌스 체계)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서 학생 및 청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즉 정보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앞에서 설명한 학생을 위한 전문화, 집중화, 소그룹화 된 교과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대학내 소외된 학생 등을 찾거나 발굴하여 관련 진로 및 취·창업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학교내에서 소외되고 취약한 학생은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함에도 언제든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단대 혹은 학과 등과 협업, 주변 선배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이들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및 적성에 부합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밖에서 소외된 청년은 고용센터, 주변 대학 및 민간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계획, 평가 및 교육주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먼저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방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 정부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대학내에서 진로 및 취·창업을 위한 주요 기능과 정부정책을 학생 및 청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성과를 확산하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이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주기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매년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를 위한 교육,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와 컨설턴트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심도 깊은 교육과정(특히 컨설턴트 대상)까지 제공되고 있다.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과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욕구를 보면,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위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체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정보원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인력으로 평가 및 컨설턴트 그리고 다시 교육과정 운영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를 위한 심도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상담기관, 진로교육 담당 기업 혹은 업체 등)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부터 심화까지 센터 참여자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청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소형과 대형, 사업참여 연차별로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업이 체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평가가 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의 평가가 양적 평가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질적 평가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는 단기간에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평가체계를 이원화하여 대학일자리센터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기간이 짧거나, 새롭게 대학일자리센터에 참여한 대학은 2~3년 간 매년 평가를 통해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해 양적 평가를 현재와 같이 수행하도록 한다. 반면 향후 2단계로 진행될 대학으로 1단계 참여과정에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 대학은 평가부담을 줄이고 질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격년 혹은 사업참여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반면 평가결과가 계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생 및 청년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대학내 부족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성과 있는 대학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정보원은 중요하고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평가 및 컨설턴트, 교육 체계 등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편 과정에서 고용정보원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대학일자리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이하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발전방안과 더불어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대학일자리센터가 유지된다면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발전 방안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당 최대 5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⁷⁾. 향후 2021년을 기점으로 사업초기에 선정된 일부 대학이 지원종료 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달체계

7) 향후 2021년 30개 대학, 2022년 31개 대학 등 점진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의 유지와 구축된 대학의 인프라 활용 등을 위해 지원종료 대학 중 우수 대학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분석결과 대학일자리센터가 도입 된 이후 대학 자체의 변화를 유도한 것은 물론 재학생 및 지역청년을 위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에 있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과지표로서 취업률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은 2016년 51.9%에서 2018년 64.1%로 증가하였으며, 고용유지율 역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이 일자리센터가 없는 대학에 비해 2017년과 2018년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양적 지표의 성과이외에도 질적으로도 대학 구성원들이 진로, 취·창업서비스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성과를 토대로 기능개편을 통한 후속사업을 도입하여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성과분석에서 나오듯이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목적보다는 정부사업 수행 혹은 부족한 예산(인건비, 경영비 등) 지원정도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대학과 지원 종료대학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추가지원 대학의 선발은 이미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가 도입된 초기부터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평가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추가 지원에 대한 평가는 대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구성된 평가단(정부+고용정보원+외부전문가 등)이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적 평가자료는 이미 축적된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최대 5년간) 성과를 외부평가단이 평가하고, 동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정성평가(실사, 면담 등)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평가단에서 설정)을 넘어서면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종료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주축으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성, 과학성, 형평성, 중복성(지역내 타 기관 유사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평가되도록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추가지원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대학일자리 센터 규모는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2019년 기준 대학일자리센터는 105개로 전국 대학교(일반 및 전문대학) 대비 32.0% 수준이다⁸⁾. 대학 세 곳 중 한 곳에서 대학

일자리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근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 규모는 대학 세 곳 중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시 대학일자리센터의 추가적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⁹⁾. 향후 저출산 심화로 인해 학령 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대학 입학가능 인구도 입학정원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대학에 대해 대학일자리센터를 설립하기 보다는 지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대학을 대신하여 신규대학이 대학일자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 LINK+사업에서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부진한 대학은 지원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규대학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의 지원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용욱, 2017).

〈표 5-2-1〉 전국 대학교 개소

(단위: 개소)

연도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1999	319	161	158
2000	319	158	161
2005	331	158	173
2010	324	145	179
2015	327	138	189
2016	327	138	189
2017	327	138	189
2018	328	137	191
2019	328	137(26개, 19.0%)	191(79개, 41.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후속사업 수행시 우려되는 점은 기존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의 경우 자칫 그동안 쌓

8) 대학일자리센터 지원대학에서 제외되는 보건계열 대학, 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이 제외되면 실제 비율은 더 상승하게 된다.

9) 교육부 추산 향후 대학입학가능자원 전망을 보면 현재 대학입학 정원은 약498천명수준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한 인구규모는 2019년 526천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입학정원보다 적은 479천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입학이 가능한 인구규모는 더욱 줄어들어 2024년 373천명까지 줄어들어 입학가능인구의 감소는 대학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내년대학정원-대입자원, 2019.08.11.; 2019.11.20인출)

여운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의 기능이 크게 축소 혹은 위축 될 수 있다.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취·창업 서비스를 약화시키기는 어렵지만, 탈락 대학은 다른 기능 혹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 센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학일자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한 일정기간 대학일자리센터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역량진단을 위한 일반 대학 및 전문대 평가항목 중 하나로 학생지원 부문에 진로·심리 상담지원, 취·창업지원 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항목과 유사한 평가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학일자리센터의 일부 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후속 사업이 기존 사업과 연속성 상에서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평가와 컨설팅,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후속 사업에서는 대학 역량강화와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거점 및 중점대학과의 협업 체계 구축),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전문 및 심화 교육), 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생애주기별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 지원, 소외, 미진학 청년 발굴 및 진로, 취·창업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사업 수행 보다 인력, 재원 등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역할제고 방안

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강화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 센터 설치이후 외형적인 체계,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학생은 물론 지역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이 좀 더 고도화 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한 기능인 재학생은 물론 넓게는 졸업생을 포함한 지역청년을 위한 진로, 취·창업 서비스 지원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재

학생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홍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과분석에서 보면, 정규교과목과 더불어 비교과목에서의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의 학년과 전공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근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웹서비스(스마트 폰 웹, 유튜브 등)에 대한 개발과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웹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알람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취·창업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과분석과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이 선배나 졸업생 등을 통한 진로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 자치기구나 활동(동아리, 학생회 활동 등) 등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거나 학생 옴부즈만 혹은 도우미 제도 등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일자리센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센터 직원 및 컨설턴트 등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직원 및 컨설턴트에 대한 교육은 호응도 좋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고도화되고 전문성 있는 상담과 지원을 위해서는 센터 관계자 등에 대한 역량강화가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고용정보원의 기능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의 교육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질 좋은 양질의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직업적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업무에 투입되는 등 비 전문적인 일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컨설턴트 고유 업무가 명확히 해 질 필요가 있으며, 대학당국에서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성과분석에서 진로 및 취·창업 서비스가 정규 혹은 비교과목 형태로 지원되고, 참여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와 같이 대규모 강당에 모여 교육

하는 집합교육 보다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욕구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진로, 취·창업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업비의 사용비율에 대한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35~50%, 프로그램비가 총 사업비의 45~60%로, 운영비가 5%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점차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프로그램비에 대한 비중으로 좀 더 대학 자율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부여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나. 대학일자리센터 역할 제고 방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대학의 후속 사업에서는 동 대학들이 중점·거점대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일자리센터를 고도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의 지향점은 지역거버넌스 기능 확대, 학생 자율적 참여 및 (자체)평가기능의 확대,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소외 청년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비 거점 대학에 대한 지원 등에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연구한 바가 있는 이철선 외(2016)의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학 자체 역량 강화 → 지역거점 역할 → 지역 거버넌스 확충”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는 기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가 폐지되고 대학일자리센터로 통합되는 목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중점·거점대학의 규모는 광역 및 도단위로 설정하도록 하며, 이들의 기능은 단순히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메신저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들 대학에 대한 추가적 예산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¹⁰⁾.

10) 중점·거점대학의 위상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통한 논의구조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대학의 특성상 특정대학이 중점·거점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주변의 다른 대학들이 이에 순응하고 협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반적 전달체계속에서 중점·거점 대학이 주변 대학보다 상위에서 진로,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학들은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구조라는 점에서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단위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지역내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 대학과의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만·관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는 물론 센터 팀장급과 지역사회 진로 및 취·창업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내 주요 사항, 좋은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역내 우수한 사례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다른 조직들과의 사례를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도 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협의회 구성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구분하여 공개회의에는 학생이나 지역 청년들도 옵부즈만 혹은 모니터 요원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필요시 중앙정부(고용정보원 포함), 거점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협의회(분기 혹은 반기별 정례회의, 수시회의 등) 등을 두고 주기적 협의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 구성시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임무는 현재 각 대학별로 분절적, 형식적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취업 혹은 창업박람회 등을 공동주최, 개최하고 지역사회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질적 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지역거버넌스 확대 과정에서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대학일자리센터의 향후 미래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진로취업·창업 중장기 운영 방향설정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발전방안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학일자리센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취·창업지원이 진로교육에 포함되어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셋째는 평생교육, 평생 진로 및 취·창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로드맵 마련은 중앙기구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중심 계획 속에서 각 대학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 관련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차 사업이후 평가를 통해 사업내외적인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골라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일자리센터 고도화 단계에서는 학생 및 교수 욕구에 부합된 다양한 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제공, 정보·상담·상담 제공(원스톱 서비스 등), 찾아오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홍보, 컨설턴트·상담사 등

의 역량 강화, 학생참여 및 평가 기능 확대, 지역 및 소외 청년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일자리센터가 기존 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후속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고용부와 교육부, 고용안정센터와 지방교육청 간의 대학내 및 대학 졸업 이후 진로·취업·창업 역할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되게 진로·취업·창업에 대해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마련, 예산의 확대, 전달체계 검토, 성과평가체계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혹은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진로교육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진로교육법 14조에서는¹¹⁾ 고용노동부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나, 진로만 명시하고 있으며 취·창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진로교육법에 취·창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진로교육 참여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진로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변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 및 사회변화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진로교육은 단순히 대학생활 동안만 영향을 주는 아니라 국민 개개인 삶의 생애주기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로교육이 단순히 학교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평생(혹은 생애주기) 진로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진로교육이 초·중고와 대학 등 학교가 중심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진로교육은 이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혹은 대학 졸업이후의 기업내 및 산업현장 속의 국민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취업→실업→은퇴후→고령기 등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평생진로 방향을 계획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구감소시기에 대학 역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생애주기 진로교육의 주요한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¹²⁾.

11) 진로교육법 14조(대학의진로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진로·취업·창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활용).

12) 싱가포르의 SIM대학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자 진로, 취·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진미석, 2018, p126)

참고문헌 <

<

- 고용노동부. (2018).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14).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종합컨설팅 매뉴얼.
- 김대중. (2018).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
- 김동철·김정원. (2015). 지역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방안: 강원대학교 LINC 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HRD연구 17(2), 213-238.
- 김태운·김태영. (2016).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시론적 고찰. 기술혁신학회지 19(1). pp105-136.
- 변정현 외. (2017).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역량 및 소규모 대학 진로·취업지원 역량 강화방안.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백원영. (2019).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13회 청람교육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미, 임은혁 외. (201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4).
- 이승렬 외(2015). 청년층 직업훈련 참여 및 취업활성화 방안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이용욱.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The HRD review 2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철선 외. (2016).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철영 외(2019). 진로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개념적 모형 개발. 진로교육연구 32(3)
- 진미석(2018). 진로 및 취·창업지원 해외대학 우수사례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19).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위원회 워크숍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8a). 청년고용대책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한국고용정보원. (2018b). 대학일자리센터 우수활용 사례집.
- 한국고용정보원. (2016). 2016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기본2017-19.
- 현우영·고재성. (2017). 대학일자리센터의 성과와 발전방향, 고용이슈 11월호, 31-51.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원자료
연합뉴스, 내년대학정원-대입자원, 2019.08.11.; 2019.11.20.인출)

부록1.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기초분석

- 이하에서 분석한 내용은 대학 진로취업 지원실태조사(220개 대학) 결과 중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추가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되는 표의 제목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음

<부표 1>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취업교과목 현황은 어떠합니까?－ [개설된 경우] 1) 진로취업 관련 교양필수 대상학년(복수응답)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7.2	41	63.8	30	34.0	16	29.8	14	70.4	38	64.8	35	53.7	29	50.0	27
재학생 규모	5,000명 미만	100.0	12	66.7	8	25.0	3	8.3	1	75.0	30	65.0	26	50.0	20	42.5	17
	5,000~10,000	84.0	21	64.0	16	36.0	9	28.0	7	50.0	5	80.0	8	70.0	7	80.0	8
	10,000이상	80.0	8	60.0	6	40.0	4	60.0	6	75.0	3	25.0	1	50.0	2	50.0	2
대학유형	일반대학	83.8	31	62.2	23	32.4	12	35.1	13	69.0	20	55.2	16	48.3	14	62.1	18
	전문대학	100.0	10	70.0	7	40.0	4	10.0	1	72.0	18	76.0	19	60.0	15	36.0	9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	83.3	5	66.7	4	16.7	1	33.3	2	60.0	3	60.0	3	60.0	3	40.0	2
	사립	87.8	36	63.4	26	36.6	15	29.3	12	71.4	35	65.3	32	53.1	26	51.0	25

<부표 2>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취업교과목 현황은 어떠합니까?－ [개설된 경우] 2) 진로취업 관련 교양선택 대상학년(복수응답)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4.1	58	85.5	59	79.7	55	79.7	55	82.6	76	84.8	78	70.7	65	65.2	60
재학생 규모	5,000명 미만	80.0	16	85.0	17	60.0	12	60.0	12	83.6	51	85.2	52	62.3	38	55.7	34
	5,000~10,000	83.3	25	83.3	25	90.0	27	86.7	26	76.2	16	81.0	17	81.0	17	81.0	17
	10,000이상	89.5	17	89.5	17	84.2	16	89.5	17	90.0	9	90.0	9	100.0	10	90.0	9
대학유형	일반대학	81.8	45	85.5	47	87.3	48	90.9	50	76.4	42	81.8	45	87.3	48	92.7	51
	전문대학	92.9	13	85.7	12	50.0	7	35.7	5	91.9	34	89.2	33	45.9	17	24.3	9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	84.6	11	76.9	10	69.2	9	69.2	9	85.7	12	71.4	10	71.4	10	64.3	9
	사립	83.9	47	87.5	49	82.1	46	82.1	46	82.1	64	87.2	68	70.5	55	65.4	51

<부표 3>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취업교과목 현황은 어떠합니까?－ [개설된 경우] 3) 진로취업 관련 전공필수 대상학년(복수응답)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2.5	15	75.0	18	75.0	18	83.3	20	60.0	15	48.0	12	60.0	15	36.0	9
재학생 규모	5,000명 미만	44.4	4	66.7	6	55.6	5	66.7	6	55.6	10	50.0	9	66.7	12	33.3	6
	5,000~10,000	76.9	10	76.9	10	84.6	11	92.3	12	75.0	3	75.0	3	50.0	2	50.0	2
	10,000이상	50.0	1	100.0	2	100.0	2	100.0	2	66.7	2	0.0	0	33.3	1	33.3	1
대학유형	일반대학	64.7	11	64.7	11	70.6	12	94.1	16	63.6	7	27.3	3	45.5	5	45.5	5
	전문대학	57.1	4	100.0	7	85.7	6	57.1	4	57.1	8	64.3	9	71.4	10	28.6	4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	50.0	1	50.0	1	50.0	1	100.0	2	100.0	1	100.0	1	100.0	1	0.0	0
	사립	63.6	14	77.3	17	77.3	17	81.8	18	58.3	14	45.8	11	58.3	14	37.5	9

<부표 4>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취업교과목 현황은 어떠합니까?－ [개설된 경우] 4) 진로취업 관련 전공선택 대상학년(복수응답)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7.7	21	74.2	23	83.9	26	77.4	24	59.5	22	73.0	27	64.9	24	59.5	22
재학생 규모	5,000명 미만	81.8	9	90.9	10	63.6	7	63.6	7	56.7	17	73.3	22	63.3	19	60.0	18
	5,000~10,000	66.7	8	75.0	9	91.7	11	83.3	10	80.0	4	80.0	4	60.0	3	60.0	3
	10,000이상	50.0	4	50.0	4	100.0	8	87.5	7	50.0	1	50.0	1	100.0	2	50.0	1
대학유형	일반대학	52.4	11	61.9	13	90.5	19	95.2	20	43.8	7	50.0	8	68.8	11	93.8	15
	전문대학	100.0	10	100.0	10	70.0	7	40.0	4	71.4	15	90.5	19	61.9	13	33.3	7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	50.0	3	50.0	3	66.7	4	66.7	4	100.0	4	75.0	3	50.0	2	50.0	2
	사립	72.0	18	80.0	20	88.0	22	80.0	20	54.5	18	72.7	24	66.7	22	60.6	20

<부표 5>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1) 진로취업상담(교수)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8.9	64	90.3	65	88.9	64	97.2	70	81.1	77	88.4	84	81.1	77	77.9	74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6.4	19	86.4	19	77.3	17	90.9	20	83.1	59	90.1	64	83.1	59	80.3	57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88.2	30	91.2	31	94.1	32	100.0	34	82.4	14	94.1	16	82.4	14	58.8	10
	10,000명 이상	93.8	15	93.8	15	93.8	15	100.0	16	57.1	4	57.1	4	57.1	4	100.0	7
대학종류	4년제	87.5	49	87.5	49	89.3	50	100.0	56	73.9	34	78.3	36	76.1	35	93.5	43
	2~3년제	93.8	15	100.0	16	87.5	14	87.5	14	87.8	43	98.0	48	85.7	42	63.3	31
대학유형	국공립	91.7	11	91.7	11	83.3	10	91.7	11	90.9	10	90.9	10	81.8	9	63.6	7
	사립	88.3	53	90.0	54	90.0	54	98.3	59	79.8	67	88.1	74	81.0	68	79.8	67

<부표 6>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2) 진로취업상담(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3.9	77	93.9	77	90.2	74	95.1	78	87.6	99	91.2	103	90.3	102	83.2	94
대학규모	5000명 미만	91.3	21	91.3	21	78.3	18	82.6	19	88.0	66	92.0	69	89.3	67	80.0	60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94.7	36	94.7	36	94.7	36	100.0	38	92.3	24	96.2	25	96.2	25	84.6	22
	10,000명 이상	95.2	20	95.2	20	95.2	20	100.0	21	75.0	9	75.0	9	83.3	10	100.0	12
대학종류	4년제	92.2	59	92.2	59	92.2	59	100.0	64	88.2	60	89.7	61	92.6	63	100.0	68
	2~3년제	100.0	18	100.0	18	83.3	15	77.8	14	86.7	39	93.3	42	86.7	39	57.8	26
대학유형	국공립	92.9	13	92.9	13	85.7	12	92.9	13	93.3	14	93.3	14	86.7	13	73.3	11
	사립	94.1	64	94.1	64	91.2	62	95.6	65	86.7	85	90.8	89	90.8	89	84.7	83

<부표 7>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3) 진로취업 상담에 대한 상담이력 관리 및 다회기 상담 제공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1.3	63	94.2	65	92.8	64	98.6	68	90.6	77	92.9	79	89.4	76	82.4	70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4.2	16	89.5	17	84.2	16	94.7	18	92.5	49	96.2	51	90.6	48	77.4	41
	5000명 이상	90.9	30	93.9	31	93.9	31	100.0	33	95.7	22	95.7	22	95.7	22	87.0	20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00.0	17	100.0	17	100.0	17	100.0	17	66.7	6	66.7	6	66.7	6	100.0	9
대학종류	4년제	90.9	50	92.7	51	92.7	51	100.0	55	89.6	43	89.6	43	89.6	43	100.0	48
	2~3년제	92.9	13	100.0	14	92.9	13	92.9	13	91.9	34	97.3	36	89.2	33	59.5	22
대학유형	국공립	90.9	10	90.9	10	90.9	10	100.0	11	100.0	11	100.0	11	90.9	10	63.6	7
	사립	91.4	53	94.8	55	93.1	54	98.3	57	89.2	66	91.9	68	89.2	66	85.1	63

<부표 8>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4)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1.2	62	92.6	63	92.6	63	98.5	67	89.7	70	92.3	72	91.0	71	84.6	66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9.5	17	89.5	17	89.5	17	94.7	18	88.0	44	92.0	46	90.0	45	82.0	41
	5000명 이상	88.6	31	91.4	32	91.4	32	100.0	35	100.0	19	100.0	19	100.0	19	84.2	16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00.0	14	100.0	14	100.0	14	100.0	14	77.8	7	77.8	7	77.8	7	100.0	9
대학종류	4년제	90.6	48	92.5	49	92.5	49	100.0	53	91.1	41	91.1	41	93.3	42	100.0	45
	2~3년제	93.3	14	93.3	14	93.3	14	93.3	14	87.9	29	93.9	31	87.9	29	63.6	21
대학유형	국공립	92.3	12	92.3	12	92.3	12	100.0	13	91.7	11	91.7	11	83.3	10	75.0	9
	사립	90.9	50	92.7	51	92.7	51	98.2	54	89.4	59	92.4	61	92.4	61	86.4	57

<부표 9>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5)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진단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4.8	73	94.8	73	88.3	68	90.9	70	89.7	105	81.2	95	76.1	89	70.1	82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6.4	19	90.9	20	72.7	16	81.8	18	88.9	72	790.0	64	71.6	58	64.2	52
	5000명 이상	97.2	35	94.4	34	91.7	33	94.4	34	96.2	25	88.5	23	88.5	23	76.9	20
	10,000명 미만	97.2	35	94.4	34	91.7	33	94.4	34	96.2	25	88.5	23	88.5	23	76.9	20
	10,000명 이상	100.0	19	100.0	19	100.0	19	94.7	18	80.0	8	80.0	8	80.0	8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95.0	57	95.0	57	91.7	55	96.7	58	92.4	61	87.9	58	84.8	56	90.9	60
	2~3년제	94.1	16	94.1	16	76.5	13	70.6	12	86.3	44	72.5	37	64.7	33	43.1	22
대학유형	국공립	92.9	13	92.9	13	85.7	12	92.9	13	94.1	16	94.1	16	88.2	15	76.5	13
	사립	95.2	60	95.2	60	88.9	56	90.5	57	89.0	89	79.0	79	74.0	74	69.0	69

<부표 10>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6) 전공별 진로·진출분야 안내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3.0	66	93.0	66	90.1	64	93.0	66	84.7	72	90.6	77	82.4	70	82.4	70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5.0	17	90.0	18	85.0	17	90.0	18	83.0	44	92.5	49	79.2	42	75.5	40
	5000명 이상	93.8	30	90.6	29	87.5	28	90.6	29	95.0	19	95.0	19	95.0	19	90.0	18
	10,000명 미만	93.8	30	90.6	29	87.5	28	90.6	29	95.0	19	95.0	19	95.0	19	90.0	18
	10,000명 이상	100.0	19	100.0	19	100.0	19	100.0	19	75.0	9	75.0	9	75.0	9	100.0	12
대학종류	4년제	92.9	52	91.1	51	91.1	51	96.4	54	88.2	45	88.2	45	90.2	46	100.0	51
	2~3년제	93.3	14	100.0	15	86.7	13	80.0	12	79.4	27	94.1	32	70.6	24	55.9	19
대학유형	국공립	90.9	10	90.9	10	90.9	10	100.0	11	92.3	12	92.3	12	84.6	11	76.9	10
	사립	93.3	56	93.3	56	90.0	54	91.7	55	83.3	60	90.3	65	81.9	59	83.3	60

<부표 11>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7)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1.3	73	90.0	72	81.3	65	86.3	69	84.3	97	86.1	99	80.9	93	78.3	90
대학규모	5000명 미만	91.7	22	83.3	20	70.8	17	70.8	17	82.9	63	84.2	64	78.9	60	75.0	57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91.7	33	94.4	34	86.1	31	91.7	33	92.6	25	92.6	25	85.2	23	77.8	21
	10,000명 이상	90.0	18	90.0	18	85.0	17	95.0	19	75.0	9	83.3	10	83.3	10	100.0	12
대학종류	4년제	88.5	54	90.2	55	83.6	51	91.8	56	84.3	59	87.1	61	85.7	60	92.9	65
	2~3년제	100.0	19	89.5	17	73.7	14	68.4	13	84.4	38	84.4	38	73.3	33	55.6	25
대학유형	국공립	92.9	13	92.9	13	85.7	12	92.9	13	87.5	14	93.8	15	87.5	14	75.0	12
	사립	90.9	60	89.4	59	80.3	53	84.8	56	83.8	83	84.8	84	79.8	79	78.8	78

<부표 12>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8) 경력개발계획 수립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3.2	55	89.8	53	83.1	49	86.4	51	91.9	57	87.1	54	79.0	49	77.4	48
대학규모	5000명 미만	75.0	12	68.8	11	56.3	9	68.8	11	91.4	32	82.9	29	71.4	25	68.6	24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100.0	29	96.6	28	89.7	26	89.7	26	100.0	16	100.0	16	93.8	15	81.3	13
	10,000명 이상	100.0	14	100.0	14	100.0	14	100.0	14	81.8	9	81.8	9	81.8	9	100.0	11
대학종류	4년제	93.8	45	91.7	44	83.3	40	87.5	42	94.4	34	91.7	33	88.9	32	94.4	34
	2~3년제	90.9	10	81.8	9	81.8	9	81.8	9	88.5	23	80.8	21	65.4	17	53.8	14
대학유형	국공립	100.0	8	100.0	8	100.0	8	100.0	8	90.0	9	80.0	8	80.0	8	80.0	8
	사립	92.2	47	88.2	45	80.4	41	84.3	43	92.3	48	88.5	46	78.8	41	76.9	40

<부표 13>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진로지도 관련] 9) 진로취업포인트 제도 시행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5.3	61	96.9	62	93.8	60	95.3	61	87.3	62	88.7	63	85.9	61	80.3	57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4.2	16	89.5	17	78.9	15	84.2	16	87.2	41	89.4	42	85.1	40	80.9	38
	5000명 이상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90.0	18	90.0	18	90.0	18	75.0	15
	10,000명 미만	100.0	29	100.0	29	100.0	29	100.0	29	90.0	18	90.0	18	90.0	18	75.0	15
	10,000명 이상	100.0	16	100.0	16	100.0	16	100.0	16	75.0	3	75.0	3	75.0	3	100.0	4
대학종류	4년제	96.1	49	96.1	49	96.1	49	100.0	51	85.4	35	87.8	36	87.8	36	97.6	40
	2~3년제	92.3	12	100.0	13	84.6	11	76.9	10	90.0	27	90.0	27	83.3	25	56.7	17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0	100.0	10	90.0	9	90.0	9	88.9	8	88.9	8	77.8	7	77.8	7
	사립	94.4	51	96.3	52	94.4	51	96.3	52	87.1	54	88.7	55	87.1	54	80.6	50

<부표 14>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 직무능력강화 프로그램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75.7	53	81.4	57	87.1	61	94.3	66	76.0	76	81.0	81	80.0	80	83.0	83
대학규모	5000명 미만	75.0	15	85.0	17	80.0	16	85.0	17	80.6	54	86.6	58	79.1	53	79.1	53
	5000명 이상	75.0	24	81.3	26	90.6	29	96.9	31	69.6	16	73.9	17	87.0	20	87.0	20
	10,000명 미만	75.0	24	81.3	26	90.6	29	96.9	31	69.6	16	73.9	17	87.0	20	87.0	20
	10,000명 이상	77.8	14	77.8	14	88.9	16	100.0	18	60.0	6	60.0	6	70.0	7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77.8	42	77.8	42	88.9	48	100.0	54	70.7	41	72.4	42	82.8	48	100.0	58
	2~3년제	68.8	11	93.8	15	81.3	13	75.0	12	83.3	35	92.9	39	76.2	32	59.5	25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1	100.0	11	90.9	10	90.9	10	86.7	13	86.7	13	86.7	13	73.3	11
	사립	71.2	42	78.0	46	86.4	51	94.9	56	74.1	63	80.0	68	78.8	67	84.7	72

<부표 15>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2)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76.8	63	80.5	66	89.0	73	91.5	75	71.2	94	81.1	107	79.5	105	81.1	107
대학규모	5000명 미만	79.2	19	83.3	20	75.0	18	75.0	18	72.8	67	85.9	79	77.2	71	77.2	71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73.7	28	78.9	30	92.1	35	97.4	37	69.0	20	72.4	21	89.7	26	86.2	25
	10,000명 이상	80.0	16	80.0	16	100.0	20	100.0	20	63.6	7	63.6	7	72.7	8	100.0	11
대학종류	4년제	76.2	48	76.2	48	93.7	59	100.0	63	71.1	54	72.4	55	88.2	67	100.0	76
	2~3년제	78.9	15	94.7	18	73.7	14	63.2	12	71.4	40	92.9	52	67.9	38	55.4	31
대학유형	국공립	80.0	12	80.0	12	93.3	14	93.3	14	94.1	16	94.1	16	88.2	15	76.5	13
	사립	76.1	51	80.6	54	88.1	59	91.0	61	67.8	78	79.1	91	78.3	90	81.7	94

<부표 16>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3)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3.1	64	85.7	66	88.3	68	94.8	73	81.3	74	85.7	78	81.3	74	82.4	75
대학규모	5000명 미만	72.7	16	86.4	19	81.8	18	86.4	19	86.7	52	93.3	56	81.7	49	76.7	46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83.3	30	80.6	29	86.1	31	97.2	35	80.0	16	80.0	16	85.0	17	90.0	18
	10,000명 이상	94.7	18	94.7	18	100.0	19	100.0	19	54.5	6	54.5	6	72.7	8	100.0	11
대학종류	4년제	83.1	49	84.7	50	91.5	54	100.0	59	75.5	40	77.4	41	83.0	44	100.0	53
	2~3년제	83.3	15	88.9	16	77.8	14	77.8	14	89.5	34	97.4	37	78.9	30	57.9	22
대학유형	국공립	92.9	13	92.9	13	92.9	13	92.9	13	100.0	14	100.0	14	92.9	13	71.4	10
	사립	81.0	51	84.1	53	87.3	55	95.2	60	77.9	60	83.1	64	79.2	61	84.4	65

<부표 17>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4) 취업동아리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2.0	44	73.2	52	85.9	61	94.4	67	69.3	61	73.9	65	79.5	70	86.4	76
대학규모	5000명 미만	55.0	11	75.0	15	75.0	15	80.0	16	83.0	44	86.8	46	81.1	43	83.0	44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60.6	20	69.7	23	84.8	28	100.0	33	52.0	13	60.0	15	84.0	21	88.0	22
	10,000명 이상	72.2	13	77.8	14	100.0	18	100.0	18	40.0	4	40.0	4	60.0	6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59.3	32	68.5	37	88.9	48	100.0	54	61.8	34	61.8	34	81.8	45	100.0	55
	2~3년제	70.6	12	88.2	15	76.5	13	76.5	13	81.8	27	93.9	31	75.8	25	63.6	21
대학유형	국공립	71.4	10	78.6	11	85.7	12	92.9	13	90.9	10	90.9	10	90.9	10	81.8	9
	사립	59.6	34	71.9	41	86.0	49	94.7	54	66.2	51	71.4	55	77.9	60	87.0	67

<부표 18>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5) 자격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활동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6.4	51	88.1	52	89.8	53	98.3	58	86.2	75	89.7	78	85.1	74	78.2	68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3.3	15	83.3	15	77.8	14	94.4	17	88.7	55	93.5	58	82.3	51	75.8	47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92.0	23	96.0	24	96.0	24	100.0	25	81.8	18	81.8	18	95.5	21	81.8	18
	10,000명 이상	81.3	13	81.3	13	93.8	15	100.0	16	66.7	2	66.7	2	66.7	2	100.0	3
대학종류	4년제	86.4	38	86.4	38	93.2	41	100.0	44	84.4	38	84.4	38	88.9	40	100.0	45
	2~3년제	86.7	13	93.3	14	80.0	12	93.3	14	88.1	37	95.2	40	81.0	34	54.8	23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2	100.0	12	100.0	12	100.0	12	92.3	12	100.0	13	92.3	12	69.2	9
	사립	83.0	39	85.1	40	87.2	41	97.9	46	85.1	63	87.8	65	83.8	62	79.7	59

<부표 19>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6) 기업정보 탐색·활용 강화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3.6	46	83.6	46	85.5	47	96.4	53	71.1	54	77.6	59	80.3	61	84.2	64
대학규모	5000명 미만	69.2	9	69.2	9	69.2	9	84.6	11	77.3	34	88.6	39	77.3	34	77.3	34
	5000명 이상	86.2	25	86.2	25	89.7	26	100.0	29	68.2	15	68.2	15	86.4	19	90.9	20
	10,000명 미만	86.2	25	86.2	25	89.7	26	100.0	29	68.2	15	68.2	15	86.4	19	90.9	20
	10,000명 이상	92.3	12	92.3	12	92.3	12	100.0	13	50.0	5	50.0	5	80.0	8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81.4	35	81.4	35	88.4	38	100.0	43	69.4	34	69.4	34	85.7	42	100.0	49
	2~3년제	91.7	11	91.7	11	75.0	9	83.3	10	74.1	20	92.6	25	70.4	19	55.6	15
대학유형	국공립	100.0	8	100.0	8	87.5	7	87.5	7	85.7	12	92.9	13	85.7	12	78.6	11
	사립	80.9	38	80.9	38	85.1	40	97.9	46	67.7	42	74.2	46	79.0	49	85.5	53

<부표 20>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7) 예비직업인 소양 강화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72.9	43	76.3	45	86.4	51	94.9	56	67.5	56	72.3	60	73.5	61	83.1	69
대학규모	5000명 미만	75.0	12	81.3	13	87.5	14	87.5	14	77.2	44	84.2	48	78.9	45	80.7	46
	5000명 이상	75.0	21	78.6	22	82.1	23	96.4	27	50.0	10	50.0	10	70.0	14	85.0	17
	10,000명 미만	75.0	21	78.6	22	82.1	23	96.4	27	50.0	10	50.0	10	70.0	14	85.0	17
	10,000명 이상	66.7	10	66.7	10	93.3	14	100.0	15	33.3	2	33.3	2	33.3	2	100.0	6
대학종류	4년제	71.1	32	71.1	32	86.7	39	97.8	44	58.7	27	60.9	28	69.6	32	100.0	46
	2~3년제	78.6	11	92.9	13	85.7	12	85.7	12	78.4	29	86.5	32	78.4	29	62.2	23
대학유형	국공립	88.9	8	88.9	8	88.9	8	100.0	9	81.8	9	90.9	10	81.8	9	63.6	7
	사립	70.0	35	74.0	37	86.0	43	94.0	47	65.3	47	69.4	50	72.2	52	86.1	62

<부표 21>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8) 취업정보자료집 제공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8.0	66	88.0	66	89.3	67	94.7	71	77.8	77	85.9	85	79.8	79	80.8	80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1.8	18	86.4	19	81.8	18	86.4	19	78.3	54	89.9	62	78.3	54	76.8	53
	5000명 이상	88.6	31	85.7	30	88.6	31	97.1	34	80.0	16	80.0	16	85.0	17	85.0	17
	10,000명 미만	88.6	31	85.7	30	88.6	31	97.1	34	80.0	16	80.0	16	85.0	17	85.0	17
	10,000명 이상	94.4	17	94.4	17	100.0	18	100.0	18	70.0	7	70.0	7	80.0	8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87.9	51	86.2	50	91.4	53	98.3	57	76.9	40	76.9	40	82.7	43	100.0	52
	2~3년제	88.2	15	94.1	16	82.4	14	82.4	14	78.7	37	95.7	45	76.6	36	59.6	28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2	91.7	11	83.3	10	83.3	10	86.7	13	93.3	14	86.7	13	73.3	11
	사립	85.7	54	87.3	55	90.5	57	96.8	61	76.2	64	84.5	71	78.6	66	82.1	69

<부표 22>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9) 구직기술 강화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7.5	52	74.0	57	87.0	67	94.8	73	66.7	80	77.5	93	81.7	98	84.2	101
대학규모	5000명 미만	65.2	15	73.9	17	82.6	19	87.0	20	73.5	61	85.5	71	83.1	69	80.7	67
	5000명 이상	60.0	21	65.7	23	82.9	29	97.1	34	51.9	14	63.0	17	81.5	22	88.9	24
	10,000명 미만	60.0	21	65.7	23	82.9	29	97.1	34	51.9	14	63.0	17	81.5	22	88.9	24
	10,000명 이상	84.2	16	89.5	17	100.0	19	100.0	19	50.0	5	50.0	5	70.0	7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66.1	39	67.8	40	88.1	52	100.0	59	61.2	41	62.7	42	85.1	57	100.0	67
	2~3년제	72.2	13	94.4	17	83.3	15	77.8	14	73.6	39	96.2	51	77.4	41	64.2	34
대학유형	국공립	78.6	11	85.7	12	85.7	12	92.9	13	86.7	13	86.7	13	80.0	12	73.3	11
	사립	65.1	41	71.4	45	87.3	55	95.2	60	63.8	67	76.2	80	81.9	86	85.7	90

<부표 23>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0)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47.6	39	63.4	52	86.6	71	91.5	75	51.3	59	67.0	77	74.8	86	81.7	94
대학규모	5000명 미만	50.0	12	75.0	18	79.2	19	79.2	19	61.0	47	80.5	62	75.3	58	77.9	60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37.8	14	54.1	20	86.5	32	94.6	35	32.1	9	39.3	11	78.6	22	85.7	24
	10,000명 이상	61.9	13	66.7	14	95.2	20	100.0	21	30.0	3	40.0	4	60.0	6	100.0	10
대학종류	4년제	47.6	30	55.6	35	88.9	56	100.0	63	43.9	29	47.0	31	77.3	51	100.0	66
	2~3년제	47.4	9	89.5	17	78.9	15	63.2	12	61.2	30	93.9	46	71.4	35	57.1	28
대학유형	국공립	71.4	10	64.3	9	92.9	13	92.9	13	68.8	11	81.3	13	87.5	14	75.0	12
	사립	42.6	29	63.2	43	85.3	58	91.2	62	48.5	48	64.6	64	72.7	72	82.8	82

<부표 24>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1) 채용지원 서비스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6.7	52	70.5	55	83.3	65	94.9	74	67.5	81	78.3	94	73.3	88	81.7	98
대학규모	5000명 미만	52.4	11	66.7	14	81.0	17	81.0	17	72.0	59	86.6	71	76.8	63	78.0	64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73.0	27	73.0	27	81.1	30	100.0	37	63.0	17	66.7	18	74.1	20	85.2	23
	10,000명 이상	70.0	14	70.0	14	90.0	18	100.0	20	45.5	5	45.5	5	45.5	5	100.0	11
대학종류	4년제	65.0	39	65.0	39	83.3	50	100.0	60	66.7	44	66.7	44	74.2	49	100.0	66
	2~3년제	72.2	13	88.9	16	83.3	15	77.8	14	68.5	37	92.6	50	72.2	39	59.3	32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4	100.0	14	92.9	13	92.9	13	87.5	14	93.8	15	87.5	14	75.0	12
	사립	59.4	38	64.1	41	81.3	52	95.3	61	64.4	67	76.0	79	71.2	74	82.7	86

<부표 25>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2) ICT역량 강화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9.6	60	92.5	62	94.0	63	97.0	65	83.3	55	84.8	56	84.8	56	86.4	57
대학규모	5000명 미만	82.4	14	82.4	14	88.2	15	88.2	15	92.7	38	92.7	38	87.8	36	80.5	33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87.5	28	93.8	30	93.8	30	100.0	32	75.0	15	80.0	16	90.0	18	95.0	19
	10,000명 이상	100.0	18	100.0	18	100.0	18	100.0	18	40.0	2	40.0	2	40.0	2	100.0	5
대학종류	4년제	90.4	47	92.3	48	94.2	49	100.0	52	77.5	31	77.5	31	82.5	33	100.0	40
	2~3년제	86.7	13	93.3	14	93.3	14	86.7	13	92.3	24	96.2	25	88.5	23	65.4	17
대학유형	국공립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13	100.0	9	100.0	9	100.0	9	66.7	6
	사립	870.0	47	90.7	49	92.6	50	96.3	52	80.7	46	82.5	47	82.5	47	89.5	51

<부표 26>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3)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79.4	54	82.4	56	91.2	62	95.6	65	74.6	53	83.1	59	84.5	60	85.9	61
대학규모	5000명 미만	65.0	13	75.0	15	85.0	17	85.0	17	81.0	34	90.5	38	88.1	37	85.7	36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80.6	25	80.6	25	90.3	28	100.0	31	70.0	14	80.0	16	90.0	18	80.0	16
	10,000명 이상	94.1	16	94.1	16	100.0	17	100.0	17	55.6	5	55.6	5	55.6	5	100.0	9
대학종류	4년제	79.2	42	79.2	42	92.5	49	100.0	53	73.8	31	73.8	31	85.7	36	100.0	42
	2~3년제	80.0	12	93.3	14	86.7	13	80.0	12	75.9	22	96.6	28	82.8	24	65.5	19
대학유형	국공립	90.9	10	90.9	10	100.0	11	100.0	11	92.3	12	92.3	12	92.3	12	76.9	10
	사립	77.2	44	80.7	46	89.5	51	94.7	54	70.7	41	81.0	47	82.8	48	87.9	51

<부표 27>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4) 해외취업지원 서비스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9.7	53	72.4	55	80.3	61	94.7	72	68.7	46	85.1	57	86.6	58	82.1	55
대학규모	5000명 미만	66.7	14	76.2	16	81.0	17	81.0	17	71.8	28	94.9	37	92.3	36	79.5	31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66.7	24	66.7	24	77.8	28	100.0	36	68.2	15	77.3	17	81.8	18	81.8	18
	10,000명 이상	78.9	15	78.9	15	84.2	16	100.0	19	50.0	3	50.0	3	66.7	4	100.0	6
대학종류	4년제	68.3	41	68.3	41	80.0	48	100.0	60	73.2	30	75.6	31	87.8	36	100.0	41
	2~3년제	75.0	12	87.5	14	81.3	13	75.0	12	61.5	16	100.0	26	84.6	22	53.8	14
대학유형	국공립	92.3	12	100.0	13	92.3	12	92.3	12	90.9	10	90.9	10	90.9	10	72.7	8
	사립	65.1	41	66.7	42	77.8	49	95.2	60	64.3	36	83.9	47	85.7	48	83.9	47

<부표 28>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취업지원 관련] 15) 교외 청년고용서비스의 대학생 연계_대상학년(복수응답)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76.4	55	83.3	60	86.1	62	94.4	68	61.5	48	75.6	59	69.2	54	85.9	67
대학규모	5000명 미만	60.0	12	75.0	15	75.0	15	85.0	17	59.2	29	81.6	40	69.4	34	79.6	39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79.4	27	85.3	29	88.2	30	97.1	33	70.0	14	70.0	14	75.0	15	95.0	19
	10,000명 이상	88.9	16	88.9	16	94.4	17	100.0	18	55.6	5	55.6	5	55.6	5	100.0	9
대학종류	4년제	81.8	45	81.8	45	89.1	49	100.0	55	61.7	29	63.8	30	66.0	31	100.0	47
	2~3년제	58.8	10	88.2	15	76.5	13	76.5	13	61.3	19	93.5	29	74.2	23	64.5	20
대학유형	국공립	92.9	13	100.0	14	92.9	13	92.9	13	69.2	9	84.6	11	69.2	9	69.2	9
	사립	72.4	42	79.3	46	84.5	49	94.8	55	60.0	39	73.8	48	69.2	45	89.2	58

<부표 29>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1)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시간 확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12.3	10	76.5	62	11.1	9	12.3	10	87.7	71	5.1	7	27.9	38	61.8	84	5.1	7	33.1	45	66.9	91
대학규모	5000명 미만	17.4	4	65.2	15	17.4	4	17.4	4	82.6	19	6.3	6	30.5	29	57.9	55	5.3	5	36.8	35	63.2	60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10.5	4	84.2	32	5.3	2	10.5	4	89.5	34	3.4	1	24.1	7	69.0	20	3.4	1	27.6	8	72.4	21
	10,000명 이상	10.0	2	75.0	15	15.0	3	10.0	2	90.0	18	0.0	0	16.7	2	75.0	9	8.3	1	16.7	2	83.3	10
대학종류	4년제	11.1	7	81.0	51	7.9	5	11.1	7	88.9	56	3.9	3	31.2	24	59.7	46	5.2	4	35.1	27	64.9	50
	2~3년제	16.7	3	61.1	11	22.2	4	16.7	3	83.3	15	6.8	4	23.7	14	64.4	38	5.1	3	30.5	18	69.5	41
대학유형	국공립	7.7	1	76.9	10	15.4	2	7.7	1	92.3	12	0.0	0	47.1	8	47.1	8	5.9	1	47.1	8	52.9	9
	사립	13.2	9	76.5	52	10.3	7	13.2	9	86.8	59	5.9	7	25.2	30	63.9	76	5.0	6	31.1	37	68.9	82

<부표 30>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2) 직무역량강화(비교과 등) 프로그램 운영 재원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12.2	10	73.2	60	14.6	12	12.2	10	87.8	72	5.9	8	31.6	43	55.1	75	7.4	10	37.5	51	62.5	85
대학규모	5000명 미만	20.8	5	62.5	15	16.7	4	20.8	5	79.2	19	7.4	7	30.5	29	54.7	52	7.4	7	37.9	36	62.1	59
	5000명 이상	7.9	3	81.6	31	10.5	4	7.9	3	92.1	35	3.4	1	37.9	11	51.7	15	6.9	2	41.4	12	58.6	17
	10,000명 미만	10.0	2	70.0	14	20.0	4	10.0	2	90.0	18	0.0	0	25.0	3	66.7	8	8.3	1	25.0	3	75.0	9
	10,000명 이상																						
대학종류	4년제	11.1	7	74.6	47	14.3	9	11.1	7	88.9	56	6.5	5	36.4	28	50.6	39	6.5	5	42.9	33	57.1	44
	2~3년제	15.8	3	68.4	13	15.8	3	15.8	3	84.2	16	5.1	3	25.4	15	61.0	36	8.5	5	30.5	18	69.5	41
대학유형	국공립	21.4	3	64.3	9	14.3	2	21.4	3	78.6	11	5.9	1	29.4	5	47.1	8	17.6	3	35.3	6	64.7	11
	사립	10.3	7	75.0	51	14.7	10	10.3	7	89.7	61	5.9	7	31.9	38	56.3	67	5.9	7	37.8	45	62.2	74

<부표 31>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3) 일경험(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제공을 위한 자원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2.4	2	18.3	15	62.2	51	17.1	14	20.7	17	79.3	65	8.1	11	37.5	51	47.1	64	7.4	10	45.6	62	54.4	7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29.2	7	50.0	12	16.7	4	33.3	8	66.7	16	8.4	8	40.0	38	45.3	43	6.3	6	48.4	46	51.6	49
	5000명 이상	2.6	1	13.2	5	63.2	24	21.1	8	15.8	6	84.2	32	6.9	2	34.5	10	55.2	16	3.4	1	41.4	12	58.6	17
	10,000명 미만	2.6	1	13.2	5	63.2	24	21.1	8	15.8	6	84.2	32	6.9	2	34.5	10	55.2	16	3.4	1	41.4	12	58.6	17
	10,000명 이상	0.0	0	15.0	3	75.0	15	10.0	2	15.0	3	85.0	17	8.3	1	25.0	3	41.7	5	25.0	3	33.3	4	66.7	8
대학 종류	4년제	3.2	2	19.0	12	63.5	40	14.3	9	22.2	14	77.8	49	10.4	8	41.6	32	40.3	31	7.8	6	51.9	40	48.1	37
	2~3년제	0.0	0	15.8	3	57.9	11	26.3	5	15.8	3	84.2	16	5.1	3	32.2	19	55.9	33	6.8	4	37.3	22	62.7	37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28.6	4	50.0	7	14.3	2	35.7	5	64.3	9	5.9	1	35.3	6	41.2	7	17.6	3	41.2	7	58.8	10
	사립	1.5	1	16.2	11	64.7	44	17.6	12	17.6	12	82.4	56	8.4	10	37.8	45	47.9	57	5.9	7	46.2	55	53.8	64

<부표 32>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4) 양질의 일경험처(현장실습기업·기관 등) 확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2.4	2	34.1	28	58.5	48	4.9	4	36.6	30	63.4	52	8.1	11	44.9	61	41.2	56	5.9	8	52.9	72	47.1	6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45.8	11	41.7	10	8.3	2	50.0	12	50.0	12	7.4	7	41.1	39	45.3	43	6.3	6	48.4	46	51.6	49
	5000명 이상	2.6	1	34.2	13	60.5	23	2.6	1	36.8	14	63.2	24	10.3	3	58.6	17	24.1	7	6.9	2	69.0	20	31.0	9
	10,000명 미만	2.6	1	34.2	13	60.5	23	2.6	1	36.8	14	63.2	24	10.3	3	58.6	17	24.1	7	6.9	2	69.0	20	31.0	9
	10,000명 이상	0.0	0	20.0	4	75.0	15	5.0	1	20.0	4	80.0	16	8.3	1	41.7	5	50.0	6	0.0	0	50.0	6	50.0	6
대학 종류	4년제	3.2	2	30.2	19	63.5	40	3.2	2	33.3	21	66.7	42	10.4	8	50.6	39	33.8	26	5.2	4	61.0	47	39.0	30
	2~3년제	0.0	0	47.4	9	42.1	8	10.5	2	47.4	9	52.6	10	5.1	3	37.3	22	50.8	30	6.8	4	42.4	25	57.6	34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21.4	3	71.4	10	7.1	1	21.4	3	78.6	11	5.9	1	23.5	4	52.9	9	17.6	3	29.4	5	70.6	12
	사립	2.9	2	36.8	25	55.9	38	4.4	3	39.7	27	60.3	41	8.4	10	47.9	57	39.5	47	4.2	5	56.3	67	43.7	52

<부표 33>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5) 전공 관련 일자리 채용규모(일자리 양)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4.9	4	63.4	52	28.0	23	3.7	3	68.3	56	31.7	26	11.8	16	47.8	65	38.2	52	2.2	3	59.6	81	40.4	55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75.0	18	16.7	4	4.2	1	79.2	19	20.8	5	11.6	11	46.3	44	38.9	37	3.2	3	57.9	55	42.1	40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0.0	0	57.9	22	39.5	15	2.6	1	57.9	22	42.1	16	10.3	3	58.6	17	31.0	9	0.0	0	69.0	20	31.0	9
	10,000명 이상	15.0	3	60.0	12	20.0	4	5.0	1	75.0	15	25.0	5	16.7	2	33.3	4	50.0	6	0.0	0	50.0	6	50.0	6
대학 종류	4년제	6.3	4	63.5	40	25.4	16	4.8	3	69.8	44	30.2	19	15.6	12	48.1	37	35.1	27	1.3	1	63.6	49	36.4	28
	2~3년제	0.0	0	63.2	12	36.8	7	0.0	0	63.2	12	36.8	7	6.8	4	47.5	28	42.4	25	3.4	2	54.2	32	45.8	27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64.3	9	28.6	4	7.1	1	64.3	9	35.7	5	5.9	1	29.4	5	58.8	10	5.9	1	35.3	6	64.7	11
	사립	5.9	4	63.2	43	27.9	19	2.9	2	69.1	47	30.9	21	12.6	15	50.4	60	35.3	42	1.7	2	63.0	75	37.0	44

<부표 34>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6) 청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일자리 질)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1	5	58.5	48	31.7	26	3.7	3	64.6	53	35.4	29	11.8	16	50.7	69	36.8	50	.7	1	62.5	85	37.5	51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70.8	17	20.8	5	8.3	2	70.8	17	29.2	7	11.6	11	50.5	48	36.8	35	1.1	1	62.1	59	37.9	36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5.3	2	55.3	21	39.5	15	0.0	0	60.5	23	39.5	15	10.3	3	44.8	13	44.8	13	0.0	0	55.2	16	44.8	13
	10,000명 이상	15.0	3	50.0	10	30.0	6	5.0	1	65.0	13	35.0	7	16.7	2	66.7	8	16.7	2	0.0	0	83.3	10	16.7	2
대학 종류	4년제	7.9	5	54.0	34	33.3	21	4.8	3	61.9	39	38.1	24	10.4	8	54.5	42	35.1	27	0.0	0	64.9	50	35.1	27
	2~3년제	0.0	0	73.7	14	26.3	5	0.0	0	73.7	14	26.3	5	13.6	8	45.8	27	39.0	23	1.7	1	59.3	35	40.7	24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50.0	7	35.7	5	7.1	1	57.1	8	42.9	6	5.9	1	47.1	8	47.1	8	0.0	0	52.9	9	47.1	8
	사립	5.9	4	60.3	41	30.9	21	2.9	2	66.2	45	33.8	23	12.6	15	51.3	61	35.3	42	.8	1	63.9	76	36.1	43

<부표 35>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7) 생의 취업 의지 및 눈높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3.7	3	53.7	44	35.4	29	7.3	6	57.3	47	42.7	35	8.1	11	47.8	65	41.9	57	2.2	3	55.9	76	44.1	6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54.2	13	41.7	10	4.2	1	54.2	13	45.8	11	8.4	8	49.5	47	38.9	37	3.2	3	57.9	55	42.1	40
	5000명 이상	2.6	1	65.8	25	23.7	9	7.9	3	68.4	26	31.6	12	10.3	3	44.8	13	44.8	13	0.0	0	55.2	16	44.8	13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0.0	2	30.0	6	50.0	10	10.0	2	40.0	8	60.0	12	0.0	0	41.7	5	58.3	7	0.0	0	41.7	5	58.3	7
대학 종류	4년제	4.8	3	52.4	33	34.9	22	7.9	5	57.1	36	42.9	27	6.5	5	42.9	33	48.1	37	2.6	2	49.4	38	50.6	39
	2~3년제	0.0	0	57.9	11	36.8	7	5.3	1	57.9	11	42.1	8	10.2	6	54.2	32	33.9	20	1.7	1	64.4	38	35.6	21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28.6	4	57.1	8	7.1	1	35.7	5	64.3	9	5.9	1	52.9	9	41.2	7	0.0	0	58.8	10	41.2	7
	사립	2.9	2	58.8	40	30.9	21	7.4	5	61.8	42	38.2	26	8.4	10	47.1	56	42.0	50	2.5	3	55.5	66	44.5	53

<부표 36>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8) 취업처 발굴 및 연계(채용정보제공 및 매칭)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3.7	3	35.8	29	55.6	45	4.9	4	39.5	32	60.5	49	8.1	11	40.4	55	49.3	67	2.2	3	48.5	66	51.5	70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37.5	9	50.0	12	8.3	2	41.7	10	58.3	14	8.4	8	37.9	36	51.6	49	2.1	2	46.3	44	53.7	51
	5000명 이상	2.7	1	35.1	13	59.5	22	2.7	1	37.8	14	62.2	23	6.9	2	48.3	14	41.4	12	3.4	1	55.2	16	44.8	13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5.0	1	35.0	7	55.0	11	5.0	1	40.0	8	60.0	12	8.3	1	41.7	5	50.0	6	0.0	0	50.0	6	50.0	6
대학 종류	4년제	4.8	3	32.3	20	56.5	35	6.5	4	37.1	23	62.9	39	9.1	7	45.5	35	42.9	33	2.6	2	54.5	42	45.5	35
	2~3년제	0.0	0	47.4	9	52.6	10	0.0	0	47.4	9	52.6	10	6.8	4	33.9	20	57.6	34	1.7	1	40.7	24	59.3	35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35.7	5	57.1	8	7.1	1	35.7	5	64.3	9	5.9	1	35.3	6	52.9	9	5.9	1	41.2	7	58.8	10
	사립	4.5	3	35.8	24	55.2	37	4.5	3	40.3	27	59.7	40	8.4	10	41.2	49	48.7	58	1.7	2	49.6	59	50.4	60

<부표 37>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9) 취업자 조사 및 졸업생 사후관리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3.7	3	31.7	26	57.3	47	7.3	6	35.4	29	64.6	53	9.6	13	28.7	39	53.7	73	8.1	11	38.2	52	61.8	8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250.0	6	66.7	16	4.2	1	29.2	7	70.8	17	9.5	9	29.5	28	52.6	50	8.4	8	38.9	37	61.1	58
	5000명 이상	5.3	2	34.2	13	55.3	21	5.3	2	39.5	15	60.5	23	6.9	2	31.0	9	51.7	15	10.3	3	37.9	11	62.1	18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0.0	0	35.0	7	50.0	10	15.0	3	35.0	7	65.0	13	16.7	2	16.7	2	66.7	8	0.0	0	33.3	4	66.7	8
대학 종류	4년제	3.2	2	33.3	21	54.0	34	9.5	6	36.5	23	63.5	40	9.1	7	31.2	24	51.9	40	7.8	6	40.3	31	59.7	46
	2~3년제	5.3	1	26.3	5	68.4	13	0.0	0	31.6	6	68.4	13	10.2	6	25.4	15	55.9	33	8.5	5	35.6	21	64.4	38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28.6	4	50.0	7	14.3	2	35.7	5	64.3	9	0.0	0	23.5	4	58.8	10	17.6	3	23.5	4	76.5	13
	사립	2.9	2	32.4	22	58.8	40	5.9	4	35.3	24	64.7	44	10.9	13	29.4	35	52.9	63	6.7	8	40.3	48	59.7	71

<부표 38>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10) 학생들의 경제수준 대비 역량강화 준비 비용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3.7	3	34.6	28	50.6	41	11.1	9	38.3	31	61.7	50	13.2	18	32.4	44	44.9	61	9.6	13	45.6	62	54.4	7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41.7	10	37.5	9	20.8	5	41.7	10	58.3	14	13.7	13	29.5	28	45.3	43	11.6	11	43.2	41	56.8	54
	5000명 이상	2.7	1	37.8	14	54.1	20	5.4	2	40.5	15	59.5	22	6.9	2	37.9	11	48.3	14	6.9	2	44.8	13	55.2	16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0.0	2	20.0	4	60.0	12	10.0	2	30.0	6	70.0	14	25.0	3	41.7	5	33.3	4	0.0	0	66.7	8	33.3	4
대학 종류	4년제	4.8	3	29.0	18	58.1	36	8.1	5	33.9	21	66.1	41	13.0	10	40.3	31	40.3	31	6.5	5	53.2	41	46.8	36
	2~3년제	0.0	0	52.6	10	26.3	5	21.1	4	52.6	10	47.4	9	13.6	8	22.0	13	50.8	30	13.6	8	35.6	21	64.4	38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35.7	5	50.0	7	14.3	2	35.7	5	64.3	9	5.9	1	17.6	3	70.6	12	5.9	1	23.5	4	76.5	13
	사립	4.5	3	34.3	23	50.7	34	10.4	7	38.8	26	61.2	41	14.3	17	34.5	41	41.2	49	10.1	12	48.7	58	51.3	61

<부표 39>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11) 진로취업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보유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22.0	18	58.5	48	18.3	15	23.2	19	76.8	63	13.2	18	39.7	54	41.2	56	5.9	8	52.9	72	47.1	64
대학규모	5000명 미만	20.8	5	50.0	12	29.2	7	20.8	5	79.2	19	15.8	15	42.1	40	35.8	34	6.3	6	57.9	55	42.1	40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28.9	11	63.2	24	7.9	3	28.9	11	71.1	27	6.9	2	37.9	11	51.7	15	3.4	1	44.8	13	55.2	16
	10,000명 이상	10.0	2	60.0	12	25.0	5	15.0	3	85.0	17	8.3	1	25.0	3	58.3	7	8.3	1	33.3	4	66.7	8
대학종류	4년제	19.0	12	65.1	41	14.3	9	20.6	13	79.4	50	13.0	10	41.6	32	37.7	29	7.8	6	54.5	42	45.5	35
	2~3년제	31.6	6	36.8	7	31.6	6	31.6	6	68.4	13	13.6	8	37.3	22	45.8	27	3.4	2	50.8	30	49.2	29
대학유형	국공립	35.7	5	50.0	7	14.3	2	35.7	5	64.3	9	0.0	0	41.2	7	52.9	9	5.9	1	41.2	7	58.8	10
	사립	19.1	13	60.3	41	19.1	13	20.6	14	79.4	54	15.1	18	39.5	47	39.5	47	5.9	7	54.6	65	45.4	54

<부표 40>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12) 기업협력 및 취업처 발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1	5	43.9	36	42.7	35	7.3	6	50.0	41	50.0	41	11.8	16	47.1	64	40.4	55	.7	1	58.8	80	41.2	56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41.7	10	41.7	10	12.5	3	45.8	11	54.2	13	14.7	14	43.2	41	41.1	39	1.1	1	57.9	55	42.1	40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5.3	2	47.4	18	42.1	16	5.3	2	52.6	20	47.4	18	3.4	1	58.6	17	37.9	11	0.0	0	62.1	18	37.9	11
	10,000명 이상	10.0	2	40.0	8	45.0	9	5.0	1	50.0	10	50.0	10	8.3	1	50.0	6	41.7	5	0.0	0	58.3	7	41.7	5
대학 종류	4년제	7.9	5	46.0	29	39.7	25	6.3	4	54.0	34	46.0	29	13.0	10	53.2	41	32.5	25	1.3	1	66.2	51	33.8	26
	2~3년제	0.0	0	36.8	7	52.6	10	10.5	2	36.8	7	63.2	12	10.2	6	39.0	23	50.8	30	0.0	0	49.2	29	50.8	30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35.7	5	50.0	7	7.1	1	42.9	6	57.1	8	5.9	1	41.2	7	52.9	9	0.0	0	47.1	8	52.9	9
	사립	5.9	4	45.6	31	41.2	28	7.4	5	51.5	35	48.5	33	12.6	15	47.9	57	38.7	46	.8	1	60.5	72	39.5	47

<부표 41>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1. 애로사항 수준 13) 경력개발전산시스템 개발 및 활용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미흡 (①+②)		양호 (③+④)	
전체		19.5	16	59.8	49	20.7	17	19.5	16	80.5	66	15.4	21	31.6	43	49.3	67	3.7	5	47.1	64	52.9	72
대학규모	5000명 미만	25.0	6	45.8	11	29.2	7	25.0	6	75.0	18	20.0	19	33.7	32	45.3	43	1.1	1	53.7	51	46.3	44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21.1	8	63.2	24	15.8	6	21.1	8	78.9	30	6.9	2	27.6	8	55.2	16	10.3	3	34.5	10	65.5	19
	10,000명 이상	10.0	2	70.0	14	20.0	4	10.0	2	90.0	18	0.0	0	25.0	3	66.7	8	8.3	1	25.0	3	75.0	9
대학종류	4년제	15.9	10	61.9	39	22.2	14	15.9	10	84.1	53	16.9	13	27.3	21	50.6	39	5.2	4	44.2	34	55.8	43
	2~3년제	31.6	6	52.6	10	15.8	3	31.6	6	68.4	13	13.6	8	37.3	22	47.5	28	1.7	1	50.8	30	49.2	29
대학유형	국공립	7.1	1	71.4	10	21.4	3	7.1	1	92.9	13	0.0	0	41.2	7	52.9	9	5.9	1	41.2	7	58.8	10
	사립	22.1	15	57.4	39	20.6	14	22.1	15	77.9	53	17.6	21	30.3	36	48.7	58	3.4	4	47.9	57	52.1	62

<부표 42>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1)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시간 확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3.7	3	23.2	19	58.5	48	14.6	12	26.8	22	73.2	60	6.6	9	23.5	32	55.1	75	14.7	20	30.1	41	69.9	95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20.8	5	62.5	15	12.5	3	25.0	6	75.0	18	7.4	7	21.1	20	54.7	52	16.8	16	28.4	27	71.6	68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2.6	1	23.7	9	55.3	21	18.4	7	26.3	10	73.7	28	6.9	2	31.0	9	55.2	16	6.9	2	37.9	11	62.1	18
	10,000명 이상	5.0	1	25.0	5	60.0	12	10.0	2	30.0	6	70.0	14	0.0	0	25.0	3	58.3	7	16.7	2	25.0	3	75.0	9
대학 종류	4년제	4.8	3	23.8	15	58.7	37	12.7	8	28.6	18	71.4	45	5.2	4	20.8	16	58.4	45	15.6	12	26.0	20	74.0	57
	2~3년제	0.0	0	21.1	4	57.9	11	21.1	4	21.1	4	78.9	15	8.5	5	27.1	16	50.8	30	13.6	8	35.6	21	64.4	38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28.6	4	42.9	6	28.6	4	28.6	4	71.4	10	5.9	1	23.5	4	52.9	9	17.6	3	29.4	5	70.6	12
	사 립	4.4	3	22.1	15	61.8	42	11.8	8	26.5	18	73.5	50	6.7	8	23.5	28	55.5	66	14.3	17	30.3	36	69.7	83

<부표 43>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2) 직무역량강화(비교과 등) 프로그램 운영 재원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4	7	57.8	48	32.5	27	9.6	8	90.4	75	9.6	13	68.4	93	21.3	29	10.3	14	89.7	122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45.8	11	50.0	12	4.2	1	95.8	23	8.4	8	69.5	66	21.1	20	9.5	9	90.5	86
	5000명 이상	10.5	4	68.4	26	21.1	8	10.5	4	89.5	34	10.3	3	69.0	20	20.7	6	10.3	3	89.7	26
	10,000명 미만	9.5	2	52.4	11	33.3	7	14.3	3	85.7	18	16.7	2	58.3	7	25.0	3	16.7	2	83.3	10
	10,000명 이상																				
대학 종류	4년제	9.4	6	60.9	39	28.1	18	10.9	7	89.1	57	7.8	6	64.9	50	26.0	20	9.1	7	90.9	70
	2~3년제	5.3	1	47.4	9	47.4	9	5.3	1	94.7	18	11.9	7	72.9	43	15.3	9	11.9	7	88.1	52
대학 유형	국공립	20.0	3	33.3	5	46.7	7	20.0	3	80.0	12	17.6	3	52.9	9	29.4	5	17.6	3	82.4	14
	사립	5.9	4	63.2	43	29.4	20	7.4	5	92.6	63	8.4	10	70.6	84	20.2	24	9.2	11	90.8	108

<부표 44>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3) 일경험(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제공을 위한 재원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1	5	56.1	46	36.6	30	7.3	6	92.7	76	2.9	4	11.0	15	59.6	81	26.5	36	14.0	19	86.0	117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45.8	11	50.0	12	4.2	1	95.8	23	4.2	4	11.6	11	60.0	57	24.2	23	15.8	15	84.2	80
	5000명 이상	5.3	2	63.2	24	31.6	12	5.3	2	94.7	36	0.0	0	6.9	2	69.0	20	24.1	7	6.9	2	93.1	27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0.0	2	55.0	11	30.0	6	15.0	3	85.0	17	0.0	0	16.7	2	33.3	4	50.0	6	16.7	2	83.3	10
대학 종류	4년제	6.3	4	60.3	38	31.7	20	7.9	5	92.1	58	2.6	2	6.5	5	58.4	45	32.5	25	9.1	7	90.9	70
	2~3년제	5.3	1	42.1	8	52.6	10	5.3	1	94.7	18	3.4	2	16.9	10	61.0	36	18.6	11	20.3	12	79.7	47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42.9	6	50.0	7	7.1	1	92.9	13	0.0	0	11.8	2	52.9	9	35.3	6	11.8	2	88.2	15
	사립	5.9	4	58.8	40	33.8	23	7.4	5	92.6	63	3.4	4	10.9	13	60.5	72	25.2	30	14.3	17	85.7	102

<부표 45>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4) 양질의 일경험처(현장실습기업·기관 등) 확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1.2	1	47.6	39	50.0	41	2.4	2	97.6	80	2.9	4	5.9	8	59.6	81	31.6	43	8.8	12	91.2	12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41.7	10	58.3	14	0.0	0	100.0	24	3.2	3	7.4	7	60.0	57	29.5	28	10.5	10	89.5	85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2.6	1	50.0	19	47.4	18	2.6	1	97.4	37	3.4	1	3.4	1	55.2	16	37.9	11	6.9	2	93.1	27
	10,000명 이상	0.0	0	50.0	10	45.0	9	5.0	1	95.0	19	0.0	0	0.0	0	66.7	8	33.3	4	0.0	0	100.0	12
대학 종류	4년제	1.6	1	49.2	31	47.6	30	3.2	2	96.8	61	2.6	2	3.9	3	58.4	45	35.1	27	6.5	5	93.5	72
	2~3년제	0.0	0	42.1	8	57.9	11	0.0	0	100.0	19	3.4	2	8.5	5	61.0	36	27.1	16	11.9	7	88.1	52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57.1	8	42.9	6	0.0	0	100.0	14	0.0	0	5.9	1	52.9	9	41.2	7	5.9	1	94.1	16
	사 립	1.5	1	45.6	31	51.5	35	2.9	2	97.1	66	3.4	4	5.9	7	60.5	72	30.3	36	9.2	11	90.8	108

<부표 46>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5) 전공 관련 일자리 채용규모(일자리 양)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1.2	1	43.9	36	53.7	44	2.4	2	97.6	80	1.5	2	4.4	6	52.9	72	41.2	56	5.9	8	94.1	128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45.8	11	54.2	13	0.0	0	100.0	24	2.1	2	4.2	4	54.7	52	38.9	37	6.3	6	93.7	89
	5000명 이상	2.6	1	47.4	18	50.0	19	2.6	1	97.4	37	0.0	0	6.9	2	48.3	14	44.8	13	6.9	2	93.1	27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0.0	0	35.0	7	60.0	12	50.0	1	95.0	19	0.0	0	0.0	0	50.0	6	50.0	6	0.0	0	100.0	12
대학 종류	4년제	1.6	1	44.4	28	52.4	33	3.2	2	96.8	61	2.6	2	1.3	1	54.5	42	41.6	32	3.9	3	96.1	74
	2~3년제	0.0	0	42.1	8	57.9	11	0.0	0	100.0	19	0.0	0	8.5	5	50.8	30	40.7	24	8.5	5	91.5	54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57.1	8	42.9	6	0.0	0	100.0	14	0.0	0	0.0	0	52.9	9	47.1	8	0.0	0	100.0	17
	사 립	1.5	1	41.2	28	55.9	38	2.9	2	97.1	66	1.7	2	50.0	6	52.9	63	40.3	48	6.7	8	93.3	111

<부표 47>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6) 청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일자리 질)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2.4	2	43.4	36	53.0	44	3.6	3	96.4	80	2.2	3	2.9	4	52.9	72	41.9	57	5.1	7	94.9	129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41.7	10	58.3	14	0.0	0	100.0	24	3.2	3	3.2	3	53.7	51	40.0	38	6.3	6	93.7	89
	5000명 이상	0.0	0	50.0	19	50.0	19	0.0	0	100.0	38	0.0	0	0.0	0	55.2	16	44.8	13	0.0	0	100.0	29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9.5	2	33.3	7	52.4	11	14.3	3	85.7	18	0.0	0	8.3	1	41.7	5	50.0	6	8.3	1	91.7	11
대학 종류	4년제	3.1	2	46.9	30	48.4	31	4.7	3	95.3	61	2.6	2	1.3	1	50.6	39	45.5	35	3.9	3	96.1	74
	2~3년제	0.0	0	31.6	6	68.4	13	0.0	0	100.0	19	1.7	1	5.1	3	55.9	33	37.3	22	6.8	4	93.2	55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53.3	8	46.7	7	0.0	0	100.0	15	0.0	0	0.0	0	58.8	10	41.2	7	0.0	0	100.0	17
	사립	2.9	2	41.2	28	54.4	37	4.4	3	95.6	65	2.5	3	3.4	4	52.1	62	42.0	50	5.9	7	94.1	112

<부표 48>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7) 생의 취업 의지 및 눈높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20.7	17	51.2	42	25.6	21	23.2	19	76.8	63	2.9	4	14.0	19	57.4	78	25.7	35	16.9	23	83.1	113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16.7	4	58.3	14	20.8	5	20.8	5	79.2	19	2.1	2	14.7	14	57.9	55	25.3	24	16.8	16	83.2	79
	5000명 이상	15.8	6	52.6	20	31.6	12	15.8	6	84.2	32	6.9	2	13.8	4	58.6	17	20.7	6	20.7	6	79.3	23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35.0	7	40.0	8	20.0	4	40.0	8	60.0	12	0.0	0	8.3	1	50.0	6	41.7	5	8.3	1	91.7	11
대학 종류	4년제	22.2	14	52.4	33	22.2	14	25.4	16	74.6	47	3.9	3	13.0	10	55.8	43	27.3	21	16.9	13	83.1	64
	2~3년제	15.8	3	47.4	9	36.8	7	15.8	3	84.2	16	1.7	1	15.3	9	59.3	35	23.7	14	16.9	10	83.1	49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64.3	9	28.6	4	7.1	1	92.9	13	0.0	0	11.8	2	52.9	9	35.3	6	11.8	2	88.2	15
	사립	23.5	16	48.5	33	25.0	17	26.5	18	73.5	50	3.4	4	14.3	17	58.0	69	24.4	29	17.6	21	82.4	98

<부표 49>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8) 취업처 발굴 및 연계(채용정보제공 및 매칭)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3.7	3	63.4	52	32.9	27	3.7	3	96.3	79	2.9	4	8.1	11	58.8	80	30.1	41	11.0	15	89.0	121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4.2	1	58.3	14	37.5	9	4.2	1	95.8	23	3.2	3	7.4	7	60.0	57	29.5	28	10.5	10	89.5	85
	5000명 이상	2.6	1	65.8	25	31.6	12	2.6	1	97.4	37	3.4	1	3.4	1	62.1	18	31.0	9	6.9	2	93.1	27
	10,000명 미만	2.6	1	65.8	25	31.6	12	2.6	1	97.4	37	3.4	1	3.4	1	62.1	18	31.0	9	6.9	2	93.1	27
	10,000명 이상	5.0	1	65.0	13	30.0	6	5.0	1	95.0	19	0.0	0	25.0	3	41.7	5	33.3	4	25.0	3	75.0	9
대학 종류	4년제	4.8	3	65.1	41	30.2	19	4.8	3	95.2	60	5.2	4	6.5	5	57.1	44	31.2	24	11.7	9	88.3	68
	2~3년제	0.0	0	57.9	11	42.1	8	0.0	0	100.0	19	0.0	0	10.2	6	61.0	36	28.8	17	10.2	6	89.8	53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57.1	8	42.9	6	0.0	0	100.0	14	0.0	0	5.9	1	47.1	8	47.1	8	5.9	1	94.1	16
	사립	4.4	3	64.7	44	30.9	21	4.4	3	95.6	65	3.4	4	8.4	10	60.5	72	27.7	33	11.8	14	88.2	105

<부표 50>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9) 취업자 조사 및 졸업생 사후관리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14.6	12	54.9	45	30.5	25	14.6	12	85.4	70	5.9	8	19.1	26	48.5	66	26.5	36	25.0	34	75.0	102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12.5	3	58.3	14	29.2	7	12.5	3	87.5	21	6.3	6	18.9	18	48.4	46	26.3	25	25.3	24	74.7	71
	5000명 이상	10.5	4	55.3	21	34.2	13	10.5	4	89.5	34	3.4	1	24.1	7	44.8	13	27.6	8	27.6	8	72.4	21
	10,000명 미만	25.0	5	50.0	10	25.0	5	25.0	5	75.0	15	8.3	1	8.3	1	58.3	7	25.0	3	16.7	2	83.3	10
	10,000명 이상	25.0	5	50.0	10	25.0	5	25.0	5	75.0	15	8.3	1	8.3	1	58.3	7	25.0	3	16.7	2	83.3	10
대학 종류	4년제	14.3	9	60.3	38	25.4	16	14.3	9	85.7	54	5.2	4	20.8	16	46.8	36	27.3	21	26.0	20	74.0	57
	2~3년제	15.8	3	36.8	7	47.4	9	15.8	3	84.2	16	6.8	4	16.9	10	50.8	30	25.4	15	23.7	14	76.3	45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57.1	8	35.7	5	7.1	1	92.9	13	0.0	0	11.8	2	58.8	10	29.4	5	11.8	2	88.2	15
	사립	16.2	11	54.4	37	29.4	20	16.2	11	83.8	57	6.7	8	20.2	24	47.1	56	26.1	31	26.9	32	73.1	87

<부표 51>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10) 학생들의 경제수준 대비 역량강화 준비 비용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9.9	8	59.3	48	30.9	25	9.9	8	90.1	73	2.9	4	15.4	21	56.6	77	25.0	34	18.4	25	81.6	111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12.5	3	41.7	10	45.8	11	12.5	3	87.5	21	3.2	3	12.6	12	57.9	55	26.3	25	15.8	15	84.2	80
	5000명 이상	5.3	2	63.2	24	31.6	12	5.3	2	94.7	36	0.0	0	17.2	5	55.2	16	27.6	8	17.2	5	82.8	24
	10,000명 미만	15.8	3	73.7	14	10.5	2	15.8	3	84.2	16	8.3	1	33.3	4	50.0	6	8.3	1	41.7	5	58.3	7
	10,000명 이상																						
대학 종류	4년제	9.7	6	69.4	43	21.0	13	9.7	6	90.3	56	3.9	3	15.6	12	55.8	43	24.7	19	19.5	15	80.5	62
	2~3년제	10.5	2	26.3	5	63.2	12	10.5	2	89.5	17	1.7	1	15.3	9	57.6	34	25.4	15	16.9	10	83.1	49
대학 유형	국공립	14.3	2	57.1	8	28.6	4	14.3	2	85.7	12	0.0	0	29.4	5	47.1	8	23.5	4	29.4	5	70.6	12
	사립	9.0	6	59.7	40	31.3	21	90.0	6	91.0	61	3.4	4	13.4	16	58.0	69	25.2	30	16.8	20	83.2	99

<부표 52>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11) 진로취업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보유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6.0	5	48.2	40	45.8	38	6.0	5	94.0	78	2.2	3	6.6	9	53.7	73	37.5	51	8.8	12	91.2	12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0.0	0	54.2	13	45.8	11	0.0	0	100.0	24	3.2	3	6.3	6	51.6	49	38.9	37	9.5	9	90.5	86
	5000명 이상	2.6	1	42.1	16	55.3	21	2.6	1	97.4	37	0.0	0	3.4	1	62.1	18	34.5	10	3.4	1	96.6	28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9.0	4	52.4	11	28.6	6	19.0	4	81.0	17	0.0	0	16.7	2	50.0	6	33.3	4	16.7	2	83.3	10
대학 종류	4년제	6.3	4	54.7	35	39.1	25	6.3	4	93.8	60	2.6	2	5.2	4	55.8	43	36.4	28	7.8	6	92.2	71
	2~3년제	5.3	1	26.3	5	68.4	13	5.3	1	94.7	18	1.7	1	8.5	5	50.8	30	390.0	23	10.2	6	89.8	53
대학 유형	국공립	6.7	1	46.7	7	46.7	7	6.7	1	93.3	14	0.0	0	11.8	2	41.2	7	47.1	8	11.8	2	88.2	15
	사 립	5.9	4	48.5	33	45.6	31	5.9	4	94.1	64	2.5	3	5.9	7	55.5	66	36.1	43	8.4	10	91.6	109

<부표 53>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12) 기업협력 및 취업처 발굴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8.5	7	54.9	45	36.6	30	8.5	7	91.5	75	2.9	4	5.1	7	62.5	85	29.4	40	8.1	11	91.9	125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12.5	3	50.0	12	37.5	9	12.5	3	87.5	21	4.2	4	3.2	3	61.1	58	31.6	30	7.4	7	92.6	88
	5000명 이상	5.3	2	57.9	22	36.8	14	5.3	2	94.7	36	0.0	0	3.4	1	69.0	20	27.6	8	3.4	1	96.6	28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10.0	2	55.0	11	35.0	7	10.0	2	90.0	18	0.0	0	25.0	3	58.3	7	16.7	2	25.0	3	75.0	9
대학 종류	4년제	7.9	5	58.7	37	33.3	21	7.9	5	92.1	58	2.6	2	5.2	4	58.4	45	33.8	26	7.8	6	92.2	71
	2~3년제	10.5	2	42.1	8	47.4	9	10.5	2	89.5	17	3.4	2	5.1	3	67.8	40	23.7	14	8.5	5	91.5	54
대학 유형	국공립	0.0	0	50.0	7	50.0	7	0.0	0	100.0	14	0.0	0	5.9	1	58.8	10	35.3	6	5.9	1	94.1	16
	사립	10.3	7	55.9	38	33.8	23	10.3	7	89.7	61	3.4	4	5.0	6	63.0	75	28.6	34	8.4	10	91.6	109

<부표 54> [진로취업지원 부문 관련]_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13) 경력개발진산시스템 개발 및 활용

구분		대학일자리센터 있음										대학일자리센터 없음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불필요		다소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불필요 (①+②)		필요 (③+④)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전체		15.9	13	56.1	46	26.8	22	17.1	14	82.9	68	3.7	5	12.5	17	61.0	83	22.8	31	16.2	22	83.8	114
대학 규모	5000명 미만	12.5	3	58.3	14	29.2	7	12.5	3	87.5	21	4.2	4	12.6	12	61.1	58	22.1	21	16.8	16	83.2	79
	5000명 이상	15.8	6	57.9	22	23.7	9	18.4	7	81.6	31	3.4	1	10.3	3	62.1	18	24.1	7	13.8	4	86.2	25
	10,000명 미만	15.8	6	57.9	22	23.7	9	18.4	7	81.6	31	3.4	1	10.3	3	62.1	18	24.1	7	13.8	4	86.2	25
	10,000명 이상	20.0	4	50.0	10	30.0	6	20.0	4	80.0	16	0.0	0	16.7	2	58.3	7	25.0	3	16.7	2	83.3	10
대학 종류	4년제	17.5	11	58.7	37	22.2	14	19.0	12	81.0	51	3.9	3	11.7	9	57.1	44	27.3	21	15.6	12	84.4	65
	2~3년제	10.5	2	47.4	9	42.1	8	10.5	2	89.5	17	3.4	2	13.6	8	66.1	39	16.9	10	16.9	10	83.1	49
대학 유형	국공립	7.1	1	57.1	8	35.7	5	7.1	1	92.9	13	0.0	0	5.9	1	64.7	11	29.4	5	5.9	1	94.1	16
	사립	17.6	12	55.9	38	25.0	17	19.1	13	80.9	55	4.2	5	13.4	16	60.5	72	21.8	26	17.6	21	82.4	98

부록2.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조사표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대학교에서 진로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요구를 지니고 계신지 파악하고자 '대학 진로취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의 진로취업지원 현황과 애로사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주로 파악하고자 하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정보와 의견들은 연구의 기초자료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주최기관: 고용노동부

조사기관 (주)파워리서치 (02-518-0150)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학정보

※ 아래 대학정보는 조사 분석을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Q1. 대학명(캠퍼스명)				
SQ2. 대학설립 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SQ3. 대학유형	① 일반대학		② 전문대학	
SQ4. 재학생 규모 (정원내재학생수)	()명			
SQ5. 취업률	()% *대학공시자료 기준			
SQ6. 유지취업률	1차: ()%	2차: ()%	3차: ()%	4차: ()% *대학공시자료 기준

*. 응답자 정보

※ 아래 응답자 인적사항은 응답 사례품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통계법으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회신 이메일		전화번호	
--------	--	------	--

I.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영역

1. 우리 대학에서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소속된 곳에 표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명칭(예: 경력개발팀, 취업지원팀)을 적어주십시오. [답변 예시: ⑥기타: 학생취업처 진로취업지원팀]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		구체적인 명칭 (예: 경력개발팀, 취업지원팀 등)
① 교무처	② 학생처	()
③ 기획처	④ 산학처(단)	
⑤ 부속기관	⑥기타	

2. 우리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의 총괄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① 처장급, 교무위원 ② 부처장급, 교무위원 ③ 보직교수, 비교무위원
④ 팀장급 교직원, 비교무위원 ⑤ 기타()

3. 우리 대학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 목	해당하는 곳에 √표
1)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기관)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1) 있는 경우, 부서 명칭은 무엇입니까? ()	
2)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관련 사항을 교무위원 수준에서 논의하는 공식적 협의체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관련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실무부서 간 협의체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대학 규정 및 학칙에 진로취업지원과 관련한 학내 조직구성 및 활동 항목이 담겨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담당 교육프로그램 등을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전담공간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관련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부문 연간 계획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우리 대학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 또는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 목	해당하는 곳에 √표
1) 진로취업지원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있다 ※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기획 및 개발, 자료수집 및 분석, 진로취업상담, 교과/비교과프로그램, 직무체험 및 현장실습지원 등 포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1) '전담(전임)' 직원이 있는 경우, 몇 명입니까?	
정규직전담인력(무기계약 포함)	()명
계약직전담인력	()명
협력업체 인력	()명
보직교원	()명
전담교원	()명
조교	()명
기타()	()명
→ 총인원	()명
2) 진로취업지원의 관점을 반영한 우리 대학 자체의 인재상(또는 교육 비전, 진로개발 역량모델 등)을 보유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체계적으로 진로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 대학만의 진로취업지원 체계도(로드맵 등)를 보유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1) 진로취업지원 체계도가 있는 경우,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도(로드맵)	
② 계열·전공별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도(로드맵)	
③ 기타()	

항 목	해당하는 곳에 ✓표
4) 체계적인 온라인 진로취업지원을 위해 전산시스템(종합경력개발시스템,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등) 을 보유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1) 종합경력개발시스템이 있는 경우, 어떤 기능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기능 모두 체크, 복수응답)	
① 학생이 경력개발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활용 ② 진로취업담당부서 직원 등이 업무용으로 입력·활용 ③ 지도교수 등이 학생경력개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및 지도내역을 입력·활용 ④ 교내의 진로취업담당부서의 프로그램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신청 ⑤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제반 교내 통합정보(비교과 통합 등)를 제공·신청 ⑥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제반 교외 통합정보(정책, 서비스 등)를 제공·신청 ⑦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연계하여 제공 ⑧ 지도교수 등에게 학생·학과의 정보를 선별·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⑨ 교내 상담제공자 간 상담 연계 기능 ⑩ 대학 내 재학생 진로취업관련 중요 정보를 축적·분석하는 DB로써 활용	
4-2) 교내 인트라넷과 교내 경력개발시스템(학생이력관리시스템 등)의 연계 상황 은 어떠합니까?	
① 별도 분리 사이트로 운영하며 별도 로그인 체계 ② 별도 분리 사이트로 운영하나 통합아이디(one-id)로 로그인 및 활용 ③ 교내 인트라넷·포탈 등에 통합 연계된 사이트로 운영 ④ 기타()	
4-3) 대학 자체 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 등의 연계 상황 은 어떠합니까?	
① 별도 연계사항 없음 ② 워크넷 배너 등 바로그가 형태로 연계되어 있음 ③ 워크넷 오픈API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학전산에서 워크넷 공개 정보 직접 활용	
5) 대학 내 진로취업관련 교수 제도(진로지도교수제 등)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1) 진로취업지도교수제가 있는 경우,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학과 소속 전임교수 대부분이 해당 학과 대학생 대상 진로취업지도교수로서 활동 ② 학과별 교수 1~2인이 일종의 보직형태로 진로취업지도교수로서 활동 ③ 별도 전임교수가 진로취업지도 역할 전담교수로서 활동 → 별도 전담교수가 있는 경우 인원 _____ 명 ④ 기타()	
5-2) 진로지도교수제가 있다면, 우리 대학 내 구체적인 명칭 은 무엇입니까? ()	

II. 진로취업지원 활동 영역

5.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취업교과목 현황은 어떠합니까?

* 2018년 1학과와 2학기 개설규모 수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개설 여부	[개설된 경우]	
		연간 수강인원	대상학년
1) 진로취업 관련 교양필수	① 있다 ② 없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진로취업 관련 교양선택	① 있다 ② 없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진로취업 관련 전공필수	① 있다 ② 없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진로취업 관련 전공선택	① 있다 ② 없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6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은 어떠합니까? (2018년말 수준에 준하여 연간 규모로 응답)

[진로지도 관련]

진로지도 관련	시행여부	연간 서비스인원	대상학년 (해당학년 체크)
1) 진로취업상담(교수) *일반 학사지도, 생활상담 등 제외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진로취업상담(전문상담사, 취업지원관 컨설턴트 등) *일반학생상담, 심리상담 등 제외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진로취업상담에대한상담이력관리및대회기상담제공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진로취업 등에 대한 심층상담 제공 *학생 등에 대한 2회 이상 심층상담서비스 제공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5)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특성진단 *역량진단 등 포함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6) 전공별 진로·진출분야 안내 *자료집, 강의 등 다양한 방식 포함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7)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진로탐색워크숍, 진로설계특강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8) 경력개발계획 수립 지원 *진로계획서 등의 수립 및 실천 지도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9) 진로취업포인트 제도 시행 *진로역량강화 마일리지제도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취업지원 관련]

취업지원 관련	시행여부	연간 서비스인원	대상학년 (해당학년 체크)
1) 직무능력강화 프로그램 *특정업무 교육 등 실무직무능력강화를 위한 특강·장단기 교육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2)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 취업특강 포함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직무정보 이해·활용 강화 지원 *직무탐색 및 재직자 특강, 직무자료집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취업동아리 지원 *진로취업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5) 자격취득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 활동 지원 *자격취득비용 지원, 외부교육자율수강비 지원 등 자기주도적 취업준비활동 지원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6) 기업정보 탐색·활용 강화 지원 *기업정보 분석활동, 기업자료집 제작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7) 예비직업인 소양 강화 지원 *직장예절, 탐구 등 직업가치관형성을 위한 특강 및 프로그램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8) 취업정보자료집 제공 *취업가이드북, 취업성공수기, 전공별 취업분야 등의 자료(사이트게시 포함) 제공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9) 구직기술 강화 지원 *서류 및 면접클리닉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10) 현장실습 및 인턴십, 일경험 지원 *직무체험, 현장실습, 인턴십 활동 지원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11) 채용지원 서비스 *채용박람회, 취업처발굴, 알선매칭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12) ICT역량 강화 지원 *컴퓨터활용 및 소프트웨어과정 등 IT교육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13) 글로벌역량 강화 지원 *해외진출 관련 역량제고 관련 교육 등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14)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해외취업설명회, 해외채용알선 등 해외진출희망인력에 대한 채용지원 서비스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15) 교외 청년고용서비스의 대학생 연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외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 서비스에 우리 학교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기 연계	①한다 ②안한다	()명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III 전달체계 및 현안 영역

7. 대학생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의무화 참여 제도 시행 (졸업인증제, 필수교과목 중 필수과제 등)
- ② 장학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 ③ 진로취업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원스탑 공간 조성
- ④ 진로취업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 자료집 제공
(예: 진로취업 비교과 통합 안내 자료집, 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한 통합 정보 제공)
- ⑤ 전공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등 학과와 전담부서간의 협업 강화
- ⑥ 학생의 인식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예: SNS 및 홈페이지 게시, 홍보 현수막 등)

8. 진로취업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업 수준은 어떠합니까?

항 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	협업 하는 편이다	적극 협업 한다
1) 지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지자체)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5) 지역 산업체(산업단체, 가족기업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타 대학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부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 대학의 애로사항은 어떤 수준인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또한, 구체적인 지원 의견이 있다면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1. 애로사항 수준				2.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의견을 간략히 작성하여 주세요(필수응답 아님)
	매우 미흡	미흡	양호	매우 양호	불필 요	다소 불필 요	필요	매우 필요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시간 확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② 직무역량강화(비교과 등) 프로그램 운영 재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③ 일경험(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 제공을 위한 재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④ 양질의 일경험(현장실습기업·기관 등) 확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전공 관련 일자리 채용규모(일자리 양)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⑥ 청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일자리 질)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⑦ 학생의 취업 의지 및 눈높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⑧ 취업처 발굴 및 연계(채용정보제공 및 매칭)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⑨ 취업자 조사 및 졸업생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⑩ 학생들의 경제수준 대비 역량강화 준비 비용 (자격증 취득, 별도 학습 등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⑪ 진로취업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보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⑫ 기업협력 및 취업처 발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⑬ 경력개발전산시스템 개발 및 활용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⑭ 기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